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金文準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신 소 연

2019년 2월

# 일제강점기 金文準의 사회운동 연구

지도교수 양 정 필

신 소 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신소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A Study on the Social Movement of Kim Mun-j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HIN SO-YEO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9.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Movement of Kim Mun-J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eju Island had been blocked from outside for more than 200 years because of embargo by the Joseon's governmental policy. Since the Japan-Korea Treaty of 1876(Treaty of Ganghwa), the people of Jeju experienced drastic changes through exchanges with other regions. It was the young intellectuals who studied modern scholarship and the Jeju people who went to Japan for employment, education, and anti-Japanese movements.

Kim Mun-jun, who is discussed in this study, is one of the leaders of this change in Jeju. He was born in 1894 in Jocheon-ri, Jeju and received modern education in Jeju and Suwon.

He had a great turning point through 1919 3·1 Movement, the Jocheon Manse Movement. He established private schools which included night schools and village schools and worked hard on youth activities in Jeju until he moving to Osaka in Japan in July 1927. Then in July 1927, he moved to Osaka and began his activities based on Jeju residents in Japan who had established settlements since the opening of Jeju-Osaka regular route in 1923.

Since September 1927, he served as an executive in 'The Joseon Labor Union in Osaka' under 'The Joseon Workers League in Japan(Joseon nodong chongdongmaeng in Japan)', leading various social movements and led the activities of the New Trunk Society(Singanhoe). In addition, he formed 'The Rubber workers Union' with about 1,000 members in 1929 and joined the 'Japanese Labor Union National Council' under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in 1930.

Kim Mun-jun, arrested while preparing for labor disputes in 1930, was released in 1934, and helped to communicate among the Korean people living in Kobe, Kyoto and

Osaka by publishing “MINJUNGSIBO” in 1935. He died in Japan on May 22, 1936, and after Korea's liberation, he was recognized for his work in Japan for battling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is study deals with modern education courses he received. and through reviewing his educational movement in Jeju since the March 1919 movement, I researched the changes in his social awareness.

Besides I looked at why he moved to Japan and started a social movement, in the middle of education in Jeju. then post-liberation activities of those who were influenced by Kim or his colleagues.

In this study, it can be covered only a portion of Kim Mun-Jun's life and though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influence of his ideas and social movement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Jeju people's social movement in Jap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sts from Jeju and also need to look into all policy changes in Jeju-d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is social movement research of the Jeju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ll enable u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eju people in Japan’ and the Jeju's social movements. It is also expected to be useful for the background study of ‘The Jeju 4.3 incident’ after the liberation.

# 목 차

Abstract

I .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내용 .....	3
II . 근대학문 수학과 교육운동 .....	10
1. 제주에서 근대학문 수학 .....	10
2. 수원농림학교 진학과 수학내용 .....	14
3. 1920년대 제주에서의 교육운동 .....	22
III . 오사카 제주인의 노동운동 주도 .....	28
1. 노동운동으로의 전환과 渡日 배경 .....	28
2. 제주인의 노동조건과 오사카조선노동조합 주도 .....	32
3. ‘고무공조합’의 노동쟁의와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 가입 .....	42
IV . 언론운동과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 .....	50
1. 『민중시보』 발행과 그 의의 .....	50
2. 김문준의 영향과 제주사회운동의 발전 .....	56
V . 결론 .....	67
참고문헌 .....	71
부    록 .....	77

## <표 목차>

<표 1>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본과 교과과정 .....	16
<표 2> 1912년 연말 현재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상황 .....	17
<표 3> 민족별 노임 격차 .....	33
<표 4> 김문준의 간부 활동 이력 .....	36
<표 5> 오사카조선노조 노동쟁의 사례 .....	39
<표 6> 고무공조합 노동쟁의 사례 .....	43
<표 7> 『민중시보』 동인 이력 .....	52
<표 8> 오사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제주인 .....	59
<표 9> 동아통항조합 관련 제주인 .....	63
<표 10> 『민중시보』 관련 제주인 .....	64
<표 11> 기타 관련 인물 .....	65



## <그림 목차>

<그림 1>	농림학교 입학시험 성적 .....	15
<그림 2>	新成私塾 1회 졸업기념 사진 .....	24
<그림 3>	1925~1933년 오사카 행정구역과 제주인 거주지 .....	41
<그림 4>	김문준 관련 계보도 .....	61

## <부록 목차>

<부록 1>	木牛 金文準 年譜 .....	77
<부록 2>	農夫歌 .....	82
<부록 3>	弔故校友七首 .....	86
<부록 4>	雜感 .....	88

# I. 서론

## 1. 연구목적

제주사회는 강화도 조약 이후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200년 넘게 외부로부터 차단되었던 제주사회를 변화시킨 주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체는 근대시기 제주 유림이었다. 제주지역 유림들은 중앙에서 유배 온 척사파 崔益鉉, 개화파 金允植·朴泳孝 등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항일정신을 함양하고,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다.<sup>1)</sup>

두 번째 주체는 근대 학교 교육을 받은 1세대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서울, 도쿄 등 각지에서 유학하고 제주로 돌아온 청년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1919년 조천만세운동 이후 고취된 제주 청소년들의 항일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1920년대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소년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또한 이들은 1920년대 새로운 思潮였던 사회주의를 민족항일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 제주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세 번째 주체는 일반 제주 민중들이었다. 일제강점기 토지수탈,<sup>2)</sup> 어업권 침탈,<sup>3)</sup> 가내수공업 쇠퇴<sup>4)</sup>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극심한 빈곤에 처했던 많은 제주인들은 渡日을 선택하였다. 1910년대 해녀, 탄광부 등이 규슈 부근으로 出稼했던 경향이 1923년 제주-오사카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오사카로 出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대표적 공업도시였던 오사카로 간 제주인들은 저습지였던 東成區, 生野區 주변에서 정착하기 시작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sup>5)</sup> 그들은 영세한 마을 공

1)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2) 김봉옥, 「일제하 제주에서 탄압착취상황」, 『濟州島史研究』 Vol.6, 濟州島史研究會, 1997, 132쪽.

3) 1887년 일본의 횡포가 심해 가파도는 주민들이 피신해 버릴 정도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일본어 민이 모슬포에 상륙하여 민을 살상하고 가축을 약탈했다. 또한 무릉리·영락리·배령리를 침입해 약탈했다. 특히 주민의 재물탈취를 저지하는 마을 有司를 살해하기도 하였으며 1891년부터는 일본 나잡업도 계절적으로 제주도를 침탈했다(강만생, 「韓末 日本의 濟州 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 Vol.3, 제주도연구회, 1986, 110쪽).

4)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垂って : 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96쪽.

5) 매년 도항자 수와 귀환자 수는 비슷하였다. 잔류자 수는 1927년 약 3만 명이던 것이 1934년엔 5만 명을 넘었다. 5만 명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26%에 해당한다(栢田一二, 「濟州島人の内地

장들에 취업하면서 노동자로 전락되어갔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金文準은 인물은 앞에서 서술한 제주변화의 세 가지 주체의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는 조천지역 유림들 사이에서 자라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애국적·개방적 분위기를 수용했다. 또한 그는 근대 학교 교육의 수혜자였으며, 그가 渡日하여 1936년 사망할 때까지 제일제주인 노동자들과 함께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다.<sup>6)</sup> 그의 사상이나 활동의 변화과정은 당시 민족항일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운동 변화상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sup>7)</sup> 그가 가진 제주인의 정체성은 여타 일제강점기 운동가들의 활동들과는 차별성이 보인다.

김문준은 1894년 제주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나 성장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제주 지식인이었다. 그는 조선후기 조천지역 유림들 사이에서 애국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제주에서 민족주의계열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제주공립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농림학교(수원농림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수원농림학교 졸업 후 귀향하여 제주에서 사립학교 설립 등 교육운동에 매진하다가 1927년 7월 오사카로 건너갔다. 그는 1925년 일본지역에 결성된 제일조선인 노동단체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하 제일조선노총) 산하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이하 오사카조선노조)에서 간부를 역임하면서 각종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1927년부터 1929년까지 민족통합전선인 신간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29년 제주인 정착촌을 중심으로 고무공조합을 결성하고 1930년 일본공산당 산하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이하 전협)에 가입해 일본인운동가의 협조 하에 한층 더 격렬한 활동을 이어갔다. 고무공조합 노동쟁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검거된 김문준은 수형생활에서 풀려난 후, 1935년 『민중시보』를 발행함으로써 京阪神<sup>8)</sup> 제일조선인 민중들의 소통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출신 지식인이었던 金文準의 생애와 활

出嫁ぎ』, 1939, 20쪽; 이준식, 「일제 강점기 제주도민의 오사카 이주」,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 한일민족문제학회, 2002, 9쪽 재인용).

6) 김명식, 「나의 회고기, 대관 팔년간방랑기」, 『삼천리』 제10권 제1호, 1938.

7) 손형부, 「식민지시대 송내호·기호 형제의 민족해방운동」, 『국사관논총』 40, 1992. : 송찬섭, 「일제강점기 최익환(1897~?)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활동」, 『역사학연구』 Vol.61, 호남사학회, 2016등의 경우처럼 항일운동가 중에서 교육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했던 지식인들이 많았다.

8) 京阪神은 京都, 大阪, 神戸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토, 오사카, 고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 및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제주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김문준의 출생과 10대까지의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조천지역 공동체와 근대교육을 시작한 학교가 김문준에게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3장에서는 김문준이 渡日한 정황을 검토해 그의 활동이 교육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전환된 배경과 목적을 밝혀보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가 주도한 사회운동의 내용과 관련 인물을 통해 김문준이 재일제주인 사회와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내용

김문준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在日朝鮮人史, 濟州 地域史, 日本勞働運動史에서 이루어졌다. 김문준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다시 나누어 보면, 생애와 오사카에서의 활동, 오사카 사회운동과 제주사회와의 관련성, 김문준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문준의 생애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지금까지의 김문준에 대한 생애 연구는 주로 略史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소략할 뿐 아니라<sup>9)</sup> 출생년도 등 사실 정보가 서로 다르고, 1927년 이후 오사카에서 한 활동을 위주로 한 연구가 많았다.<sup>10)</sup> 즉 그가 渡日하기 전의 행적을 다룬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渡日 이전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오사카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이다. 김문준과 관련된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오사카에서 활동은 다시 노동단체활동, 동아동향조합운동, 『민중시보』 발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9) 文國柱 編, 『朝鮮社會運動史事典』, 社會評論社, 1981, 518-519쪽; 高峻石 著, 김영철 역,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공동체, 1989, 69쪽; 金玟奎, 『朝天邑誌』, 제주문화사, 1991, 179쪽; 강만길·성대경,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70쪽; 이준식, 앞의 논문, 2002, 22-23쪽; 김찬흡, 『제주 항일인사실기』, 북제주문화원, 2005, 211-212쪽; 김리나, 「1920~30년대 제주도출신 재일조선인의 오사카 정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1-64쪽.

10) 김문준에 출생년도에 대해서 文國柱와 고준석은 1853년 출생이라 했다. 渡日에 대해서는 고준석은 김문준이 1924년에 독일했다고 했고, 김민규는 1925년 밀항했다고 했다. 이를 이은 김창후는 1924~1927년 독일로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김문준의 「판결문」 기록에 따라 1894년생, 1927년 渡日을 따르기로 한다.

김문준의 노동단체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진 것은 단체 내의 노선갈등과 관련된 연구이다. 고준석은 재일조선노총 해소와 전협 가맹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김문준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공산주의자였던 김문준이 재일조선노총의 해소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민족해방투쟁 방기에는 반대했음을 밝혔다. 이것으로 인해 전협 가맹에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아 ‘타락한 간부’로 몰린 것은 오사카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조선인 노동운동에도 큰 손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sup>11)</sup> 카네무라 조사쿠[金森襄作]는 재일조선노총 내 분파적 노선 갈등이었던 ‘大阪事件’을 다룰 때는 내부 모순에 대한 사실 검토가 필요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sup>12)</sup> 김문준이 1930년에 일본공산당에 가입하고 전협화학 오사카지부에 가맹했음에도 그에 대해 서술할 때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sup>13)</sup> 이상의 연구에서는 그의 사회주의적 혹은 공산주의적 성격보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문준의 활동의 성격이 경제적 계급투쟁보다 민족항일투쟁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활동의 성격이 민족주의적이라고 도출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그가 쓴 글과 활동,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활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김인덕은 당시 국내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김문준을 재일조선노총운동의 흐름 속에서 오사카지역의 재일조선인 운동가로 부각시켰다.<sup>14)</sup> 또한 김문준이 오사카 조선노조 일월회계와 가까운 송장복, 김달환 등 주요 간부들과는 다른 ‘반간부파’라는 점과 3차 대회 이후 재일조선노총의 민족통일전선적 특징을 강조했다. 이후 1930년대 김문준, 조몽구가 중심이 되었던 오사카 전협의 노동쟁의 등의 활동에 대해 주목하면서 일본인과 연계한 민족항일적 성격을 강조하였다.<sup>15)</sup> 그러나 오사카조선노동조합 내 파벌싸움이었던 ‘오사카(제명)사건’과, 재일노총이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로 이행하는 과정은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김문준이 주로 활동한 오사카사회 내부에서의 활동은 잘 제시되지 않았다.

11) 高峻石, 『在日朝鮮人革命運動史』, 柘植書房, 1985.

12) 金森襄作, 「在日朝鮮勞總 「大阪事件」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제20호, 재일조선인운동사 연구회, 1990.

13)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大阪社會勞働運動史』 戰前篇·下 第2卷, 大阪社會運動協會, 1989, 1367-1373쪽.

14)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5) 김인덕, 「1930년대 진보적 일본노동운동과 재일조선인 국제연대」, 『史林』 Vol.29, 수선사학회, 2008.

정혜경은 이 점을 보완하여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 중에서 김문준의 오사카 활동을 가장 자세히 다루었다. 1927년~1930년, 김문준의 오사카조선노조 활동과 전협 가맹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김문준의 지도자적 역량과 제일제주인과의 관련성, 야학과 무산자 진료소, 동아통항조합 운동 관여와 관련된 전반적 활동을 검토하였다.<sup>16)</sup> 또한 1930년 이후 오사카 지역의 협동조합활동 연구를 통해 동아통항조합이나 무산자진료소 등의 소비조합운동에도 주목했다.<sup>17)</sup> 이들 소비조합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사회주의운동이나 민족운동을 전개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김문준의 오사카활동 이전 교육운동 내용과 渡日배경 및 운동형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또한 김문준의 ‘서울파’ 논란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 청년운동의 성격과 연관 지어 김문준의 활동을 ‘서울파’ 활동과 관련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는 기존 연구들이 사회주의자가 민중을 지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데올로기 단체에만 집중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자주적이며 자연발생적인 조직으로 在오사카제주인 공동체를 주목했다.<sup>18)</sup>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지만 자연발생적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구성원들의 사회인식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는 1920년대 후반 노동단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성장한 구성원들이 1930년대 조합운동에서 리더 계층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김문준의 노동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운동과, 在오사카제주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항일운동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하여 주요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김문준의 지도자적 역할과 그와 함께한 在오사카제주인 활동가들의 활동내용을 통해 자발적 운동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 것이다.

동아통항조합운동과 관련한 연구의 대표적 쟁점은 김문준의 개입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와 동아통항조합운동 성격변화에 대한 해석 및 판단으로 나누어진다.

16) 정혜경, 『일제시대 제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17) 정혜경, 「1930년대 초기 오사카(大阪)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1.

18) 外村大, 김인덕 역, 『제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김문준의 동아통항조합운동 관련 정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되었을 1930년 초반에 김문준은 전협 가맹 문제로 인해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고, 같은 해 8월에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석과 정혜경은 김문준이 동아통항조합운동을 직접 주도해, 김달준 등에게 운영권을 인계한 이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는 입장을 취했다.<sup>19)</sup> 반면 김창후는 김문준이 동아통항조합 결성을 주도했을 뿐 전협 일에만 몰두해 동아통항조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sup>20)</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아통항조합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김문준과 1920년대 후반 오사카조선노조와 신간회 활동으로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김문준이 조합운동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1932년 동아통항조합의 성격 전환에 대한 평가로 카네무라는 ‘동아통항조합 3회 정기대회’ 이후 전협의 새로운 활동가를 낳는 요람이자 조선인의 극좌운동의 기반이라고 했다.<sup>21)</sup> 동아통항조합의 좌경화된 노선 변화에 대해 박경식과 강재언은 제주도민의 생활·경제적 요구를 무시한 ‘정치지상주의’적 운영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22)</sup> 하지만 김창후는 노선의 강화가 치안당국의 탄압을 초래하긴 했으나 민족해방운동을 지향함으로써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대중들의 항일의식 강화에 도움이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3)</sup> 분명히 동아통항조합 내에서도 원래의 소비조합 형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항일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양쪽의 관점으로 동아통항조합운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민중시보』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 타니아이 카요코[谷合佳代子]는 1930년대 『민중시보』의 성격을 민족 통일적이라 평가했고<sup>24)</sup> 도노무라는 『민중시보』 관계자들의 경력과 ‘京阪神 조선인문제 좌담회’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력을 비교·분석하였다.<sup>25)</sup> 이것으로 『민중시보』에 참여한 오사카 조선인 지도자들이 ‘재일조

19) 高峻石, 앞의 책, 1985; 정혜경, 앞의 논문, 2001, 97쪽.

20) 김창후, 「재일제주인과 동아통항조합운동」, 『濟州島史研究』 Vol.4, 濟州島史研究會, 1995.

21)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535-1536쪽.

22) 朴慶植, 『在日朝鮮人-私の青春』, 三一書房, 1981; 강재언, 「제주도와 대판 -大阪에서의 동아통항조합과 노동운동-」, 『濟州島研究』 제13집, 제주도연구회, 1996.

23) 김창후, 앞의 논문, 1995.

24) 谷合佳代子, 「一九三〇年代在阪朝鮮人労働者のたたかい」, 『在日朝鮮人史研究』 제15호,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1985.

선노총 및 신간회—조선인 소비조합—『민중시보』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지도자들의 중심에 김문준이 있었기에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오사카 사회운동과 제주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는 동아통항조합과 제주 사회운동가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정도이다. 후지나가 타케시[藤永壯]는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과 청년 사회운동가인 강창보와 동아통항조합의 김달준의 관계성을 제시하였다.<sup>26)</sup> 제주 항일운동사 연구에서는 제주인들의 일본—제주 교류로 인한 영향을 크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하는 경향이 많다.<sup>27)</sup> 하지만 정작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의 사회운동과 제주도내 사회운동과의 관련성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김문준과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해방 후의 행적을 살펴 궁극적으로 김문준의 영향력이 전개되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련성 연구의 포문을 김문준의 ‘서울파’ 관련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열려고 한다. 사상검사 미키[三木今二]가 김문준을 ‘서울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정혜경은 김문준과 ‘서울파’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며,<sup>28)</sup> 제주지역 청년운동이 ‘서울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정도이다.<sup>29)</sup> 그러므로 김문준과 ‘서울청년회’ 또는 ‘서울파’와의 관련성 검토는 김문준의 활동이 제주지역 청년운동에 끼친 영향 여부까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김문준의 운동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 박경식은 1925년 이후 김문준의 지도적 역할로 인해 재일조선인 운동에서 공산주의자의 역할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sup>30)</sup> 또한 와타나베 토오루[渡部徹] 등이 편찬한 『오사카사회노동운동사』에서는 김문준이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지 않

25) 外村大저, 김인덕 역, 앞의 책, 2010.

26) 藤永壯,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4.3장정』, 제주4.3연구소, 1990, 81-117쪽.

27)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342쪽.

28) 정혜경, 앞의 책, 국학자료원, 2001, 252쪽.

29) 박찬식, 「일제하 제주지역의 청년운동」, 『濟州島史研究』 제4집, 濟州島史研究會, 1995; 염인호 (b),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97쪽.

30) 朴慶植, 앞의 책, 1981, 165쪽.



은 민족과 운동가라고 판단하였다.<sup>31)</sup> 이 두 연구는 김문준이 공산주의자이지만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오사카조선노조의 각 지부가 독립적이었다는 사실은 김문준이 초기에 在오사카제주인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했음을 시사한다.<sup>32)</sup>

고준석은 김문준을 민족의식이 강한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하였으며<sup>33)</sup> 김인덕은 김문준이 파벌주의자로 공격을 받은 이유는 단지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관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그의 활동에 파벌적 성격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sup>34)</sup> 한편 김창후는 김문준이 1929년 대공황기를 거치며 계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35)</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문준이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것은 제주에 있을 때부터였다고 파악하였다. 정혜경은 김문준을 ‘조선인 민족운동가’로 평가하고 있으며<sup>36)</sup> 이준식은 그가 關西지방 조선인 민족 운동자였지만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분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였다.<sup>37)</sup> 이러한 연구성과는 김문준의 활동이 서울과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그의 활동목적이 민족항일에 있었음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김문준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논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과 더불어 지금까지 인용되지 않았던 『수원농림학교 교우회 회보』<sup>38)</sup>의 글을 통해 그의 근대학문 수학기의 사회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민중시보』의 기고문을 통해 민족항일운동의 배경과 운동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와 교유했던 이들을 확인하여 제주사회에 끼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67-1368쪽.

32) 본고에서 在日濟州人과 在大阪濟州人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 특히 오사카를 강조할 경우에는 在오사카濟州人 용어를 사용하겠다. 그 이유는 1920년대 정기항로 설치를 시작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많은 제주인들이 오사카에 정착하여 東成區, 生野區 등지에서 조선인촌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33) 高峻石, 앞의 책, 1989, 69쪽.

34) 김인덕, 앞의 책, 1996, 290-291쪽.

35)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 과제 -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제6집, 濟州島史研究會, 1996, 147-148쪽.

36) 정혜경, 앞의 책, 2001, 90쪽.

37) 이준식, 앞의 논문, 2002, 23쪽.

38) 김만형(1936년~, 김문준의 6촌 형의 손자) 제공 자료; 구하기 어려운 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지면으로나마 감사사를 드린다.

이에 따라 II장에서는 김문준이 근대학문을 수학했던 제주지역 학교들의 성격과 수원농림학교의 정책, 교육과정을 통해 그가 당시 가졌던 사회인식을 살펴보겠다. 특히 그가 성장한 지역공동체와 학교의 영향으로 계몽사상과 농업을 중시하는 인식이 생겼음을 확인해 보겠다. 또한 1920년대 이후 김문준이 제주에서 교육운동에 전념한 계기를 살펴보고, 당시 제주의 교육운동이 제주지역 소년, 청년들에게 끼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오사카에서의 김문준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그가 노동운동을 위해 渡日한 배경을 개인적 차원과 서울과 공산주의 그룹과의 연관성을 통해 정황이나마 유추해 보겠다. 특히 그가 渡日 후 쓴 詩에서 그의 渡日 목적을 검토하여 그의 활동이 민족항일정신에 근간을 두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재일조선노총 산하 오사카조선노조의 운영 실태와 김문준의 활동을 정리하여 활동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아보겠다. 아울러 在오사카 제주인노동자가 주로 가입했던 고무공조합의 운동 역량과 재일조선노총이 일본공산당 산하 전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舌戰의 분석을 통해 김문준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다.

IV장에서는 『민중시보』로 확인되는 언론운동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민중시보』를 분석하여 발간 주체와 내용 특징 및 신문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김문준의 각종 활동이나 생애에서 맺어진 관련인물의 활동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제주 사회 운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는 제주사회 지식인의 일제강점기 민족항일운동의 일면을 김문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피는데 있다. 김문준의 민족항일의식이 3·1운동을 통해 성숙해지고, 교육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바뀌는 운동 방향의 변화는 당대 지식인이 보여주는 항일운동의 한 유형이었다. 나아가 그의 오사카 사회운동에 대한 성격을 검토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제주 사회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4.3사건의 배경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II. 근대학문 수학과 교육운동

### 1. 제주에서 근대학문 수학

金文準은 1894년(고종 31) 2월 10일 父 金重珍과 母 李愛鄉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sup>39)</sup> 소상인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 김문담, 김문원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sup>40)</sup>

그가 성장한 신좌면 조천리는 출륙금지령 시기에 육지로 오가는 두 개의 항구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조천지역 유림들은 유배 온 인사들과 교유하며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면암 최익현의 학풍은 조천 지역 김해김씨 일족인 김희정을 거쳐 김시우로 이어졌다. 김시우는 이후 유배 온 개화파 인사였던 운양 김윤식, 금릉위 박영효 등의 영향으로<sup>41)</sup>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 결과 조천마을에는 근대교육 학교들이 만들어졌고, 영향을 받은 청년들은 육지와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김문준의 생애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시기는 1908년부터 1912년까지 김문준이 의흥학교와 의신학교 및 제주공립농림학교를 통해 제주에서 근대 학문을 접했던 시기이다. 이때 김문준은 김명식, 고순흙 등의 친구들과 교유했고, 조천지역 유림들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

2시기는 김문준이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원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농림 학교(이하 수원농림학교)에 입학한 1912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까지로 그의 나이 19세부터 26세까지이다. 이 시기에 그의 고향 친구인 김명식<sup>42)</sup>은 와세

39) 『金海金氏 監務公派 世譜 乙 卷4』, 543쪽; 족보에는 이름이 文炫, 字가 文準으로 표기되어 있다. 김문준의 조부는 金亨吉로 향교장의를 역임했다.

40) 김명식, 「목우군을 고향」, 『민중시보』 1936년 6월 21일자;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6, 348쪽.

41) 김윤식은 한말의 개화사상가로 명성황후 시해 음모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종신 유배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제주도에 1897년부터 1901년 6월까지 거주했다. 박영효는 고종의 강제 양위시키려는 것을 반대했다. 고종 양위에 찬성한 대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어 1907년부터 1910년 6월까지 제주에 머물렀다(양진건·강동호, 「제주 근대 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4, 58-60쪽).

42) 金明植(1891~1943)은 일찍이 동경에 유학하였고 서울에서 언론계에 투신하여 정치평론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또 굳건한 항일투사였다. 그는 新生活社 筆禍事件으로 일제의 모진 고문을 받아 불구가 되었고 수 년 간의 일본생활의 여독으로 고생하다가 고향에서 사망하였다(김태능, 『濟州 島史論攷』, 경인문화사, 2014, 68쪽).

다 대학에 유학하며 조선유학생학우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고순흠 역시 대한독립단 활동 등의 항일운동을 시작하였다.<sup>43)</sup> 김문준이 수원농림학교 시기에 남긴 글에서는 친구들과 같은 항일의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제주로 귀향한 후, 1919년 제주에서 조천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3·1운동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이때부터 그의 항일정신이 공고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3시기는 27세였던 그가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사를 그만두는 1920년부터 오사카로 건너가는 1927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때 그는 개량서당 및 사립학교 설립운동에 매진하였다. 한정된 자유였지만 1920년 이후 총독부의 문화통치 아래 제주에서는 민립대학설립운동과 사립학교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김문준의 친구인 김명식과 고순흠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 설립에는 고순흠, 김명식 외에도 김문준의 수원농림학교 선배이자 제주공립농림학교 은사였던 홍순녕도 함께 하였다. 1921년 김명식은 서울청년회를 결성하였고, 1922년 최초 사회주의자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4시기는 1927년 34세부터 그가 사망한 1936년 43세까지로 그의 오사카 활동시기이다. 오사카에서 오사카조선노조, 전협 활동 등 노동단체활동을 주로 했으며 이 외에도 동아통항조합 등과 같은 소비조합 조직, 『민중시보』 발행 등의 언론 활동을 하였다. 이상의 시기구분을 중심으로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sup>44)</sup>

김문준은 19세에 제주농림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제주지역에서 근대학문을 접했다. 그는 비록 가정형편이 어렵긴 하였으나 제주도 내에서도 조천이라는 지역적 영향으로 일찍이 근대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906년 13세에 韓南極(또는 韓錫俸)<sup>45)</sup>이 설립한

43) 김문준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이 학교 출신 송산(솔피) 김명식, 죽암 고순흠 및 매원 홍두표는 동년배로 19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목도하고, 「天地爲誓 日月爲證(하늘과 땅에 맹세하노니 저 해와 달은 증명하리라)」라고 혈서를 써서 「송매죽」이라는 호처럼 절개를 끝까지 지켜 학력을 쌓은 후 조국의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로 맹세했다고 한다(김찬흠, 앞의 책, 2005, 530쪽).

44) 김문준 연보는 <부록1>을 참조하기 바란다.

45) 『대한협회회보』 제7호, 1908년 10월 25일자, 59쪽-60쪽에 의흥학교 설립자가 한남극으로 표기되어 있고 김찬흠, 『제주교육사』, 1999, 199쪽, 207-208쪽; 윤원구, '사립제주의신학교비 기본금 연의 문'에 따르면 한석봉이라고 되어 있다. 그는 의흥학교와 의신학교 설립 모두에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의흥학교(조천리 연북정)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sup>46)</sup> 『의흥학교설립취지문』에 따르면 이 학교가 열강의 침략에서 자유를 회복할 방법으로 교육을 생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7)</sup> 이 학교는 2년제 보통학교로 주로 한문·일본어·근대어업기술 등의 교과를 가르쳤다. 특히 비싼 비용을 들여 추자도에 있던 유명한 교사를 초빙할 정도로 일본어 교육에 열심이였다.<sup>48)</sup>

의흥학교가 경비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자 조천대한협회지회 회원인 김후식, 송중효, 김홍배, 김두식 네 사람이 주민들과 함께 매월 기부금을 내어 경비를 부담하면서 유지시켜 나갔다.<sup>49)</sup>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은 『대한협회회보』에도 잘 드러난다. 의흥학교가 운영난을 겪자 조천지역 지식인들은 토론회를 통해 유지 방안을 고심할 정도였다.<sup>50)</sup> 김문준은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근대 교육에 대한 열정 속에서 성장하였고, 초등교육부터 진전된 교육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의흥학교를 마친 김문준은 1908년 4월 제주 군수 尹元求와 제주 군민들이 의연금을 모아 창설한 제주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의신학교에 들어갔다. 의신학교는 1907년 4월 城內 경신재에 설립된 제주 최초 중등교육기관이었다. 1906년 제주군수로 부임한 윤원구와 유배와 있던 금릉위 박영효가 중심이 되어 고을 인사들과 협의하고 제주군민들이 의연금을 모아 창설되었다. 당시 군수였던 윤원구가 교장을 맡고, 사범학교 교원을 초빙해 운영하였다. 설립 반년 만에 학생들이 100여명에 이르렀다.<sup>51)</sup> 설립 기본금은 제주군 5개면 88개리에서 1,230만 3,000원을 마련하였고, 지역의 독지가들도 각출하였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자세하지 않으나 학교 설립 및 운영비에 기부한 夫正奎·宋斗玉·張容堅·韓錫俸 등이 당시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몽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민족주

46) 김명식, 「목우군을 곡함」, 『민중시보』 1936년 6월 21일자; 제주도, 앞의 책, 1996, 348쪽.

47) 「濟州郡新左面朝天里私立義興普通學校趣旨書」,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9일자.

48) 김찬흡, 앞의 책, 1999, 207-208쪽.

49) 「의교완전」,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6일자.

50) 『대한협회회보』 제7호, 1908년 10월 25일자, 59쪽-60쪽; 김항구, 『大韓協會(1907~1910)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18쪽에는 대한협회지회에서 각종 교육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교육기관을 후원하거나 재건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의흥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찬흡, 앞의 책, 2005와 김명식, 앞의 기사(『민중시보』 1936년 6월 21일자)에서는 민족항일운동가인 김명식, 고순흡 등이 동시기에 의흥학교를 다니면서 교유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조천이라는 지역적 배경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51) 「義校有望」,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4일자.



의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의신학교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취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을사조약으로 일제의 간섭이 노골화 되자 계몽운동을 통해 구국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2)</sup>

하지만 의신학교는 곧 조선총독부의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으로 인해 1910년 5월 2일 개교한 공립제주농림학교에 재편되었다.<sup>53)</sup> 의신학교에서 이름난 교사 조병채<sup>54)</sup>와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한 洪淳寧이 공립제주농림학교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다음 순차로 사립의신학교의 보통과 학생은 3년제인 공립제주농림학교의 제1학년에, 고등과 학생은 제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하지만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상실하면서 이 학교도 일제에 의해 장악되었다. 1912년 3월에 2회 졸업생은 총 15명이었고, 이중 4명이 조천리 출신으로 김문준과 고순흠이 이에 해당하였다.<sup>55)</sup> 조천리 출신 졸업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조천 지역의 근대교육에 대한 열망을 잘 드러내고 있음도 특이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조천의 지식인들이 근대 교육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주 유림들의 애국계몽운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한자강회 때부터 지회 조직을 주도하였고,<sup>56)</sup> 후신인 대한협회 지회 활동에도 앞장섰다.<sup>57)</sup> 1908년부터 제주지역 대한협회 정기통상회는 총 5회로 전국에서 중앙지회, 대구지회(8회) 다음으로 많았다.<sup>58)</sup> 이러한 사례는 제주지역 지식인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김문준이 조천 지식인을 통해 계몽사상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52) 「私立濟州義信學校費 基本金 損義文」; 김찬흠, 앞의 책, 1999, 195-200쪽.

53) 「改稱承認」, 『황성신문』 1909년 12월 22일자.

54) 「曹氏熱心」,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27일자.

55) 김찬흠, 앞의 책, 1999, 194쪽; 처음 제주공립농림학교 개교 당시 1, 2회 재학생이 68명이었으나 1911년 1회 10명, 1912년 2회는 15명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도탈락자가 43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제주지역 전체적으로는 근대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회 졸업생 14명 중 조천 출신은 고순흠, 이근창, 이성호, 김문준이었다.

56) 「本會評議員 鄭鎬冕氏가 濟州支會視察次로 出發호엿더라」,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 1907년 7월 15일자.

57) 「濟州支會 請願에 對호야 視察은 停止호고 總會에 經認호기로 議決호다」,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25일자, 44쪽.

58) 성주현, 「대한협회의 민권의식과 근대 민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67쪽; 통상회 연설 내용은 교육보급(김희식, 1908. 6.13.), 식산개발(송문옥, 1908.6.13.), 국민의전도如何(김시학, 1908.11.14.), 계급정부는 국민의 仇敵(김희식, 1908.12.12.), 團體而心不團이면 의무는 불가(전군익, 1908.12.28.), 본회의 유지방침(안길상, 1909.2.7.), 교육의 보급(전공익, 1909.2.7.), 단체의 효력(부유근, 1909.2.7.), 改舊從新(강석빈, 1909.2.7.)이었다.

있다. 그는 15세에 친구였던 김명식과 함께 『대한협회회보』 회원이 되었다. 당시 대한협회 제주지회장이 김명식의 친척인 김희주였던 것으로 보아 그가 김명식 집안의 영향으로 동참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sup>59)</sup> 김문준, 김명식 외에도 일제강점기 제주의 대표적 운동가인 고순흠<sup>60)</sup>이 조천 출신이라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sup>61)</sup>

요컨대 제주에서 근대교육의 활성화와 제주 유림의 애국계몽적 활동 분위기는 김문준이 전통적 鑑戒主義 시각에서 벗어나 근대교육의 문명적 시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수원농림학교 진학과 수학내용

김문준은 1912년 3월에 제주공립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학교’(이하 수원농림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갔다. 1910년의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입학지원자는 3월에 입학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학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25세 이하로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家事에 관계가 없는 자였다. 입학시험 과목은 일본어, 수학, 한문 세 과목과 신체검사였다.<sup>62)</sup> <그림 1>은 수원농림학교의 입학시험성적 결과 공지 내용이다.

59) 『대한협회회보』 제4호, 1908년 7월 25일자, 69쪽.

60) 김명식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제5호, 제주4.3연구소, 2005;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김동운, 「송산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 『한국문학논총』 제63집, 2013을 참고바람. 고순흠에 대한 연구는 김찬흡,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 『교육제주』 58-65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88; 박애림, 「조선노동공제회의 활동과 이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를 참고바람.

61) 허호준, 「한국인의 숨결 그 삶과 뿌리를 찾아 복제주 조천(12)」(『한겨레신문』, 1993년 1월 13일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1130028912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1-13&officeId=00028&pageNo=21&printNo=1447&publishType=00010>); 7백 여 가구 2천 5백 여 명의 주민 가운데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 등으로 구속된 사람만도 72명으로 이 수치는 제주도 각 마을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한다.

62) 「農林學校學員募集廣告」, 『황성신문』 1910년 3월 9일자; 「입학할 시기. 배움의 인도」, 『매일신보』 1915년 3월 10일자.

<p>○ 調査及報告</p> <p>○ 農林學校入學試驗成績          及二日兩入學試驗施行ノ志願者總數五百七十八名ニシテ左記四十名合格シ</p> <p>朝鮮總督府農林學校ニ於テ本年四月一日</p> <p>朴姜在 南金九 姜龍運          姜性明 宮永九 龍德運          杜翼生 羅默能 求白雲          洪姜趙 鄭權車 崔南雲          在圭永 鎬勉化 南雲          鎬元熙 英洙善 翼翼          金成柳 崔李白金 朴          南基根 顯明 琮文 東          容聖龍 榮復 學準 翼          高金南 李方朴 許李          佛宅昌 義熙 應          源洙 祐 祐 春 燮 燮 永          嚴金李李李 金部 申          章貞圭 軒 相 容 源 燮          煥 植 榮 求 康 基 基 燮</p>	<p>○ 조사 및 보고-학사</p> <p>농림학교입학시험성적_조선총독부농림학교에서 올해 4월 1일, 2일 이틀간 입학시험이 시행되어, 지원자 총수 578명에서 좌측에 기록한 40명 합격시킴.</p> <p>崔德運, 白南雲, 朴東翼, 朴彪永, 申旻湜, 姜龍求, 崔商翼,  <b>金文準</b>, 許墻, 鄭灝基, 金九鉉, 車化善, 白琮準, 朴震壁, 金容庠,          金永默, 權勉洙, 李明馥, 方熙春, 李相來, 南宮稷, 鄭鎬英, 崔顯榮,          李載喆, 李軒求, 姜性翼, 姜圭元, 咸基燮, 金宅洙, 金貞植,          朴基柱, 洪在鎬, 金南容, 高悌源, 嚴章煥.</p>
---	--

< 그림1 > 농림학교 입학시험 성적<sup>63)</sup>

김문준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수원농림학교의 학비 지원제도로 유학할 수 있었다. 수업료는 무료였으며, 연도 별로 조금의 변동은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대략 5원을 주어 기숙사비, 제복비, 실습복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sup>64)</sup> 졸업생들은 이러한 학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해당 기간의 2배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했다.<sup>65)</sup> 대개는 졸업 후 文官任用令에 따라 총독부 산하의 각급 관청에 취직하거나 교원으로 부임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반대로 생각하면 무료교육과 취업보장이라는 조건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sup>66)</sup> 김문준이 입학시험을 보았던 1912년은 14.5 : 1의 경쟁률로 응시자 중 7%만이 합격할 수 있었다. <그림1>에서와 같이 ‘입학시험 성적’을 보면 김문준이 상위 성적으로 입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농림학교는 본래 1904년 대한제국 고종 때 근대적 농사기술을 도입하고자 만들었던 농상공학교와 농업시험장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06년 대한제국이 통감부 관제 하에 들어가면서 6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개설하고 같은 해 8월 27일 대한제국 칙령 16호(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 관제)로 工科가 경

63)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5월 9일자, 508호, 휘보 「조사 및 보고」  
 64) 구자욱, 「서둔별의 근대농학 교육과 과학기술 전개」,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10, 103쪽, 108-109쪽.  
 65) 農商工部令 第2號 官報 1909년 6월 3일자.  
 66) 1914년부터 수원농림학교는 입학지원자가 많아지자 전답 2정보 이상을 소유한 집안 자제라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다(『매일신보』 1915년 3월 10일자). 하지만 학비지원은 1915년 입학자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수혜학생이 될 수 있던 1915년에는 40명 모집에 602명이나 지원하였다(구자욱, 앞의 논문, 2010, 108쪽).



성공업전수학교로 분리되면서 ‘농림학교’가 만들어졌다.

이 학교는 농촌에서 당장 요구되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1906년 10월부터 학생을 모집하였다. 1908년부터는 혼다 고노스케[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이 교장을 겸임하였다. 혼다 교장 하의 수원농림학교는 1909년 6월 농림학교 규칙을 개정해 기존 본과 수업연한 2년이던 것을 3년으로 늘리고 주당 수업시수도 늘렸다. 1910년 강점한 후 1911년에는 농림학교를 ‘朝鮮總督府 農林學校’로 개칭하였다. <표1>은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본과 교육과정 내용이다. 김문준이 다녔던 시기와 교육과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이를 통해 그의 수학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표1 >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본과 교과과정(1910년)<sup>67)</sup>

학년 과목	주당 시간	1학년	주당 시간	2학년	주당 시간	3학년
수 신	1	인륜도덕	1	인륜도덕	1	인륜도덕
국 어	6	독서 작문 회화 서취	6	독서 작문 회화 서취	5	독서 작문 회화 서취
수 학	3	수학	-	-	-	-
이 과	2	물리 화학	1	무상	-	-
박 물	3	동물 식물 광물	1	인체생리	-	-
도양학	2	도양학	-	-	-	-
토지개량학	-	-	1	토지 개량론	-	-
비료학	-	-	2	비료학	1	비료학
도구론	3	농구론	-	-	-	-
작물론	3	보통 작물론	3	원예작물론	2	공예작물론
축산학	-	-	1	축산학	2	-
잠사학	1	잠체해부 및 생리 사육법	1	사육법 잠체병리 제종법	1	
농산구조학			-		2	
작물병충학	1		2		2	
입학통론	1	작물해충학	-			
삼림생산학	2	입학통론	4		1	조림학
		조림학 보호학		조림학 이용학 임산제조학		
삼림경영학	-				3	측수학 경리학 임 가산법
수의학대의	-		2			
측 량	-		2	수의학대의 측량	3	수의학대의 측량
경제법규	-		-		2	경제 및 법규
계	26		27		25	
실습		부정시		부정시		부정시

수원농림학교에서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업기술 지도자와 지주제의 모순이 가져오는 농촌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몽지도자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인 교수들은 이론보다는 기술과 실습 위주의 응용농학 교육을 중시하였고 일제의 침략적 농업정책과 일본자본의 농업에의 진출 등이 조선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입시켰다. 또한 수신과목을 통해 농촌의 모범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온건사상’과 ‘도덕함양’ 등을 강조하였다.<sup>68)</sup> 김문준이 학교에 입학한 1912년의 학교의 상황은 <표2>와 같다.

< 표2 > 1912년 연말 현재 朝鮮總督府農林學校 狀況<sup>69)</sup>

수업연한		3年	
학급		3	
교원	韓人	3	計 12
	日人	9	
경비		21,135圓	
생도		101	
입학자		40	
졸업자		24	
중퇴자		6	

1912년은 전교생 101명으로 당시 학생들은 모두 조선인이었고, 전원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sup>70)</sup> 김문준은 수원농림학교 입학 전 김규종과 혼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딸 숙희가 1913년 즈음에 태어났기에<sup>71)</sup> 그가 농림학교 재학 당시 제주도에 홀어머니와 妻子를 남겨두고 수원에서 유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은 채 학업을 계속해 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김명식이 남긴 일화가 있다.

원래 빈한한 사람의 일이라 농림학교는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군의 心緒는 심히 울적하였다. 어느 날 군의 가정에 불평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67) 구자욱, 앞의 논문, 2010, 107-108쪽, <표3>을 인용하였다.

68)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8-39쪽.

6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2년 12월 31일자.

70) 1918년부터는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어 일본인과의 공학제로 바뀌었다(구자욱, 앞의 논문, 2010, 109쪽).

71) 『동아일보』 1931년 4월 2일자에 의하면 ‘그의 사랑하는 딸 숙희라고 하는 방년 19세의 여투사가 있어서…’라는 글이 있다. 이것으로 농림학교 재학 시 妻 김규종과의 사이에 1913년에 큰 딸 숙희가 태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군을 끌고 나와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다른 문제로 말하면 ‘有子七人 莫慰其母’라는 고시도 있으니 너무 상심치 말라고 서로 붙잡고 온 일이 있다.<sup>72)</sup>

하지만 김문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1915년 3월 27일 8회로 졸업할 수 있었다.

이제 김문준이 쓴 『校友會會報』 글을 통해 그의 학창시절 사회인식을 살펴보고 싶다. 『교우회회보』 1914년에 게재된 그의 글은 ‘농부가’, 1915년에는 ‘개교 기념 10주년 축하 글’<sup>73)</sup>, ‘개교 10년 기념일에 있어서의 회고’<sup>74)</sup>와 ‘吊故校友七首’<sup>75)</sup>로 총4편의 글이 있다.

먼저 1914년에 쓴 ‘농부가’를 살펴보자.<sup>76)</sup> 이 글에서는 수원농림학교 재학 당시 그의 사회인식과 농업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그가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해 지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 아닌가.

(5수) 신농씨 후 반만년에 제2 신농 이 몸일세.

(10수) 나라를 지킴에도 농부를 필요로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함에도 필요로 하며 여러 가지 상공업자들 농부에 의뢰함이 태산 같고.

72) 김명식, 「목우군을 곡함」, 『민중시보』 1936년 6월 21일자; 제주도, 앞의 책, 1996, 348쪽 <전문>에서 발췌하였다.

73) 김문준, 「祝十週年開校記念」,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八號, 1915, 165-166쪽.

74) 김문준·박기주·유근용, 「開校十年紀念日に於ける回顧」,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八號, 1915, 44-46쪽; 김만형(1936~ )이 제공해 주신 『교우회회보』에 본 글이 실렸다. 다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대강의 내용만 알 수 있다.

75) 김문준, 「吊故校友七首」,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八號, 1915, 168쪽; 全文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76) 김문준, 「농부가(대정3년 11월 20일 稿)」,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七號, 1914년 12월, 141-144쪽; ‘농부가’는 1914년 김문준이 쓴 글로 교우회보 3쪽에 걸친 10수의 시가이다. 서문은 농부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日文으로 되어있다. 본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1수부터 5수까지는 계절별 농업의 일을, 6수부터 10수까지는 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全文은 <부록2>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귀들에서 부국의 책임이 농업에 있음을 강조하며, 여타 상공업자들도 농업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과 수원농림학교 학생들을 제2신농이라고 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그는 1910년대 총독부가 추진했던 농사개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문) 이주농부의 모내기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맑고 정제된 것이 실로 일종의 말할 수 없는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반도농부의 노래는 순진무구한 기분이 들어서 듣기에 정말 호감을 떠오르게 하였다.

(7수)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당국의 장려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따라가며 힘써 열심히 수확하는 이주동포를 모범삼아 아울러 나아가고

(8수) 홍수와 가뭄 예방에는 삼림수리가 제일이요. 양전옥토로 생산을 증대하는데에는 관개시비가 급선무이며, 개량종을 보급하면 일은 반은 줄고 공은 배로 늘어 결과가 많고, 작업을 빠르게 나아가는 데에는 개량한 농기구를 이용하며

총독부 당국은 1910년 경술국치 직후부터 지주들과 손을 잡고 농사개량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한국 농촌을 식량·원료 공급지로 개발시키고자 함이었다.<sup>77)</sup> 김문준의 이러한 글은 당시 총독부의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1910년대를 과도기이자 기회의 시기로 생각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구절에서는 그가 교통의 발달이 한반도 농산물의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1수) 발달하는 과도시대 앞길이 영원이 펼쳐지는 것이 반갑도다. 10대 항구 5대 철도 교통기관 발달하니 13도 부의 원천에서 생산된 것들, 수출과 수입이 아주 편리해졌네.

(9수) 시베리아의 저 철도와 유럽과 미국을 오고 가는 저 상선은 반도농부가 생산한 것을 가득 싣고 수출하길 기대하네.

77)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84-189쪽.

(10수) 더군다나 동반도는 수입과 수출로 통상함에 농부로서 대상을 삼고 농부로서 주인을 삼네. 이와 같은 장한 형세는 농부에게는 복음이 아니던가. 20세기 활동하는 무대에 세계적인 농부 되세.

셋째, 그는 당시 농업의 문제의 원인을 농민들을 계몽함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6수) 귀를 대고 들어보라 백성들은 모두 가난하다 말을 하네. 그 원인을 돌이켜 보면 하늘이 준 것을 따르지 않는 태만이라. 오늘날은 신천지니 악습을 씻고 농업에 힘쓰세.

(7수) 덴마크의 이상농촌을 동 반도에 옮겨오며 미국농부의 합리경영을 우리 농부 참고삼고 내지농부가 부산물 생산에 힘쓰는 것을 저와 같이 힘을 쓰고 독일산림의 무성한 경치를 우리 농부가 거울삼고 스웨덴 농부의 근면저축을 기필코 병행해 분발하여 눈 깜짝할 사이 다급한 경우에도 쉬지 말고 전진하세.

(8수) 자본이 많아지길 희망하면 절약 저축을 힘써 행하며 지식과 기술을 단련하고 학문과 실지를 조화하여

(9수) 걸만 화려한 청년들은 속히 깨어 생산 종사에 착수하고 침거하는 규방의 부인들은 악습을 고쳐 부업에 힘써 놀고먹지 말며, 북간도와 서간도에서 이동하며 농사를 짓는 농부들 일확천금 꿈을 깨어 농부 같은 농부 되세.

(6수)에서는 농민의 태만에 대해 경계하며 (7수)에서는 농민들이 다른 나라의 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수)에는 청년들과 부인들에게도 遊息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에서 학교에서 받은 교육대로 농민이 계몽되면 농업이 발달하고 농부들이 더욱 잘 살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농림학교에서는 지주층의 가혹한 농민수탈의 원인을 지주층의 ‘愛農思想’ 부족과 소작인의 나태성 때문이라고 교육시켰기 때문이었다.<sup>78)</sup>

이를 통해 그가 수원농림학교의 근대적 농업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을 중시하고, 농촌이 계몽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을 중시하는 생각은 그의 호인 ‘木牛(낭쇄)’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에는 입춘에 탐라왕이 ‘낭쇄’를 끌고 밭을 가는 시늉을 한 입춘굿이 예전부터 존재했는데, 이 때 ‘낭쇄’는 제주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성한 존재였다.<sup>79)</sup> 그가 농업의 풍년을 기원하며, 농민에 대한 애민정신을 담아 ‘木牛’라는 호를 사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80)</sup>

1915년은 농림학교로 독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본과 학생 8회가 졸업했던 해이다. 김문준은 ‘개교 10년 기념일에 있어서의 회고’<sup>81)</sup>에서 졸업생 대표로 지난 학교생활을 회상하고, ‘吊故校友七首’<sup>82)</sup>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7명의 학우에 대해 애도했다. 또한 ‘개교기념 10주년 축하 글’에서 학교의 ‘공적’을 찬사하기도 하였다.

校庭萬國國旗連 교정에는 만국기가 연달아 펄럭이고  
爲祝此日拜講筵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강석을 배풀었네.  
授業八回功漸偉 가르침을 전한지 8년에 공적은 점점 위대해지고  
環球十轉瑞長牽 지구가 열 번 돌아 상서로운 기운을 끌어 오네.  
善治紀念同今日 善治를 기념하는 것은 오늘과 같고  
大典盛儀共是年 대전에 성스러운 의식은 올해와 함께 하네.

김문준의 글들은 수원농림학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했고, 수원농림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드러난다. 이러한 글들은 학생 중 유독 김문준의 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교우회회보』에 실린 글들의 어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문준의 동

78) 방기중, 앞의 책, 1992, 39쪽.

79) 李源祚 저, 백규상 역, 『역주 탐라록』 중, 제주문화원, 2017, 69쪽, ‘입춘일에 운을 집어’

80) 김찬흡, 앞의 책, 2005, 211쪽에서는 木牛를 ‘남쇠’로 보았다. 이것은 목수의 재래식 공구로서 ‘독립’이란 문을 잘 여닫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겠다는 김문준의 열망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1910년대 김문준이 수원농림학교 재학 시 농업을 중시한 태도를 고려하면 농업과 관련해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81) 김문준·박기주·유근용, 「開校十年紀念日に於ける回顧」,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八號, 1915, 44-46쪽; 김만형(1936~ )이 제공해 주신 『교우회회보』에 본 글이 실렸다. 다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대강의 내용만 알 수 있다.

82) 김문준, 「吊故校友七首」,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八號, 1915, 168쪽; 全文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이자 이후 사회주의 경제사학자가 된 백남은 조차도 당시 글들에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지 않았다.<sup>83)</sup>

이러한 점에서 수원농림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비판 의식이 약한 상태에서 조선경제의 부흥을 부르짖었던 혼다 교장의 지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84)</sup> 또한 그들 모두가 학교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 고마움을 가졌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정책에 반하는 사회주의사상을 위험사상으로 간주해 철저히 이념교육을 했기 때문에<sup>85)</sup> 時局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있더라도 공식적인 회지인 『교우회회보』에 이를 자유로이 펼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준이 2학년인 1913년 이후부터는 졸업 후 견습 시험 합격과 1년 이상의 행정사무 견습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sup>86)</sup> 그래서 그는 1915년 3월 졸업 후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견습으로 일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87)</sup> 그가 1918년 4월부터 제주도 성읍의 정의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을 맡았다는 연구를 비추어보면 그 때까지 권업모범장에서 계속 근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3. 1920년대 제주에서의 교육운동

김문준은 1918년에 제주도로 돌아와 정의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을 맡았다.<sup>88)</sup> 하지만 수원농림학교 학비 지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인 1920년을 끝으로 그는 안정된 공립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sup>89)</sup> 1927년 오사카로 떠나기 전까지 제주도

83) 방기중, 앞의 책, 1992, 41쪽.

84) 本田幸介, 「農業教育者の責務」, 『韓國中央農會報』, 1914; 구자옥, 앞의 논문, 2010, 109쪽 재인용.

85) 방기중, 앞의 책, 1992, 40쪽.

86) 구자옥, 앞의 논문, 2010, 109쪽.

87) 수원농림학교, 「본과 제3학년생(34명)」,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 八號, 1915년, 258쪽; 그의 졸업날짜에 대해서는 같은 해 졸업생인 김태년(1894~?) 기록에서 알 수 있다(「한국근현대 인물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88) 『조선총독부 관보』 제2206호 11면, ‘조선공립보통학교부훈도-김문준’, 1919년 12월 17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직원록』, 정의 공립보통학교 1920년도, 김찬흡, 앞의 책, 2005, 211쪽; 1912년 수원농림학교 입학생들의 진로를 추적하면 각 행정구역 견습, 공립농림간이학교, 공립보통학교, 기수 및 기수보조 등이었다.

89)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1917년과 1920년의 公立普通學校敎員 1人 平均 月給은 아래 표와 같다. 조선인 교사의 월급은 일본인 교사의 절반 정도였다. 김문준이 공립학교 교직에 있을 당시 비록 직장은 안정되었지만 이미 총독부의 민족 차별적 대우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내에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독서회관, 표선 성읍학교, 사립 화북학교, 新成私塾, 구좌읍 월정사립중앙학교 등에 설립자 혹은 교사로 관여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야학, 개량서당 형식의 학교 설립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0)</sup>

김문준은 교육운동의 첫 행보를 1918년 화북학교 설립을 위한 ‘유지회’ 결성에 서부터 시작하였다. 그가 ‘유지회’ 대표를 맡아 학교운영기금을 모으고, 주민들의 자발적 후원을 유치했고,<sup>91)</sup> 1926년 4년제 사립화북학교를 설립하였다.<sup>92)</sup> 김문준은 이곳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축구부를 조직하였는데,<sup>93)</sup> 당시의 축구부 활동은 민족혼을 지키기 위한 수원농림학교 상록수운동의 일환이었다.<sup>94)</sup> 상록수 운동은 수원농림학교 조선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했던 농촌계몽운동이었다. 그들에게 ‘축구’가 상징하는 것은 운동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수원농림학교 재학생들의 인식변화처럼 김문준 역시 제주지역 3·1운동이었던 조천만세운동을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혈연·지연적 공동체 정신이 강한 제주에서 조천만세운동의 여파와 문중 친척들과 친구들의 재판과 수감생활이 김문준에게 큰 여파를 미쳤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1919년 조천만세운동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했던 김시범과 김연배가 출옥

높다.

	朝鮮人		日本人
	訓導	副訓導	訓導
1917년	21.17圓	19.48圓	53.62圓
1920년	54圓	45圓	108圓

90)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4, 46-47쪽.

91) 양진건, 앞의 논문, 2014, 46-47쪽.

92) 양진건, 앞의 논문, 2014, 45쪽; 제주시 교육청, 『제주시 교육 50년』, 제주도 제주시 교육청, 2004, 226쪽에 의하면 사립 화북학교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모아진 2,179원 84전의 기금과 강기업, 양흥기 등의 조력으로 1926년 7월에 4년 연한으로 설립되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사정에 따라 4년으로 단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3) 김문준의 화북학교 제자였던 김광추씨 아들 김석윤씨의 증언이다.

94) 수원농림학교는 3·1만세운동과 6·10만세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인 학생 중심으로 상록수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운동에서는 일제의 황민화교육에 반대한 조선학생들의 정신행동통일 방안에 ‘한인 선수만으로 구성된 축구부를 두어 한인 학생 전원이 부원이 된다.’라는 항목이 있었다. 또한 조선인 학생과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健兒團에서도 ‘축구부 이외의 운동부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밀약을 정했다. 이것으로 당시 축구부 조직과 활동은 민족혼을 지키려는 항일운동의 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구자옥, 앞의 논문, 2010, 118-119쪽).

95) 김만형(1936년~, 김문준의 6촌 형의 손자) 제공 사진, 사진 제공자에 의하면 송중현(1901~1948 독립운동가)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에 등장하는 新成私塾 1회 졸업생은 김원호,





<그림2> 新成私塾 1회 졸업기념 사진 (1925.1)<sup>95)</sup>

한 후 1920년 이후에 운영한 조천독립(독서)회관<sup>96)</sup>에서 강사로 활동했다.<sup>97)</sup> 이 회관은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곳으로, 3·1운동 이후 민족항일의식으로 고양된 청소년들이 공부하며 학술연구에 힘썼다.<sup>98)</sup>

근대학문을 수학한 김문준, 김명식·김형식 형제 등이 이곳에서 교사로 활약하였다. 김형식이 1923년에 제주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sup>99)</sup> 이 회관은 그 즈음에도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문준은 1918년부터 2년에 걸쳐 만들어진 新成私塾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신성사숙장은 학생이었던 조규창의 아버지인 조태환이 맡았고, 김문준, 한상호 등이 교사로 활약하였다.<sup>100)</sup> <그림2>는 1925년까지 신성사숙<sup>101)</sup>에서 학업을 했던 학생들의 1회 졸업식 때 모습이다. 또한 그가 표선면 성읍학교 설립에 관여하였

김만봉, 김시훈, 고봉석, 고문진, 조규창, 이창성, 김재수, 조규희, 김종원이다. 뒷줄의 맨 왼쪽 인물이 김문준이다.

96)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98쪽에서 조천만세운동 관련자 처벌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97) 김보현, 『半天誌』, 제일인쇄사, 1976, 70쪽; 김연배(1896년생, 농업), 김시범(1890년생, 잡화상)은 조천만세운동, 교육운동과 조천소비조합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3·1운동 핵심인물 14인 중 김연배, 김시범은 거사 모의, 시위 주동 등으로 수형생활(1년/8개월)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회관은 1920년 이후 운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회관의 교사로서는 김문준, 김명식, 김형식, 김연배, 한우병, 김시범, 이일빈, 김순탁 등이 언급되었다.

98)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김동전, 앞의 논문, 1996, 197쪽; 김민규, 『조천읍지』, 1991에는 예수회 주관의 독서회관이라고 되어 있다. 김연배가 조천의 예수교 교회 전도사였던 점과 독서회관과 독립회관 둘 다 김시범, 김연배의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독서회관과 독립회관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99) 김찬흡, 앞의 책, 2005, 310쪽.

100) 新成私塾은 초등학교 급의 교육기관이었다. 1940년 전후에 간이 학교로 설립되어 몇 년간 교육이 이어지다가, 해방과 더불어 1946년 9월 1일 신촌공립학교로 인가받아 지금의 신촌초등학교로 이어져오고 있다(신촌초등학교총동창회, 『큰물』 제6호, 2004, 62-63쪽).

101) 신촌초등학교 동창회지 『큰물』에는 신성이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신성이숙’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김찬흡의 연구에서 조태환이 사숙장을 맡은 학교를 新成私塾이라고 칭하고 있다(김찬흡, 앞의 책, 1999, 344쪽). 한편 비슷한 발음의 新成義塾은 구우면 조수리에 있는 학교(숙장:김대형)로 1925년에 창립기사가 보이기 때문에(『매일신보』 1925년 8월 8일자) 본고에서는 해당 학교를 김찬흡의 연구를 따라 新成私塾이라 칭하겠다. 이 학교는 1909년 설립된 기독교학교 晨星女學園과도 학교명이 동음이나 다른 학교이다(김찬흡, 앞의 책, 2005, 500쪽).

다는 연구가 있으며<sup>102)</sup> 1924년 11월에 설립한 구좌읍 월정 사립중앙학교(이하 구좌중앙교) 교사(또는 교장)로 27년까지 재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03)</sup>

김문준이 이 시기 여러 학교 설립에 참여 혹은 주도하고 여러 곳에서 교사로 활동한 것은 그가 여건이 되었을 때 장소를 불문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31년(昭和 6) 김문준이 검거된 후, 유형판결문에 ‘피고는 일찍이 조선에서 교직에 종사<sup>104)</sup>했다는 기록과 제주지역에 영향력 있는 야학교나 보통학교 교사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성과가<sup>105)</sup> 그가 제주에 있을 때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그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해 민중계몽 또는 후학양성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1919년 조천만세운동 사건이라 볼 수 있다.<sup>106)</sup> 일본 사상 검사는 ‘신좌면(조천, 함덕, 신촌) 세 지역의 도민들에 의해 일어난 독립시위운동은 청소년의 뇌리에 불온한 사상을 심어주는 출발점이었다.’<sup>107)</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안세훈이 조천만세운동 이후 민족의식에 눈을 떠 민족항일운동을 꿈꿨던 청년들과 배움에 목말라 했던 이들이 많아졌다고 증언한 것에서 제주에서의 3·1운동 이후 청년운동이 활성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08)</sup>

둘째, 김문준의 교육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지식인들은 3·1운동이 선언적 시위운동에 그친 것에서 민족주의 계열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자들의 운동 역량에 집중했다.<sup>109)</sup> 이러한 분위기는 1910년대 유학을 한 제주지역 지식인들에게도

102) 金玟奎, 앞의 책, 1991, 413쪽; 『조천읍지』 근대인물편에 수록된 김문준 略史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1924~1925년 사이 김문준이 중국 망명과 일본 밀항, 1925년 일본사회주의 운동 투신, 1926년 일본대판서부전기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것, 1928년 피검되어 7년형을 받았다는 것 등은 다른 자료의 내용과 상충된다.

103) 金玟奎, 앞의 책, 1991, 179쪽; 양진건, 앞의 논문, 2014, 40쪽, <사립학교일람>; 김찬흡, 앞의 책, 2005, 211쪽.

104)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월보』 제2권 제2호, 1932; ‘朝鮮人ノ日本共産黨擴大強化ノ行爲 -大阪控所院ノ判決-’

105) 杉源達, 『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 新評論, 1987, 230쪽.

106)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 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374쪽 : 3·1운동 당시 제주에서 농민을 지도했다는 견해(文國柱, 앞의 책, 1981, 518-519쪽)가 있으나 그 내용 중 1853년생 등의 여타 내용에도 오류가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107)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월보』 제2권 제5호, 1932.

108)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 1942년 8월 13일; 신좌소비조합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안요검(본명은 안세훈)의 증언이다. 그는 1937년 김문준의 조천葬을 주도한 장례위원이었다.

109) 박애림, 앞의 논문, 1992, 14쪽.

있었다. 제주 출신인 김명식, 고순흙, 홍순녕 등은 1919년 7월부터 ‘조선노동문제 연구회’를 만들고 이듬해 4월에 ‘조선노동공제회’를 만들었다. 김문준 역시 조천 지역 출신이었던 친우들과의 학문적·사상적 교류 등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1923년 11월 8일 조천리에서는 조천노동단이 조직되었고, 이 단체에는 1919년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김형배, 김시은 등이 참여하였는데<sup>110)</sup> 여기에 조천 청년회 활동을 주도했던 김문준도 함께 참여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그는 ‘경성노동회’ 간부를 역임했다.<sup>111)</sup> 경성노동회는 1925년 조선노동대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자본주의 사회경제조직의 결함과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무산대중의 복리증진과 신사회 건설을 주장했던 노동단체로<sup>112)</sup> 김명식이 1921년에 조직한 사회주의 일파인 ‘서울청년회’와 1924년 사회주의 계통의 청년 단체 220여 개가 결성된 연합회였던 조선청년총동맹과도 관련이 있었다.<sup>113)</sup>

1920년대 제주도는 산업시설이 발전하지 않아 노동쟁의가 없었고, 지주·소작관계도 미약해 소작쟁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주 청년 지식인들은 서울청년회와의 교류를 통해 청년운동과 소년운동에 역량을 집중하였다.<sup>114)</sup>

제주 지식인들이 소년들 가운데서도 전술했던 독립회관과 같이 보통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따로 교육한 것은 이들이 제주도의 민족해방을 이끌어갈 지도역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115)</sup> 특히 제주에서 소년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은 나아가 그들의 가족과 마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김문준 사회로 열린 1926년 조천청년총회 결의사항에 ‘조천공립보통학교 학년 연장축발에 관한 것, 제주 청년연합회에 가맹할 것, 소년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 지도할 것’이란 내용이 있다.<sup>116)</sup> 이상의 결의사항은 조천 청년회와 제주청년연합회 그리고 교육운동의 주도자가 서로 이어져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김문

110) 「조천노동단 강령과 임원」, 『동아일보』 1923년 11월 18일자.

111) 「부녀활동의 조선인당원」, 『동아일보』 1931년 4월 2일자.

1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113) 「서울청년회 및 경성 노동회의 동정에 관한 건」, 『檢察事務에 關한 記錄2』 京鐘警高秘 제6655호의 1, 1925년 6월 15일자.

114) 「서울청년회의 四回定期總會 제작십일일에」, 『시대일보』 1925년 1월 14일자.

115) 염인호(a), 「일제하 제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민족지평』 제2회, 민족지평사, 1990, 313-314쪽; 염인호(b), 앞의 논문, 1990, 100-102쪽.

116) 「조천청년총회」, 『시대일보』 1926년 3월 8일자.

준과 제주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제주청년연합회원들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청년 지식인들의 교육운동은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1920년대 사립 명신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1923년도 말 공립학교가 9개교 34학급, 2,499명의 학생을 수용한 것에 비해 개량서당이 47개교, 학생 수가 3,432명에 달했다.<sup>117)</sup> 특히 김문준의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직생활 당시 얻은 제자였던 趙夢九는 경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시 동맹휴학에 참여해 수형생활을 한 후 1928년 8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김문준과 함께 오사카의 노동운동을 이끌었다.<sup>118)</sup> 또한 화북학교 제자였던 김광추는 김문준이 사망한지 1년 뒤인 1937년 치안당국의 注視와 경계에도 김문준의 시신을 오사카에서 조천으로 운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sup>119)</sup> 이를 통해 김문준의 존재감이 당시 후학들에게 크게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17) 전라남도청, 『未開の寶庫, 濟州島』, 1924, 40-42쪽; 양진건, 앞의 논문, 2014, 32쪽.

118) 김찬흠, 앞의 책, 2005, 482쪽.

119) 강봉석, 「김광추(1905-1983) 서예의 미술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쪽.

### Ⅲ. 오사카 제주인의 노동운동 주도

#### 1. 노동운동으로의 전환과 渡日 배경

김문준은 1927년 7월 오사카로 건너가서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진행하였다.<sup>120)</sup> 그가 渡日한 배경과 그의 운동방식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의 도일의 배경을 밝히는 것은 김문준의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도일 배경에 대해서는 오사카 사상검사였던 三木今二가 “김문준이 ‘홀연히’ 오사카 한국인 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sup>121)</sup>는 기록 외에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김문준의 渡日배경을 개인적 차원, 서울과 공산당 그룹과의 관련성 등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당시 정확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김문준이 한창 교육운동을 하던 1925년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雜感><sup>122)</sup>이란 詩를 지었다. 詩가 추상적이어서 전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雜感>이라는 詩題에서 그의 복잡한 감정들이 잘 드러난다. 마지막 구절에는 ‘木牛야, 밭은 있건만 길 못가 恨이로다’라는 표현의 그 ‘길’이 독립 또는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한다면, 교육운동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김문준의 심정 또한 읽을 수 있다. 그는 지난 8여 년간의 교육운동을 통해 당장의 결과를 보기 어려운 한계를 체감하고 운동의 방식을 바꾸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도에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사립보통학교 설립이 거의 없었던 사실을 보면<sup>123)</sup> 제주지역 청년단체들에 대한 일제당국의 감시망도 점차 좁혀져 왔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서울과 공산주의그룹(이하 서울파)과의 관련성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sup>124)</sup> 서울파가 비합법적 비밀조직이어서 김문준과의 직접적인 활동내용을 찾

120) 「注目される朝鮮人黨員盛んに活動す」, 『朝鮮新聞』 1931년 4월 1일자.

121) 三木今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 『司法研究』 第17輯의2, 1933; 제주도, 앞의 책, 1996, 152-153쪽에서 재인용.

122) 『동아일보』 1925년 12월 31일자, 畵文은 <부록4>을 참조하기 바란다.

123) 김찬흡, 앞의 책, 1999, 252쪽.

124)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2006, 137-138쪽;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은 ‘서울청년회’의 비합법 비밀조직으로서 김사국, 이영 등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다.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은 1922년 9월 7일 노동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했다. 첫째, 마르크스, 엥겔스의 1848



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사카에서 김문준이 제일조선노동총동맹 내 일부 간부과에 의해 ‘서울파’라고 공격받은 것, 三木今二 검사가 김문준에 대해 ‘전남 완도 출신 서울계인 정창남과 함께 화요계와 투쟁했다.’<sup>125)</sup>고 거론한 것에서 관련성이 농후하다.<sup>126)</sup> 이를 위해 제주지역 청년운동과 ‘서울파’의 관련성, 정창남을 비롯한 소안도 운동가들의 동향, 1926년~1927년의 서울파의 운동방향성을 통해 김문준의 도일배경을 살펴보겠다.

1925년 이후 제주지역 청년운동은 사회주의 경향이 짙어지기 시작하였다. 1925년 3월 11일 김택수, 송중현 등이 ‘신인회’를 조직하였고, 조천에서는 같은 해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일회’를 조직하고, 6월 1일부터 노동학원을 개원하였다.<sup>127)</sup>

또한 제주지역 청년운동은 사회주의의 한 계파인 서울청년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25년 제주지역의 ‘청년연합회’ 창립대회에 조선청년총동맹과 서울청년회가 축전을 보내며 청년운동을 격려했다.<sup>128)</sup> 제주 청년 운동가들이 계속적으로 ‘서울파’ 계열의 영향을 오로지 받았던 것은 화요회 계열의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이 1926년 6·10 만세사건을 계기로 일제에 검거되어 상부조직이 없었던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검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울청년회 계열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동을 전개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9)</sup> 김문준을 비롯한 조천청년회가 제주청년연합회에 가맹할 것을 결의한 것에서 그가 제주청년연합회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sup>130)</sup>

년 「공산당선언」이 ‘우리 당의 강령의 근본인 지주’이며 코민테른의 직접적이고 확고한 지도하에서 전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둘째,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한다. 셋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공화국’의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제민족통일전선을 제기했다.

125) 三木今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 『司法研究』 第17輯の2, 1933; 제주도, 앞의 책, 1996,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52-153쪽에서 재인용.

126) 차xx生은 김문준이 장일성(본명은辛日鎔, 1894~?)을 숭배하는 파벌주의자라고 규정했다(김인덕, 앞의 책, 1996, 290쪽 재인용). 장일성은 1916년~1918년 9월 사이에 제주도 소재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1922년 2월 신인동맹회 결성에 참여하고 6월 신생활사 기자가 되었다. 김명식과 같이 ‘신생활사 필화사건’으로 검거되어 수형생활을 했다. 1924년 2월 ‘통일조선공산당’ 결성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된 각파 공산주의그룹의 대표자회의인 ‘13인회’에 서울파를 대표해 참석한 것(강만길·성대경 엮음, 앞의 책, 1996, 256쪽)으로 보아 김문준이 서울파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

127) 「노동학원 개시」, 『동아일보』 1925년 5월 25일자.

128) 박찬식, 앞의 논문, 1995, 89쪽; 염인호(b), 앞의 논문, 1990, 97-98쪽.

129) 박찬식, 앞의 논문, 1995, 89쪽.

본래 ‘서울파’ 공산주의그룹은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통일전선’을 강조했다. 그 때문에 신간회보다 먼저 ‘민족단일전선’을 표방하는 ‘조선민흥회’를 조직하려고 시도하였다.<sup>131)</sup> 제주청년연합회도 1926년 8월 23일 제1회 정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로의 가맹과 ‘조선민흥회’ 후원을 결의하였던 것에서 그들의 연관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sup>132)</sup>

하지만 1926년 12월 조선공산당 2차당대회를 전후해 서울파 내부에 분화가 일어나면서 ‘조선민흥회’ 조직 시도는 실패하고 결국 1927년 2월 11일에 신간회로 해소하기로 결정되었다.<sup>133)</sup> 따라서 김문준과 제주 출신 청년활동가들이 오사카에서 신간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파벌 반대적 경향과 민족단일전선을 표방하였던 제주청년운동 노선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sup>134)</sup>

또한 三木今二 검사는 김문준과 전남 완도 출신 서울계인 정창남과의 교유관계를 언급하였다. 정창남의 고향인 완도와 제주도가 같은 계열의 사회주의 단체 영향을 받았다면 김문준 渡日 당시인 1926~1927년 완도 지역의 운동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창남은 완도군 소안면(이하 소안도) 출신으로, 소안도는 민족항일운동이 활발했던 곳이었다.<sup>135)</sup> 소안도의 대표적인 활동가로는 송내호(1895~1928)와 정남국(1897~1955) 등이 있다. 이들 또한 1926년 민족통일전선기관인 조선민흥회 발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서울청년회계임을 알 수 있다. 송내호는 3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면서 신간회 창립대회에 참석하였고,<sup>136)</sup> 정남국 역시 1926년 渡日하여 1927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집행위원을 역임 및 3차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sup>137)</sup>

정남국 외에도 많은 소안도 활동가들이 1926~1927년 즈음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sup>138)</sup> 이들의 渡日과 노동운동 합류는 전라남도 서울계 공산

130) 「조천청년총회」, 『시대일보』 1926년 3월 8일자.

131)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102쪽.

132) 박찬식, 앞의 논문, 1995, 90쪽.

133) 이균영, 앞의 책, 1993, 102쪽.

134) 1929년 신간회 제주지회장은 김명식이고, 간사 송중현, 회원 강창보, 김택수였다.

135) 소안초등학교 8회 졸업생 44명 가운데 40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에 뛰어든 정도였다; 이균영, 『해방의 땅 소안도』,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89; 김인덕, 「민족해방운동과 정남국」, 『東林』 Vol. 12-13, 1997, 362쪽.

136) 강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 245-246쪽.

137) 김인덕, 앞의 논문, 1997, 364쪽.

주의 그룹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던 1927년 결성된 전국적 노동운동 단체였던 조선노동총동맹의 파견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서<sup>139)</sup> 이를 김문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주출신으로 대표적인 서울파 공산주의자였던 홍양명(본명 홍순기)은 조선무산자운동이 경제적으로 소부르주아나 농민 계급이었던 ‘인텔리겐치아(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노동자, 소수공업적 도제, 실업자, 농업노동자, 小數의 職工과의 혼합형적으로 결성된 특수한 발달을 가진 운동이라고 했다. 또한 ‘실천운동’을 강조했던 것에서 김문준이 노동자 대중들과 더불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sup>140)</sup>

이상에서 제주 청년회와 서울파 및 조선청년총동맹의 연관성, 당시 전라남도 전반의 사회주의 운동을 장악했던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의 상황, 소안도 출신 활동가들의 대거 도일 후 노동운동 투신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요소들로 보아 김문준은 제주인들이 다수 정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오사카로 건너가 이들을 기반으로 노동운동을 진행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파벌주의를 경계하여 화요회계의 조선공산당원들이 간부로 포진하고 있었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합류하고 신간회 활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41)</sup>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그가 渡日後 쓴 詩에서 이국으로 건너온 결의를 확인할 수 있다.

木牛 나 무엇을 찾으려 태어났는가?  
나는 나라 없는 나!  
나라를 갖고 싶었고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싶었다.  
배움터에 일찍이 몸을 담았고  
후일에 후생을 위하여 항일에 몸을 담았다.

138) 박찬승, 「일제하 소안도의 항일민족운동」, 『도서문화』11,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1993, 115-120쪽에 따르면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소안도 출신 활동가는 정남국, 정창남, 김종호, 김창윤, 이수산, 신봉채, 김장안, 이형인, 김석동, 이윤연, 김영식, 이장백, 김수천, 고산, 김홍섭, 김영안이 있다.  
139) 이균영, 앞의 논문, 1989, 373쪽.  
140) 홍양명, 「조선운동의 특질(五) -번역주의의 극복과 특수조선의 인식-」, 『조선일보』 1928년 1월 15일자; 전명혁, 앞의 책, 2006, 381쪽.  
141) 전명혁, 앞의 책, 2006, 368쪽.



내 몸 던지고 이국 하늘에서 꽃을 피고  
 애국에 힘을 돌려 줄 힘이 원천을 갖고 희생하노라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민족 뿐...  
 살 길을 찾고 내가 세계에 만방에  
 꽃이 필 길을 전하려고 이국땅에 왔노라.  
 싸우고 희생하노라.  
 후생들이여!  
 내가 가도 후생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나와 같은 길 뿐  
 내가 저 세상에 가도 영원불변 하리라.  
 (1927. 木牛 김문준)<sup>142)</sup>

이 詩에서 김문준은 식민지민으로서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나라 없는 나’를 文頭에 놓음으로써 그가 渡日한 이유가 식민지민의 정체성에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가 異國에서 항일에 나선 이유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내 몸 던지고 이국 하늘에서 꽃을 피고’ 라는 구절에서 후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결의를 알 수 있고, 또 ‘꽃’이 독립을 의미한다면, ‘살 길을 찾고 내가 세계에 만방에 꽃이 필 길을 전하려고 이국땅에 왔노라’라는 구절을 통해 독립으로 가는 길 즉 운동방식을 후학들에게 전하려는 의도도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항일방법을 ‘싸우고 희생하노라’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후생들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따르라고 권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김문준의 渡日은 민족항일운동의 한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와 ‘서울파’와의 관계 속에서 제주인의 노동운동을 이끌고자 노력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 2. 제주인의 노동조건과 오사카조선노동조합 주도

142) 김만형(1936~)이 제공해 주신 소장 기록물이다.

1) 제주인의 노동조건

1920년대 농촌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업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자가 격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공업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지역 노동자들은 주로 공업이 발달하여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던 일본으로 건너가 살 길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미숙련자였기 때문에 자유노동(토건)으로 살거나, 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본인 노동자들이 피하는 유리·고무·방직 등의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1927년부터 점차 나빠진 일본의 경제는 대공황기인 1929년 들어 악화일로에 들어섰다. 실업자가 수백만 명이 넘었고, 직공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오사카에서 공장 직공으로 일했던 제주 출신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오사카가 다른 지역보다 노동임금이 낮고, 일본인 노동자와의 차별적 임금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3>은 1930년에 오사카 직업소개사무국에서 조사한 직공별 賃金 내용이다.

< 표3 > 민족별 노임 격차

		단위 : 円/일			
출신 구분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방직[紡績]공	없음	1.80	1.39	1.35	
염색공	3.00	1.70	해당없음		
고무공	1.25	1.50	해당없음		
제사[製糸]工	2.30	1.30	1.50	1.30	
다다미공	3.20	1.80	해당없음		
짐꾼	2.93	2.00	해당없음		
日傭人夫	2.43	1.76	1.30	?	
土工	2.50	2.08	없음	95전	

【출전】『교토, 오사카, 고베에서의 內鮮人 勞銀 比較』(1930년)<sup>143)</sup>

전체적으로 일본인의 勞賃이 조선인보다 20%정도 높고, 기술이 필요한 다다미공 같은 경우는 무려 2배 차이가 났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남성노동자에 비해 턱 없이 낮았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sup>144)</sup> 이 밖에

143) 오사카지방 직업소개사무국, 朝鮮人 勞働者 調査(1930년); 朴慶植,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2-2, 1181쪽, <京阪神地方に於ける内鮮人勞銀の比較> 표를 참고하여 재작성 하였다. 조선인 노임은 관내 각 지방 경찰부 조사를 집계한 것이며, 내지인노임은 상공회의소 통계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144) <표3>에서 고무공 임금이 조선인이 높게 표기된 것은 조선인조사 주체와 일본인 조사주체가

도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었으며,<sup>145)</sup> 같은 공장 안에서도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차별 대우를 받았다. 특히 동료 일본인 노동자에게조차 민족 차별적 언행을 당한 조선인노동자들은 계급의 문제보다 민족 차별 문제를 더 크게 느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등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 동참했다고 볼 수 있으며,<sup>146)</sup> 일본 경제의 불경기도 크게 작용했다. 직장에서의 해고는 곧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협했고,<sup>147)</sup>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권익을 찾고자 하였다.<sup>148)</sup>

## 2) 오사카 조선노동조합 활동

국내에서 1924년 4월 16일에 농민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연합체적 성격의 ‘朝鮮勞農總同盟’이 만들어진 이후 일본에서도 조선인 노동운동의 통일을 위해 도쿄와 오사카에 각각 결성된 조선인 노동단체들이 연대해 1925년 2월 22일 ‘재일조선노동총동맹’(이하 재일조선노총)을 결성하였다.<sup>149)</sup>

본래 계급 투쟁적 성격이 강했던 재일조선노총은<sup>150)</sup> 1926년 4월의 2차 대회에서 정치투쟁을 통한 민족적 해방을 첫 번째 강령으로 내걸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정우회 선언’과 소 민족단일당인 신간회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sup>151)</sup> 또한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장차 일본무산계급과의 국제적 연대를 기대하기도 했다.

달라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무공이 속하는 화학공 역시 1931년 『本市に於ける朝鮮人工場労働者』에서는 남녀평균 200(일본):149(조선)의 비율로 조선인의 노임이 약 25% 더 싼 것을 알 수 있다(金贊汀, 앞의 책, 1985, 184쪽).

145) 서현주,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계급의 형성」, 『한국학보』 (63), 1991, 187-188쪽, <표-9>를 참고하였다.

146) 高峻石, 『越境-朝鮮人私の記録』, 사회평론사, 1977, 106-107쪽; 김광열, 「일본에서의 한인 사회운동과 민족 차별」,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8,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147) 金贊汀, 앞의 책, 1985, 165-166쪽, 금속공업자인 정만정씨의 증언이다.

148) 대관시사회부, 「사회부보고」, ‘조선인노동자문제’ 大正13년 4월(1924년 4월); 金贊汀, 앞의 책, 1985, 59쪽 재인용.

149) 재일조선노총의 1차대회 강령에서는 경제적 절대평등한 대중분위의 지식개발,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박해에 대한 철저한 항쟁,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 평등한 신 사회 건설을 슬로건으로 하였다.

150) 1차 재일조선노총 강령(1925.2.22)은 첫째, 경제적 절대평등한 대중분위의 지식개발, 둘째, 자본가 계급의 억압과 박해에 대한 철저한 항쟁, 셋째,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양립은 불가능하므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 평등한 新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했다.

151) 김경일, 『한국노동운동사2-일제하의 노동운동:1920~1945』, 지식마당, 2004, 169-170쪽; 신간회 자체로는 실천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일노총에서 주도하였다.

특히 재일조선노총이 민족 운동적 성격이 강화된 것은 3차 대회(1927.4.20)였다. 3차 대회는 ‘우리의 조선은 식민지이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는 농민이다. 우리들은 불행히도 이 식민지 조선에서 농민으로 살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는 강령으로 시작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수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특수 취급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큰 문제가 민족적 차별과 학대임을 밝혔다. 이것은 조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조직할 명분이 되었다.

우리들의 대다수는 「자유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합 형태는 직업별, 산업별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다…(중략)…우리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지역은 극악한 一大工場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분은 조선민족이라는 민족적 임금노예이다.<sup>152)</sup>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조선인을 민족적 임금노예로, 일본 전체를 공장 및 자본가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제3차 정기대회에서 채택된 ‘1府縣 1조합 원칙’에 따라 기존 오사카의 노동조합 8개 조합이 연합해 1925년 7월에 결성된 오사카연합회가 1927년 9월 1일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이하 오사카조선노조)으로 해소하였다.<sup>153)</sup> 오사카조선노조는 此化, 北部, 東北, 東南, 港, 西成, 界, 泉北 등의 각 지부로 재편되었으며 1927년 9월 조합원이 2천 4백 명이였다.<sup>154)</sup>

이에 따라서 김문준이 활동한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은 재일조선노총의 ‘3차 대회 강령’을 따라 각종 정치투쟁과 노동운동을 주도했다.<sup>155)</sup> 하지만 오사카조선노조 간부 사이의 노선대립이 존재했다. 오사카 조선노조의 전신이었던 오사카연합회는 오사카 노동자대중과 밀접한 노동운동가 김달환·송장복·신재용·지건홍 등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1927년 3월부터는 재일조선노총 본부 또는 조선공산당과 관련이 깊었던 김수현 등 새로운 인물들이 집행위원으로 합류하면서 파벌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sup>156)</sup> 또한 오사카조선노조는 본부를 西成지부에 두고 집행

152) 高峻石, 앞의 책, 1985, 72-78쪽.

153) 「재대관조선노조 창립 8여명이 10개 조합 결의」, 『동아일보』 1927년 9월 8일자.

154) 김인덕, 앞의 책, 1996, 129쪽.

155) 재일조선노총은 3회 정기 대회 이후 조선총독부폭압정치반대, 조선공산당 공개재판요구, 치안유지법철폐, 3총(조선 국내 청년, 노동, 농민 총동맹) 해금요구, 상애회 박멸 등 다양한 사안들로 인해 다른 재일조선인 단체와 연계해 전개하면서 1927년에서 28년에 걸쳐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156) 정혜경, 앞의 책, 2001, 196쪽.

위원으로 김문준 외 김수현·박영근·박영만이 선출되면서 다양한 노선이 혼재했다.<sup>157)</sup>

더구나 출신지별 대립문제까지 있어서, 단체의 표면은 통일되어있었으나 실상은 중앙 지령보다 각 지부별 지도자의 영향 하에 활동이 이루어졌다. 김문준은 오사카조선노조 간부 내에서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민족파로 분파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1920년대 후반 제주도출신자들의 집중거주지인 동남지부, 동북지부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다.<sup>158)</sup> <표4>는 김문준이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오사카조선노조의 간부 활동한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 표4 > 김문준의 간부 활동 이력<sup>159)</sup>

날짜	단체	지위	관련인
1927년	9.1	오사카조선노조 (창립대회)	중앙 집행위원 (동남지부) 위원장 : 김달환 집행위원 : 김문준, 김한경, 김수현, 박영근, 박영만
	9.3	제1회 집행위원회	해당 없음 사무부(부장 윤동명, 부원 박영만, 강철) 정치교육부 (부장 신재용, 부원 김수현, 박영근) 조직선전부 (부장 정동파, 부원 김병국, 전춘섭) 조사쟁의부 (부장 남영우, 부원 이동혁, 심황파) 부인부 (부장 김종업, 부원 김영하, 김현태)
	11.20	오사카조선노조 북부지회 <sup>160)</sup>	위원 지부장 : 양달래 위원 : 김우, 이주천, 전삼준, 김성익, 김철지, 박기주, 변영규, 김소출, 김상은, 김병남, 김병순, 홍근삼, 강원악, 오정홍, 동혁야(이동혁), 김문준.
	12	신간회	신간회 간부 송장복, 정동파, 김문준, 박영근, 신재용, 안종길, 위경영, 김우섭
1928년	3월	大阪事件	집행위원장 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일상투쟁보다 조선해방에 투쟁을 집중시킨다고 비판해 집행위원장 김문준이 남영우, 윤동화 등을 관현의 스파이로 낙인찍어 제명 처분함. (남영우, 윤동명, 김수현 등)
1928년	4.23	오사카조선노조 (제2회정기대회)	상임집행위원장 : 송장복 상임집행위원 : 정동파, 위경영, 추대□, 윤영규 (간부파 참석하지 않음)
		집행위원회	북부지부 상임 집행위원 집행위원장 : 송장복 서성지부 : 김영수 동남지부 : 김병국 차화지부 : 정광택 동북지부 : 이풍기, 김상구 북부지부 : 김문준, 이동혁, 김달환 주길지부 : 배철 항구지부 : 정동파, 위경영 항지부 : 추병환 천주지부 : 어파 하천지부 : 송충신 서부지부 : 김건오, 윤혁제 양속지부 : 윤상규, 김광
	5.12 ~13	재일조선노동 제4회 대회	오사카 대의원으로서 오사카지역 대의원 10명 출석. 김문준은 ㉠ 大阪사건의 진상을 호소하고 제명의 정당

157)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1995, 119쪽에 따르면 관현자료에서는 박영근과 박영만은 화요회파에 속하고, 김문준은 서울파에 속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문준이 분파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신간회 오사카지회 지도자로서도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의 참석	성을 강력히 주장함(『제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제4회 전국 대회회록』). 또한 ㉠ 과거 『대중신문』이 오류를 범했다면서 청산할 것을 제기, 독일노동자 저지 반대운동에 관해서는 항의문을 발송함.
			중앙위원	신중앙위원장 : 김천해 중앙위원 : 송창렴, 진병로, 김강, 남영우, 이성백, 서진문, 권일선, 정휘세, 송장복, 김달환, 최현수, 김수현, 김호영, 김문준, 이일 등.
	5.15	재일조선노동 1회 중앙집행위원회	출석	의장 : 김천해 / 서기 : 김강 출석 : 김천해, 남영우, 송창렴, 이성백, 김강, 이일, 서진문, 권일선, 박휘일, 송장복, 김문준, 김달환 등 13명
	6.3	임시대회	교육부장	위원장: 박영만 서무부장 : 이호석      조직부장 : 김영수 정치부장 : 김수현      교육부장 : 김문준 파업부장 : 남영우      조사부장 : 정광택 부인부장 : 박영만
	7.23	포생야학원	강사	교장:마찬규 / 상무:권영하, 심황과, 최말용, 성복기 보조교사:조규준 / 강사:마희규, 이동화, 김상구, 김광, 김문준
	7월	조선인거주권 획득동맹	신간회 간부	신간회 오사카지부가 중심이 되어 1928년 7월, 조선인거주권획득동맹 결성, 거주권 문제에 비판연설회 개최함
1929년	2.5	신간회	간사	회장 : 김상구(복역중) 서무부총간 : 윤혁제      정무부총간 : 송장복 조직선전부 : 박영근      조사출판부 : 김해진 상임간사 : 정팔용, 김병국, 김정순 간사 : 김용해, 박동수, 김영주, 김건오, 김상석, 남영우, 박영만, 김문준, 김영수, 이동혁, 심황과, 김순호, 현석현, 배철, 권영하, 조근칠, □보윤, 송충신, 김□태, 김중호, 조몽구, 김동인, 김덕연, 고상범, 成炳琦, 박일, 권한휘, 조희□
	7.18	4차 공산당 검거사건	증인	4차 조선공산당검거 관련자에 오사카조선노동 핵심간부인 정동과, 김대옥, 신재용, 위경영 포함, 춘경원당이 오사카부를 설치했는지 공판, 오사카부 조직에 대해서는 신재용, 정남국, 위경영 모두 부인, 김문준, 윤혁제 등 8명이 증인으로 채택
	8.25	신간회 오사카지부 확대위원회 <sup>161)</sup>	검사위원장	전형위원 : 이동화, 김영수, 조몽구 집행위원장 : 김상구 / 검사위원 : 김문준(장), 박영근 간사 : 송장복, 김달환, 윤혁제, 김건오, 정팔용, 이종식, 김달준, 김용해, 김동인, 성병기, 현석현 후보 : 이동혁, 김영수, 조몽구, 김영주, 권수하, 이병한 <b>신간회 오사카지부 간부 중 제주 출신자 : 김문준, 조몽구, 김달준, 김용해, 송병구.</b>
	12.14	전국대표자회의	중앙위원	김두용(위원장), 임철섭, 이의석, 이선형(제일노동) 이운우(동경조선노동), 박완근, 정금술, 전창영(신아현조선노동), 김명식(북육조선노동) 손우석, 지경신(애치현조선노동), 박신한, 김진우(경도조선노동), 김문준, 조몽구, 김영수, 박영만(오사카조선노동), 최경식(병고현조선노동), 김호영(방청인자격), <b>오사카조선노동 대표(김문준, 조몽구, 박영만, 김영수)</b>

158)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67-1368쪽.

159) 본 논문의 참고문헌들에서 간부이력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160) 「대관조선노동 북부지회 발회」, 『동아일보』 1927년 11월 28일자; 「대관조선노동 북부지회 발회, 대성황 중에」, 『중외일보』 1927년 11월 27일자.



그는 1927년 9월부터 오사카조선노조 간부를 역임했고, 오사카조선노조 내 노선갈등으로 생긴 ‘大阪事件’을 해결하면서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다.

‘大阪事件’은 1928년 3월 28일 오사카조선노조 집행위원회가 김수현에게 東南지부로 이동하라고 하자 김수현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하부조직이었던 東北지부 상임집행위원회에 취임한 김광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데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즉 김수현은 상부조직의 지령에 불복종하고, 오히려 명령에 따른 김광을 제명했던 것이다. 이에 오사카조선노조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1928년 4월 11일 남영우·운동명·김수현·안종길을 분리주의자로 제명하고 김광을 복권했다. 4월 23일 제명당한 사람들을 포함한 간부파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간부진을 꾸렸다. 이때 꾸려진 집행위원이 송장복·김문준·김병국·김달환·김광이었다.

하지만 제명당한 간부들은 조선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에 부당성을 제기했고, 도쿄에서 열린 재일조선노동 제4회 전국대회에서 김문준이 大阪 사건의 진상을 호소하고 제명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결국 타협을 통해 운동명·남영우는 제명 취소, 정남국은 무기정권, 김광은 스파이 용의와 투쟁자금 횡령으로 제명이 결정되었다.<sup>162)</sup>

김문준을 비롯한 오사카조선노조 내부에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과 대립적이었던 인물들이 있어서 이들을 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를 분리 독립함으로써 전선통일을 파괴한다는 오명을 쓸 것인지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63)</sup> 결국 김문준이 김수현과 남영우를 포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이때부터 재일조선노동총에 대한 회의를 느껴, 이후 해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64)</sup>

김문준이 중심이 된 오사카조선노조는 총독폭압정치반대투쟁<sup>165)</sup>을 시작으로 정치 비판회를 통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문준이 1928년 6월 교육부장이

161) 「신간대관지회 확대간사회. 갑산화전민 사건 등 결의」, 『조선일보』 1929년 9월 1일자.

162) 김인덕, 앞의 책, 1996, 175-177쪽.

163) 「反幹部派の勝利に期し内紛問題遂に清算さる」, 『日本労働通信』 75호, 1928년 5월 1일자.

164) 정혜경, 앞의 책, 2001, 198-199쪽, 205쪽; 「대관조선노동조합본부 확대위원회속회」, 『일본노동통신』 55호, 1928년 4월 7일자.

165) 항일운동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는 소안학교 강제폐쇄는 전남 지역민이 다수 거주하는 오사카조선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1927년 5월 21일에 오사카완도향우회는 소안사립학교 폐교반대 동맹 조직하고 반대연설회를 개최하였다. 1927년 6월 1일에 이르러 소안사립학교 폐교 반대운동은 총독실정 공격대회로 확대되었다(정혜경, 앞의 책, 2001, 206-210쪽).



되고서는 다른 간부들이 아무역할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뼈라를 만들어 시위를 계속하고 야학을 설립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sup>166)</sup>

또한 오사카조선노조는 민족단일당인 신간회 활동도 겸하고 있었다. 이들은 在 오사카 제주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8년 7월 ‘조선인거주권획득동맹’을 결성하고 거주권 문제에 대한 비판연설회를 개최했다.<sup>167)</sup> 또한 중국 관헌의 在滿同胞 구축 정책에 항거하여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전개했고, 1928년 9월 수해 이재동포 구제, 1929년 원산총파업 후원했다.<sup>168)</sup> 1929년 8월 신간회 확대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집행부 총 22명 중 조몽구·김달준·김용해 등 제주출신자들이 오사카 내 신간회 활동의 주축이 되었다.<sup>169)</sup>

마지막으로 김문준은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에 주력하였다. <표5>는 1927년에서 1929년에 거쳐 오사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사례이다.

< 표5 > 오사카조선노조 노동쟁의 사례

연번	발생년월	지역	공장(직원 수)	내용	결과
1	1927년 10월	東淀川區本壓東通(北區)	磯西染工場(30명)	1명해고 → 17명이 대우개선 요구 태업단행	기숙사 즉시개선
2	1927년 11월	東成區鳴野町	大阪旭商會(23명)	전직공 - 30%임금 인상 요구	10% 임금인상
3	1928년 2월	浪速區鷗町	近藤제화공장	15명 - 쟁의	
4		東成區浦生町(城東區)	松崎染工場(51명)	23명 - 대우개선 파업	
5	1928년 4월	東區宮林町(中央區)	도금업宮林상회(207명)	조선인 15명-임금인하 하지 말 것, 일급제, 민족차별반대를 요구	획득
6		淀川區中津浜通(北區)	스리화학연구소(51명)	18명의 해고 - 수당요구쟁의	180엔 획득

166) 「鮮人勞働者の教化運動」, 『日本勞働通信』 제32호, 1928년 3월29일자; 정혜경, 앞의 책, 2001, 241-242쪽을 참조하였다.

167) 朴慶植, 『在日朝鮮人-私の青春』, 1981, 374쪽.

168) 『조선일보』 1929년 3월 1일자; 朴慶植, 앞의 책, 1979, 187-190쪽; 신간회 지회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와 노동운동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 지원하였다. 일본에서 조직된 동경지회 오사카지회 교토지회 나고야지회가 그 대표적 지회들이다. 신간회 중앙본부와 적극 지회들이 원산총파업의 노동운동을 지지 성원했다(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원산총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봉우, 「민족해방의 과제와 노동운동」, 『민중적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85, 248-25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69) 『동아일보』 1929년 9월 1일자;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집행위원」, 『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 9권, 1929년 8월 24일자.

7		6월	北區與力町	다무라製罐공장 (18명)	6명해고 - 수당요구쟁의	1인 10엔 획득
8		7월	西淀川區海老江町(福島區)	津田 법랑공장 170(75명)	조선인 35명은 6월의 총동맹의 쟁의해결조건을 불만 → 새로이 차별철폐, 휴업중의 일급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쟁의 과정 중 韓日간 입장 차이 인식)	11일 - 요구철회, 175엔 지급으로 해결
9		10월	西淀川區浦江北町 (북구)	中本草履裏제조 공장 (19명)	대우개선요구쟁의	일부 획득
10		12월	東成區大今里町 (城東區)	河井絃磨공장 (여공 66명)	임금인하 반대 파업	10%인상 획득
11	1929년	3월	東成區中浜町(城東區)	池永洋傘 製造所(27명)	30% 임금인상, 차별임금철폐 등 요구	5% 임금인상을 획득
12		3월	西淀川區海老江町	삼공 고무 제조소(35명)	자전거타이어제조공장, 15명- 최저임금 등을 요구	최임 95전 획득
13		6월	住吉區住吉町	태전 제유소 (36명)	15명-대우개선요구쟁의 →파업 12일	정기승급, 쟁의비용 획득
14		6.13. ~8.1 6.	東成區中浜町 (城東區)	鹽山洋傘骨 제조공장(21명)	18명- 임시휴업으로 일급지급 요구쟁의	550엔 지급, 7명 해고
15		7월	淀川區本壓西通 (北區)	소림초자제 조소(37명)	13명-대우개선요구	잔업보증획득
16		8월	住吉區住吉町	태전제유소 (36명)	6월 발생의 太田제유소의 25 명- 임금인상요구쟁의	15명해고, 금일봉 지급
17		8월	北區 同心町	日濠초자공업소 (60명)	38명 직원- '5명해고' 반대 쟁 의	금일봉지급
18		9월	東淀川區本壓東通 (北區)	伊藤製帽會社 (남 20명, 여 215명)	여공 6명- 임금인하반대쟁의	임금인하 일부 완화
19		9.17. ~10. 14.	浪速區立葉町	판야초자공장 (38명)	24명- 임금인하 반대쟁의	10명해고, 해고수 당 35일본, 쟁의 비용 150엔 지급
20		10월	東成區中本町	三木고무제조소 (27명)	차별반대, 대우개선 요구쟁의	개근상여, 쟁의비용 20엔 지급
21			東成區 森町	足袋제조 加島 상점(36명)	10명의 임시 휴업 중의 일급 지급요구쟁의	100엔 획득
22	11월	東淀川區장병서 통(북구)	소서 초자 제조소(65명)	28명- 해고반대쟁의	복직	
23	12월	東淀川區 장병서통(북구)	소서 초자 제조소(65명)	18명- 해고반대쟁의	5명해고, 180엔 지급	

【참 조】 『노동월보』79-105호(1927년 11월-1929년 1월)의 쟁의내용을 토대로 표를 작성하였다.<sup>171)</sup>

노동쟁의가 일어난 지역을 검토하면 1928년 4월 이후 김문준이 담당한 북부지  
부에서 일어난 쟁의가 9건(㉠,㉡)이고, 김문준의 거주지<sup>172)</sup>이자 제주도민이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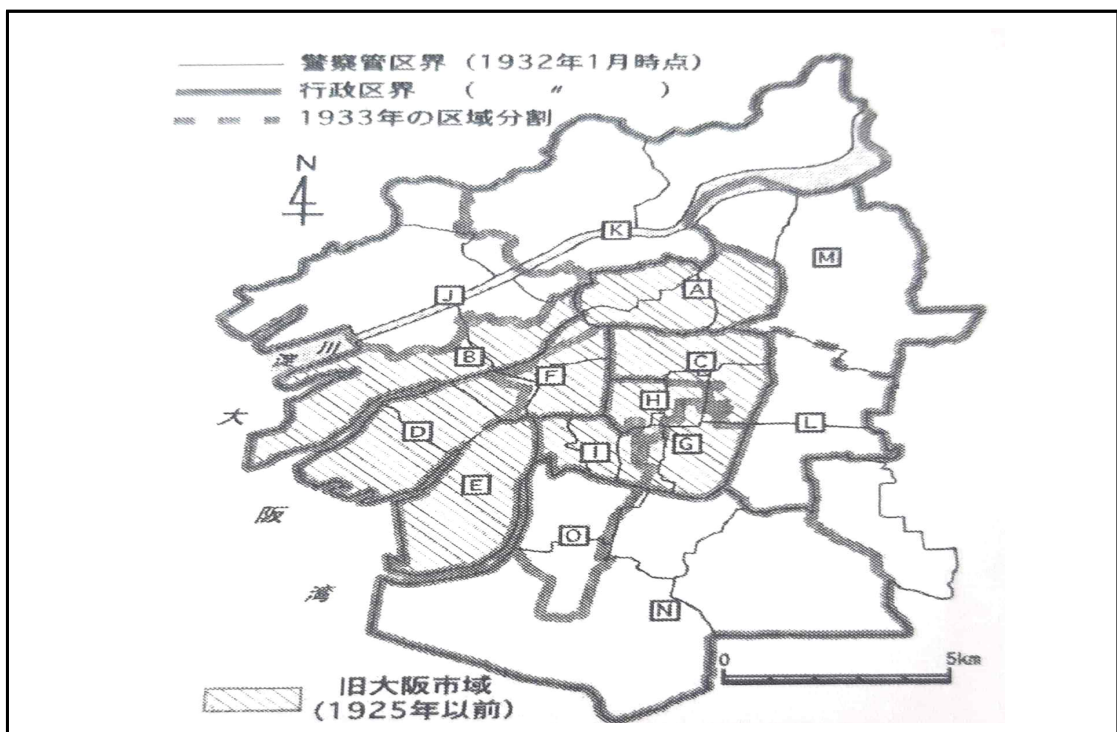
170) 더 자세한 내용은 정혜경, 앞의 책, 2001, 225쪽을 참조하길 바란다.

171)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68-1369쪽.

172) 김문준의 일본 주소는 大阪 東成區 東桃谷町 178번지이다(『사상월보』제2권 제2호, 朝鮮人ノ日

살았던 곳(Ⅱ)에서 일어난 것이 7건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합하면 총 16건으로 오사카조선노조 쟁의 23건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3 참조>.

<표5>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난 공장이 고무, 유리 등의 雜공장이 다수인 것은 당시 조선인의 일자리가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영세공장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74)</sup> 내용을 보면 해고반대 및 해고수당 요구, 임금 인하 반대 및 인상요구, 대우개선요구, 휴업 중 일급지급 요구, 민족차별 반대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이것은 오사카조선노조 활동이 노동자들의 생활옹호 운동임과 동시에 민족향일 운동의 성격을 띠었음을 보여준다.



Ⅳ 키타(北)구	Ⅷ 코노하나(此花)구	Ⅻ 히가시(東)구
Ⅱ 미나토(港)구	Ⅸ 다이쇼(大正)구	Ⅹ 니시(西)구
Ⅲ 덴노지(天王寺)구	Ⅵ 미나미(南)구	Ⅺ 나니와(浪速)구
Ⅰ 니시요도가와(西淀川)구	Ⅷ 히가시요도가와(東淀川)구	Ⅻ 히가시나리(東成)구
Ⅴ 아사히(旭)구	Ⅷ 스미요시(住吉)구	Ⅹ 니시나리(西成)구

<그림 3> 1925년~33년 오사카 행정구역과 제주인 거주지<sup>173)</sup>

本共産黨擴大強化ノ行爲,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73) 福本拓, 「1920年代から1950年代初頭の大阪市における在日朝鮮人集住地の變遷」, 『人文地理』 第56卷 第2號, 2004, 47쪽의 그림을 재편집하였다.

174) 金贊汀, 앞의 책, 1985, 170-173쪽.

### 3. '고무공조합'의 노동쟁의와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가입

#### 1) 고무공조합 결성과 노동쟁의

앞의 <표3>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무공의 임금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훨씬 낮았고, 직공 채용 조건을 '여름시즌 비교적 열기에 잘 견디는 체질 필요'<sup>175)</sup>라 할 정도로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는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때 김문준은 조몽구 등의 제주출신 운동가와 함께 在오사카제주인 노동자를 기반으로 고무공조합을 조직하였다. 동성구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1000명이<sup>176)</sup> 1929년 10월 16일 고무공조합을 조직하였다.<sup>177)</sup> 오사카고무공조합은 창립대회에서 14개 의안<sup>178)</sup>을 채택하고, 이카이노[猪飼野]町을 중심으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sup>179)</sup> 1928년부터 심해진 치안당국의 감시 속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무공조합 결성에 동조했던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민족차별과 더불어 김문준이라는 인물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80)</sup>

<표6>은 고무공조합 결성 이후 노동쟁의 사례로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했음을 보여준다.

175) 대판지방 직업소개사무국, 『고무공업과 노동사정』, 1927년 10월 25일 발행; 金贊汀, 앞의 책, 1985, 173쪽 재인용.

176) 1925년에는 오사카시의 고무공장 50기 중에서 20기(40%)가 있었고, 1930년이 되면 더욱 늘어나 오사카 전체 90기 중 48기, 약 53%의 고무공장이 집중해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을 써 주는 공장 주위에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과, 고무공장에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독립해 고무공장을 경영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강원범씨는 1931년 1932년 즈음에 生野區에 조선인 공장 경영자도 간혹 보이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金贊汀, 앞의 책, 1985, 174쪽).

177)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372쪽; 고무공조합에서 활동한 김정순은 이 조합이 540명을 조직했다고 했다(김정순, 「生きることが闘いだった」, 『社會主義と労働運動』 6권 5호, 1982, 14쪽; 杉源達, 앞의 책, 1986, 230쪽 재인용).

178) 14개 의안은 '최저임금제 확립, 실업수당법 제정, 8시간 노동법의 즉시 실시, 민족적 임금차별 철폐, 민족적 차별철폐특수근절, 부인 및 청소년노동자 특별보호법 실시' 등으로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대변했다.

179) 『조선일보』 1929년 10월 23일자.

180) 杉源達, 앞의 책, 1986, 230쪽.

< 표6 > 고무공조합 노동쟁의 사례<sup>181)</sup>

연번	발생년월	工場名 (직원 수)	내용	결과
1	1929년 10월25일~11월 1일	키리아 고무공장(98명)	임금인상쟁의	긍정적 회답
2	11월10일~17일	츠지무라[辻本]고무공장 (남 60명, 여 38명)	벌금제 폐지, 휴식시간 제정요구 쟁의	승인
3	1930년 1월 8일~13일	사와[挨澤]고무제련소 (55명)	조선인직공 35명이 대우 개선을 요구파업	잔업수당인상, 시간단축, 쟁의비 50엔 지급 등 요구승인.
4	1월9일~19일	이즈미[泉]고무공장 (180명)	임금인상쟁의	패배
5	1월 13일~19일	辻村고무공장의외 13공장 (450명)	임금인상쟁의	패배
6	2월 4일	토우아[東亞] 고무회사 (일본인 75명, 조선인 25명)	임금인하 취소	일본인만 수용, 고무공조합노동자 조선인 거부
7	2월14일	東亞 고무회사	조선인 태업쟁의 → 조선인 25명 해고 → 파업	일본인 노동자 ↓ 조선인 노동자 민족간 대립 격화
8	4월 8일	고무공조합을 전협에 가맹시켜 '전협일본화학노동조합오사카지부'로 오사카 전협 운동의 중추에 자리 잡게 됨.		
9	4월 19일~22일	마쓰모토[松本]고무공업소(72명)	50명의 감독배척쟁의	
10	6월	泉護膜 공장(남90, 여 70)파업	임금인상요구쟁의 - 8월8일 김문준 포함 5 명의 간부와 일본인 3명 검거됨.	

김문준은 1929년 10월부터 6월까지 9건의 노동쟁의를 이끌었다. 그는 각종 선전물을 통해 노동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1929년 11월 출판법위반으로 벌금형(10원)을 받기도 하였다.<sup>182)</sup> 김문준이 1930년 8월 즈음에 검거된 후 조몽구가 그 뒤를 맡아 전협화학오사카지부 고무공조합의 노동쟁의를 이어갔다. 1931년 1월 岡部 고무 제조공장 쟁의에서 직공 남녀 50명과 임금 인하 취소 요구, 7시간 노동요구 등을 했으며, 1931년 5월 泉, 播磨屋, 光田 고무공장 노동자의 호응으로 시작된 이카이노[猪飼野]町 고무공 총파업은 점점 확대되어 1주일간 동성구의 30

181)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72쪽에서 『노동월보』104-109호 (1929년 12월-1930년 6월의 쟁의내용), 『大阪毎日』1930년 3월 2일자[8번 내용], 1930년 4월 3일자[8번 결과], 정혜경, 앞의 책, 2001을 토대로 표를 작성하였다.

182) 김문준 수형인명부(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판결문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listkeywordSearch.do>); 11월 2일, 11월 20일 각각 10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두 건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개 고무공장, 약 900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파업을 단행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sup>183)</sup> 츠지무라[辻村] 고무 공업소에서는 1931년 6월 임시휴업 시, 경영자가 전 재산을 노동자에게 분배한다고 약속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해 채권자들의 차압을 막아내어 7월 공장폐쇄에 따른 공장 전 재산분배를 쟁취하는 데 성공하기에까지 이르렀다.<sup>184)</sup>

김문준은 1930년 6월 泉護膜공장(남 90명, 여 70명)파업을 주도하고 이즈미[泉] 고무공장의 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지도부를 결성했다.<sup>185)</sup> 이를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8월 8일 김문준을 포함한 5명의 간부(그 외 일본인 3명)들이 검거되었다. 김문준은 1932년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sup>186)</sup> 그의 검거 및 수감은 고무공들의 전협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sup>187)</sup> 하지만 김문준이 검거된 이후에도 제주 출신 후학들인 조몽구·현호진 등에게 이어져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1922년 이래 시작된 오사카에서의 조선인 노동쟁의는 1929년에 정점에 다다랐고,<sup>188)</sup> 1929년 노동쟁의 전체 사례의 대부분이 김문준과 조몽구 등 제주 출신 활동가들이 이끌었다는 것에서 김문준의 조직력과 在오사카제주인 활동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sup>189)</sup>

## 2) 고무공조합의 일본공산당 산하 전협 가입

1920년 초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sup>190)</sup> 다만 그들은 외국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사상의 동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지식인들 내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였다.<sup>191)</sup>

183)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72쪽, 1530쪽; 『노동월보』 104-109호 (1929년 12월 -1930년 6월의 쟁의내용).

184) 谷合佳代子, 앞의 논문, 1985, 4-5쪽.

185)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37쪽.

186)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월보』 제2권 제2호, 1932; 「대판 김문준에 3년 6개월 언도-대판조선인 사회운동의 가장 활동한 인물」, 『중앙일보』 1931년 12월 30일자에 따르면 1930년 7월 15일 조선인과 일본인 다수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심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김문준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187)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530쪽.

188) 내무성 경보국, 『社會運動の狀況』(1930년, 1931년, 1932년) 참고; 정혜경, 앞의 책, 2001, 225쪽 재인용하였다.

189) 김경일, 앞의 책, 2004, 241쪽.

190) 진덕규, 「1920년대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106-107쪽.



1925년 결성된 재일조선노동총 역시 이러한 분파적 萌芽를 가지고 있었다. 재일 조선노동총 중앙부는 1927년 민족해방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괄적인 지도를 해 주지 못해 실상은 각 지부별의 독자적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1928년 이후 계급투쟁노선으로 전환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생겼고, 외부적으로는 프로핀테른 제4회 대회<sup>192)</sup> 테제와 코민테른 테제에서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노동조합에 가맹할 것’과 ‘일국일당 원칙’을 발표하면서 전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sup>193)</sup>

김두용 등 재일조선노동총의 새 집행부는 1929년 12월 14일 오사카에 모여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서<sup>194)</sup> 전협으로 합류해 대담히 일본노동자와 연대투쟁 할 것을 밝혔다.<sup>195)</sup> 이에 따라 1930년 1월 재일조선노동총 중앙상임위원회는 전협조선인위원회로 개칭했다. 김문준도 조몽구 등과 함께 오사카조선노동조 대표로 참석해 일본공산당계 ‘노동조합전국협의회’로 가맹할 것과 ‘1산업 1조합주의’에 따라 산업별 조합으로 변경하기로 찬성했다.<sup>196)</sup>

하지만 전협조선인위원회가 전협으로 가맹하는 과정에서 김호영 등의 중앙간부와 김문준 등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김문준은 재일조선노동총의 오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여겼기에<sup>197)</sup> 전협조선인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즉시 전협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198)</sup> 이에 전협조선인위원회 측은 김문

191) 진덕규, 앞의 논문, 1991, 94쪽.

192) 프로핀테른은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의 축약어이다. 1921년 결성돼 1937년 해산된 공산주의 경향의 노동조합 국제조직으로, 자본주의 타도,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은 비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프로핀테른 제4회 대회는 1928년 3월~4월에 개최되었다.

193) 또한 이 시점에 프로핀테른 제4회 대회에서는 ① 자본주의 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식민지 노동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 ② 재일 조선노동총동맹을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에 통합시키라는 테제가 선택되었다. 뒤이어 8월 코민테른 서기국에서도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조선인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그 나라의 혁명을 위해 싸움으로써 국제주의를 관철하는 것, 이것이 조선인의 임무이다.’라는 ‘일국일당 원칙’을 표방하였다.

194) 오사카 西成區의 한 조선인 집에서 전국으로부터 17명의 대표자가 모여서, 비밀리에 전국대표자회의와 확대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대표자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린 것은 오사카가 전국 조합원 수의 6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95) 정혜경, 앞의 책, 2001, 294쪽; 재일 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 선언문에 전협으로의 가맹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高峻石, 앞의 책, 1989, 66-67쪽);. 이것으로 민족운동을 강조하던 재일노동총은 없어지고, 계급투쟁을 지향하는 전협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196) 중앙상임위원에 김두용(위원장)·金浩永·林澈燮·李義錫을 선출하고 김문준이 중앙위원을 맡았다.

197) 정혜경, 앞의 책, 2001, 304쪽; 김문준은 ‘우리는 노동상부가 권위이고, 이 권위로부터 노동재건 투쟁을 한다면 산업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어떤 위원조직(전협조선인위원회)이 갖추어질 때까지의 과정이고, 노동총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준 일파가 '전국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해 분열주의자, 스파이, 서울파, 제주도지역 편파주의자 등의 명목으로 공격하였다.<sup>199)</sup>

이에 김문준은 성명을 발표해 정면으로 반박했다.<sup>200)</sup> 그는 기존의 재일조선노총이 민족운동과 계급운동 둘 사이에서 운동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은 것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것은 그때까지 재일조선노총의 한계로 인해 노동운동이 분산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201)</sup>

결국 이 논쟁은 반대파였던 김호영이 오사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김문준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실업자와 가두분자를 배제하여 미조직 대중에 배치하기로 한 위원회 지령이 초래하는 해석상 오류'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재일조선노총 중앙세력이 오사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던 김문준 등이 자신들을 배제할까 선제공격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4일 중앙에서 김두용·이의석·임철섭·김호영·이운우·김추신 등 간부 10명이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김문준은 전협조선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4월 8일 오사카조선노조를 해소해 독자적으로 5월 29일 '전협 화학 오사카지부'를 창립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김문준 등 오사카운동세력은 이 기회에 도쿄 지방의 운동세력과 결별하고, 자체 내 운동가의 세대교체를 통해 독자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sup>202)</sup>

특히 동성구 고무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사카 조선인 화학노동자를 재조직하면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었다. 오사카에는 고무공장에 필적하는 유리공장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오사카고무공조합만이 전협 화학노조 오사카지부에 가입한

198) 정혜경, 앞의 책, 2001, 307쪽.

199) '스파이 투기주의자 김문준 등의 책동에 대해서 檄한다.' (1930년 1월 18일); '스파이 사회투기주의자 김문준 일파의 정체- 전투적 대판의 노동자제군에게' (2월); '조몽구·심춘경·현호진·김용해 일파는 선별된 김문준의 부하들'이라고 공격하였다; 高峻石, 앞의 책, 1985, 83쪽; 김인덕, 앞의 책, 1996, 317쪽.

200) 법정대학대원사회문제연구소 뼈라에 따름;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72쪽.

201) 1930년 2월 28일「再び 聲明する」(일본 법정대학 대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정혜경, 앞의 책, 2001, 303쪽 재인용; 김문준은 "우리 재일본 조선 노동운동은 일국 내에서 개별적인 기점(공장경영)으로부터 전 운동선에 걸친, 전형적 민족별 운동이고 그 자체가 가내공업적 분산이다. (이 운동은) 1개의 기점에서 조차 두 가지 지도가 있거나 공동투쟁이나 대립투쟁과정을 겪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중략)… 전선의 원칙적 혼란이다. 계급분리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이중적 공동투쟁에 빠진 민족적 틀 속에서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이러한 운동양상은) 국제적으로 부여된 조직단위를 몰각하는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202) 정혜경, 앞의 책, 2001, 308쪽.

것을 보면, 오사카의 전협 운동이 주로 동성구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문준이 일본공산당에 들어가고 전협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1930년대 오사카에서 활동을 했던 장정수의 증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異國에 와서 차별로 고통 받던 조선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있던 부락민과 공산당원, 사회주의자뿐이었다. 합법노동단체였던 ‘총동맹’에서도 ‘조선진’이라면서 차별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노동조합 단체들도 노동자들과는 괴리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03)</sup> 더구나 노동자들은 사회의식이 높아졌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장정수의 증언을 직접 확인해보자.

자신들이 왜 조선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일본에 뜻을 품고 왔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가? 나라가 없어서이다. 어째서인가? 일본 식민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저항해서 3·1독립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을 일으켰는데 안됐다. 게다가 관동대지진에서는 조선인이 많이 학살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모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운동해야한다. 우선 첫 번째로 민족이 독립해야 한다.<sup>204)</sup>

이러한 의식은 일본공산당이나 전협의 ‘식민지 해방 목표’ 슬로건에 동참하게 했다. 전협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일본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우리 조선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인은 이론적 뒷받침도 없고 의식수준이 낮아서, 거의 행동대 즉 “兵隊役”이 많았지만 ‘목숨 걸고 투쟁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의지’였다고 하였다.<sup>205)</sup> 이러한 의식은 이론으로 무장된 사상가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이 아니었다. 경험을 통해 민족정신을 기르고 식민지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문준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같은 산업별로 연대하면 더 급진적인 투쟁을 할 수 있으리라 보

203) 張錠壽, 『在日60年-自立と抵抗』, 社會評論社, 1989, 72-73쪽.

204) 張錠壽, 앞의 책, 1989, 73쪽.

205) 張錠壽, 앞의 책, 1989, 71쪽, 74쪽.

았다.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민족 해방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으리라 보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협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한계점도 있었다. 예를 들면 산업별 조직은 자유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더구나 특고경찰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전협 가입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 결과 1929년 12월 말 재일조선노총의 조합원 수가 2만 3,530명인 큰 조직이었는데 반해 1930년 10월 말 전협 가입자 수는 2,663명에 지나지 않았다.<sup>206)</sup> 전협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총동맹 등 일본 합법조합, 소비조합이나 동아통항조합 등으로 옮겨갔다.<sup>207)</sup>

김문준은 고무공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쟁의 중심의 일본공산당 산하 전협 활동을 하였다. 전협으로의 전환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를 낳았다. 연대 초창기에는 3·1운동 기념일 공동 투쟁<sup>208)</sup>과 노동쟁의가 중심이 되었다. 김문준이 검거된 후 언론에서는 최초로 검거된 일본 공산당 조선인 당원으로 그를 소개하였다. 당시 같은 지면에 도주 중이었던 제주 출신 강문석의 이름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김문준과 강문석이 같은 시기에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09)</sup>

1931년 전협은 재일조선인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조선인 조직으로서 민족부를 설치하고, 실업자 운동의 조직화에 관심을 쏟았다.<sup>210)</sup> 이로 인해 전협 내 조선인 조합원 수는 점차 늘어나 오사카지부에만 1931년 1,479명, 1932년에는 2,394명이 되었다. 김문준이 검거된 후 오사카 전협을 이끌었던 조몽구를 중심으로 했던 활동을 살펴보면 각종 기념일 투쟁, 메이데이 참여, 6·10 만세기념일 참여, 국제 반전 데이, 국치일 시위, 관동대지진 기억 투쟁 등이 있다. 1931년에는 「3월 1일 조선 독립건 기념일에 데모스트로 식민지 독립운동을 지지 응원하자!」는 격문을 통해 시위를 선동했고, 8월 29일 국치일 시위에서는 뉴스와 격문을 통해 시위를 하였다. 8월 29일 당일 오사카시에 「전 노동자는 일한병합의 국치기념

206) 高峻石, 앞의 책, 1985, 82쪽.

207)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앞의 책, 1989, 1373쪽.

208) 1930년, 전협은 3·1운동에 대해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어 독립을 절규하며 시위투쟁을 일으킨 날로 보았다(「3月 1日 萬世\*件 記念日に際して檄す」, 早稻田大學 소장;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39쪽).

209) 「注目される朝鮮人黨員盛んに活動す」, 『朝鮮新聞』 1931년 4월 1일자.

210)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25쪽, 43쪽.

일을 데모와 스트라이크로 싸워라」는 격문을 뿌렸다.<sup>211)</sup> 또한 1932년 오사카지부 협의회 명의로 ‘조선독립만세!’라고 적힌 배라를 오사카 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선박에서 살포하기도 하였다.<sup>212)</sup>

1930년대 전반기 전협은 어떤 조직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에 일본 내 무성 경보국은 1933년 5월 전협을 국체를 변혁시키려는 목적의 단체로 규정해 치안유지법으로 전면적 탄압을 실시하였다. 결국 1934년 전협 조직은 급속히 와해되었다.<sup>213)</sup> 오사카에서의 전협 활동은 在오사카 조선인의 역할이 컸다. 전협 활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도 1930년대 이후 각종 소비조합의 형태로 생활권문제와 민족정신 지키고자 노력을 이어갔다.<sup>214)</sup>

---

211) 『社會運動の狀況』 1932, 1496쪽;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41쪽 재인용.

212) 『社會運動の狀況』 1932, 1491쪽;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40쪽 재인용.

213)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32쪽.

214) 정혜경, 앞의 논문, 2001.

## IV. 언론운동과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

### 1. 『민중시보』 발행과 그 의의

김문준은 1930년 8월 8일에 검거되어 1932년 4월 12일 오사카구재판소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는 수형생활 중 병을 얻어 1934년 3월 2일 병보석으로 출옥했다.<sup>215)</sup> 하지만 그가 출옥하였을 때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조몽구 등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치안당국의 탄압으로 전협 활동은 거의 와해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문준은 오사카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인 『민중시보』 발간에 마지막 힘을 쏟았다. 기존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들이 도쿄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민중시보』는 조선어로 발간해 독자층을 노동자들에게까지 넓혔다. 노동자들에게 시국 상 민감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의 목소리와 사정을 반영하였다.<sup>216)</sup>

#### 1) 『민중시보』 발행

김문준은 신문 예고편에서 직접 신문발간의 ‘취지와 목적’<sup>217)</sup>을 밝혔다.

현하 일본 내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은 京阪神 지방만 하여 30만 명을 算하고 있다. 그런대 언어 습속의 상이와 무지와 문맹과 빈곤과 분산과 무권리와 특수성에 따르는 생활 문제에 있어서 조선인 자체로서의 언론기관을 요구함이야말로 실로 절실한 것임은 누구나 긍정하리라(후략).

하나. 우리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 민중의 생활 진상과 여론을 보도하는 不便(필자주:偏)不黨적 언론기관으로의 존립과 성장발전을 期함.

하나. 우리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 민중의 생활개선과 문화적 향상을 촉진함을 期함.

215) 「전협관계의 김문준군 출옥」,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2일자.

216) 합법적 신문으로 『민중시보』와 함께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도쿄조선민보』(1934년 11월1일자-1937년 8월 17일자, 재일노총 김호영이 편집 담당), 『조선신문』(1936년2월-7월/재일노총 참여했던 사회주의자인 이운수·박태을·김천해 등이 간행담당)이다(外村大, 앞의 책, 2010, 309-310쪽).

217) 朴慶植, 「민중시보 발행취지 및 강령」, 『조선문제자료총서』 제5권, 국학자료원, 1992, 531쪽.

하나. 우리는 일본 내 거주하는 조선인 민중의 생활권 확립과 그 옹호 신장에  
資함을 期함.

김문준의 활동은 노동자와 在오사카제주인이라는 기반을 뛰어넘어 京阪神 지  
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는 당시 상애회 등의 친일정치단체들이 난립하는 시  
기에 민중의 생활 진상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신문이  
추구하는 바는 첫째, 당파적이지 않는 것이었다. 사상단체의 힘이 퇴색되기도 했  
을 뿐더러 그는 단체 내 파벌갈등이 대중들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함을 전협으로  
전환했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둘째는 조선인 민중의 생활개선과 문화적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었다. 『민중시보』는 여타 단체와 함께 관서지방의 거주민들과 학우회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행사, 체육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보도했다.<sup>218)</sup> 셋째는 민중  
의 생활권 확립과 신장을 목적으로 했다. 이 활동은 김문준이 오사카조선노조에  
있을 때부터 주력해 왔던 것으로, 조선 본국과 일본, 농민과 노동자 양쪽의 모든  
상황을 보도해 실상을 전달하였다.

『민중시보』 발간을 주도했던 주체는 김문준을 비롯해 사회적 인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일보 외보부장이었던 洪陽明은 축전에서 ‘사업의 규모보  
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경모하는 선배들이어서 기대가 된다.’<sup>219)</sup>고 하였다. <표7>은 『민중시보』를 시작  
한 同人들의 이력을 나타낸 표이다.

218) 秋水子, 「職業的 運動精神을 排擊하자」, 『민중시보』 4호, 1935년 8월 15일자; 「京都 朝鮮人 留  
學生 學友會의 歌劇大會開催 23일 同志社大學 榮光館에서」, 『민중시보』 10호, 1935년 11월 15일  
자; 「東亞, 朝鮮, 中央 三新聞社 大阪支局과 本社後援으로 在留同胞 위한 音樂演奏會 朝鮮 藝術  
界의 精華 三十餘名 出演, 京阪神 三大 都市에서 演奏」, 『민중시보』 16호, 1936년 2월 1일자 등  
기사가 다수 보인다.

219) 『민중시보』 창간호, 1935년 6월 15일자, “言論機關의 指導者가 되소서”; 洪陽明(본명은 洪순기  
이다, 1896-1950)은 제주 삼도리 출신으로 1919년 경성고보 1학년 재학 당시 3·1운동을 겪었다.  
1927년 제주 출신 고경흠과 동경에서 무산자사를 창립하였다. 1928년 고려공산청년회 제주도 야  
체이카 책임자가 되어 이때 이영 일파에 속했다. 1928년 4월 24일 검거되어 1930년 5월 15일 치  
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 이 후 1931년 10월 『조선일보』 상해  
특과원으로 갔고, 조선일보 외신부장으로 만주로 들어갔다(김찬흡, 앞의 책, 2005, 532-534쪽; 강  
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 552쪽; 이 두 책에서는 생몰연대에 상이점이 보이나 본고에서는 생  
몰연대가 확실히 표기되어 있는 김찬흡의 연구를 따르겠다).

< 표7 > 『민중시보』 동인 이력<sup>220)</sup>

연번	이름	활동 이력	출신지
1	김문준 (대표간사)	1) 동아일보 총무겸 기자 2) 재일노총, 신간회, 전협, 동아통항조합	제주
2	김경중	1) 재일노총, 오사카조선노조 서부지부 지부장, 신간회, 한 신소비조합장	미상
3	김광수	1) 「조선일보」 오사카 지국장, 「동아일보」 동경 특과원 - ‘박 열사건’취재 2) 정우회 집행위원, 전협 산하 일본출판노조 활동	전라도
4	김달환	1) 재일노총, 신간회, 조선무진, 삼일청년회, 泉州[센슈]일반 노동자조합	미상
5	김정국 (현상호)	1) 「동아일보」 오사카지국장 (1932.1월자)	제주구좌
6	정재영	1) 대동소비조합장 (1929년부터)	미상
7	정태중	1) 『민중시보』 교토지사장, 「조선일보」 구례지국 운영 2) 교토조선인친목회	전남구례
8	이호태	1) 매일신보 오사카지국장 2) 정우회, 신간회(제2회 정기대회)	미상
9	박윤석	1) 조선중앙일보 오사카 지국장 (1930.10-도일)	경남진주
10	박봉주	1) 『민중시보』 고베지사장, 조선일보 고베지국 2) 전협, 서신 소비조합	군산
11	홍순일	1) 「동아일보」 기자 2) 재일노총, 신간회 2) 특이사항: 홍양명과 사촌	제주

위 <표>에 보이는 同人들 11명 중 8명이 언론사 관련 경력이 있었다. 언론관  
련 이력이 없는 동인들은 김문준과 재일노총 및 신간회 활동, 소비조합 활동이라  
는 접점이 있다. 확인된 바로는 이 중 제주인은 김정국(본명은 현상호)과 홍순일  
만으로 이 신문은 지역분과적인 성격이 배제된 동인으로 구성되었다. 『민중시보』  
관련자들의 상당수가 이후 1936년 4월 29일에 있었던 ‘京阪神 조선인문제 좌담  
회’에 참석했다. 이것으로 『민중시보』 관련자들이 관서지방 전반에 지도력을 가  
지고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sup>221)</sup>

『민중시보』는 월 2회(1일, 15일)정기 발행했고, 실비로 유지되었다.<sup>222)</sup> 이러한  
방침은 京阪神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켜, 일본당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500  
부가 발간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신문은 관서지방에서만 유통된 것은 아니었다.

220) 外村大, 앞의 책, 2010, 310쪽 [표4-9]를 참고하여 제작성 하였다.

221) 外村大, 앞의 책, 2010에 의하면 ‘경관신 조선인문제 좌담회’에 참석했던 『민중시보』 관련자는  
동인이었던 김경중, 김광수, 정태중과 투고자였던 임정엽(제혁공장주), 주익순(의사), 문중수(목  
사), 이민선(직공), 이신형(기자)이 있다.

222) 1936년 1월 1일 13호부터는 순보로 발행했다.



오사카의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편지 대신 『민중시보』를 보내기도 했다. “(어머니께:필자주) 오사카[大阪]에 사는 조선 노동자의 형편이 모두 쓰여 있으니깐 이것(민중시보: 필자주)을 읽고 나면 형님의 형편도 알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지요.”<sup>223)</sup>라는 회신은 『민중시보』가 얼마나 노동자의 실상을 잘 다루었는지를 보여준다.

『민중시보』<sup>224)</sup>의 구성은 총8면으로 이루어졌다. 1면에서 2면에는 국제관계와 국방문제, 미신타과 등의 민중계몽논설을 다루고, 3면에서는 출옥한 조선인 좌익관계자 한문택·정우생·설상열·조몽구의 행보와 좌익사상단체의 동향을 알렸다. 4면에서 5면은 주로 關西지방의 소식들로 소비조합 등의 각종단체 소식이나, 교육, 보육 등 교육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수해,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사건으로 생기는 동포 이재민에 대한 기사를 내거나, 이를 도운 이들을 찬사하는 글을 냈으므로 대중들의 도움을 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6면은 탐사보도, 7면은 민중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주고, 8면은 공장생활의 실상, 딱한 사정 시리즈 등 곤경에 처한 민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2) 『민중시보』의 특징과 의의

김문준은 ‘신문인으로서’라는 글에서<sup>225)</sup> 많은 관심에 대한 감사와 포부를 알렸다. 또한 발행 초기 신문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의도를 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한 예가 在오사카 조선인 단체였던 ‘소라친우회’의 방청경험 기사

223) 「형님에게」, 『민중시보』 3호, 1935년 8월 1일자.

224) 『민중시보』는 총 27호까지 발행되었다(5, 9, 11, 21, 22, 24, 25, 26 缺号). 이 중에 현재 남아있는 19권을 분석하였다.

225) 「新聞人으로서 -木牛-」, 『민중시보』 3호, 1935년 8월 1일자; “쓸 곳이 없는 病軀를 민중시보에 받친 지 얼마 안 되어/지령조차 인재 겨우 3호를 겨뉘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벌써 또 비난과 하사(축하의 글)가 좌우로 협공하여 힘 있는 편달을 액기지 안는 것을 보고 필자는 석념(아끼는 생각)을 더하는 바이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 1, 2는 판독불가) 셋째, 빗발치듯하는 하사의 총의는 이때까지 이 고장에서 언론보도에 굶주리든 하소연.....대체로 이상과 같다. 여긔잇서서 필자는 다음과 가티 언명코저 한다. 1. 본보에 대한 비난과 거절에 대하여는 그의 당부를 물론하고 타산의석으로 해서 배승해 두겠다(필자주:잘 받아들이겠다). 필자는 편집에 잇서서 그 배 이상의 그지없는 자체불만을 가지어 잇고, 원래부터 「먹칠한 조○○」이 안인 신문을 발행코저 한지 오래니...(판독불가)/ 2. 본보발행에 대한 하사는 과분한 것도 만타는 것만을 특히 일언하여 두는 바이다./ 3. 현재 본보로서 당면한 초미의 문제는 재정의 기초가 엷는 것, 강건정예한 기자를 얻지 못한 것, 판매망 통신망이 확립되지 못한 것 등등./ 이상의 모든 점을 고(?)려(?)속에 너코서 본보의 ○상에 열심을 가지고 잇는 제군은 헌신적으로 본보의 전반적 사업에 참가하여줄 것/본보의 유일한 재원인 지가는 독자제군의 역시 유일한 부담인 것을 양해할 것 등등을 제언하는 바이다”(원문대로 작성함).

이다.<sup>226)</sup> 글쓴이는 ‘경과보고는 일본말로 하고 축사는 통역하는 것이 익살이 아니면 년센스라 할까’, ‘한 단체의 1년차 1차 정기총회라고 해서 대중의 생활문제는 짝 빼어버리고 간부의 인물 자랑하는 것뿐이니 이게 다 뭐야!’라는 참석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난립하고 있던 정치단체들이 민중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 대한 일갈이었다.

소라친우회가 이 기사 때문에 『민중시보』 측에 이의제기와 함께 법적 책임을 운운했다. 이에 대해 김문준은 3호에서 ‘본보 주간의 언명’이라는 글을 써서, 「민중시보가 ‘소라친우회’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인 불만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sup>227)</sup> 또한 김문준 자신이 발행인으로 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글을 쓴 방청생을 보호하였다. 이러한 김문준의 발언은 이국에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어떤 피해를 볼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으로 『민중시보』는 독자들에게 환영받았고, 독자가 곧 기자가 되는 소통의 지면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강원범이<sup>228)</sup> 전협 활동을 하다가 전향하는 것을 약속하고 풀려나온 상황에서 東大阪지구 배포를 담당한 것은 같은 동향인 김문준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또한 감시는 일상이고 신문이 발간되는 즉시 처분되는 상황<sup>229)</sup>에도, 배포 전에 한 부라도 숨겨 놓아 경찰 단속을 받더라도 한 부는 남기자는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그가 경찰에 끌려갈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민중시보』를 숨겼던 것이다. 이것은

226) 『민중시보』 2호, 1935년 7월 25일자.

227) 「본보 주간의 언명」, 『민중시보』 3호, 1935년 8월 1일자; “ — 본보는 소라친우회와 그 간부에 대하여 아무런 사사로이 싫어함이 없다 / — 본보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특정한 단체만을 문제로 할 이유가 없다 / — 사회적 여론과 비판을 소개함에 있어서, 내가 발행인으로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 —. 소라 친우회 간부들이 말하는 바에 해당하는 사실은 전연 업는 것이인 동시에 조사해 본 결과 만일 그것이 사실이면 사로서 그네의 책임에 대하여 단호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사회와 법률에 대한 사로서의 책임을 지겠다. / —. 소라친우회 간부는 본보의 기사에 있어서 불복되는 점이 잇거든 언제나 지면으로 그것을 표시하기 바란다. 그런데 긴급히 조사해 본 결과는 그대들의 말이 사실무근임이 판명되었다.”

228) 강원범씨에 의하면, 김문준씨는 1936년 9월 25일 편집원들이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독한 상태에 빠져 수감 중에 사망할 것을 두려워했던 치안 당국이 석방했지만 그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언론과 왜정보고서에 1936년 5월 22일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김문준이 사망 전에 『민중시보』와 관련하여 체포 된 일이 있을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金贊汀, 앞의 책, 1985, 17-18쪽).

229) 1935년 12월 1일 발행한 신문은 1935년 12월 26일에(『사상회보』 6호, 昭和十年自十月至十二月 朝鮮文新聞差押表(治安妨害), 230쪽), 1936년 6월 1일자 신문은 6월 12일(『사상회보』 8호, 昭和十一年自四至七月間朝鮮に於けて爲したる出版物, 200쪽)에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수거하여 처분되었다.

이 신문이 또 다른 항일운동의 상징이었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민중시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문의 성격과 특징을 확인해보겠다. 첫째, 이 신문은 항일적,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신문 기사에서 일본이 전체주의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sup>230)</sup> 또한 조선인에게 강제송환을 단행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sup>231)</sup> 아울러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항일 열기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다.<sup>232)</sup>

둘째, 이 신문은 사회주의적 성격의 언론이다. 국제적 동향이 좌익운동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국제소식과 일본 육군대신의 동향을 함께 다루고 있다.<sup>233)</sup> 또한 국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나 검거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검거되어 수감생활을 끝내고 나온 공산주의 운동가들의 향후 동향까지 보도했다.

셋째, 노동자 중심적 언론으로, 계속되는 탄압으로 노동쟁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노동운동에 일조하고 있다. 카쿠이치[角一]고무공장 쟁의 기사를 통해 ‘임시공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sup>234)</sup> 이 외에도 공장에서 생기는 유행병, 공장 직원들의 공장생활 이야기, 국내 노동 실태, 노동자의 실직문제 등을 신문 전체에서 많은 부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넷째, 이 신문은 특별히 관서지방 거주하는 제주인을 독자층으로 삼았다. 해녀들의 경험담이나 제주-오사카 항로에 대한 보도가 있다. 또한 제주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도나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정에도 토장하기 위해 선임 5배를 지불하고 군대환으로 귀향하는 민중들에게 화장을 하고 토장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고<sup>235)</sup> ‘제주 중학 기성운동’에서 의문점을 제시하며 제주출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sup>236)</sup>

230) 「國際的 抗議를 惹起한 코민테른 大會의 內容判明 反팻쇼 戰線統一에는 第二 인터와 提携 世界赤化에는 廣範한 左翼勢力을 糾合」, 『민중시보』 6호, 1935년 9월 15일자.

231) 「朝鮮人에 對한 強制 送還을 斷然 閉止하라! 그 弊害는 莫大하다!! 民衆의 不安 恐怖는 深化하고 殘留家族의 生活은 目不忍見」, 『민중시보』 6호, 1935년 9월 15일자.

232) 「時局따라 伸長하는 反滿·抗日熱 各處에 檄文 算布 黨員 侵入」, 『민중시보』 17호, 1936년 2월 21일자.

233) 「七國海軍會議 今秋에 開催될 듯」, 『민중시보』 창간호, 1935년 6월 15일자.

234) 「注目되는 角一고무 工場 爭議, 임시공을 본고로 해다오, 대관지방에서 처음 일」, 『민중시보』 2호, 1935년 7월 15일자.

235) 『민중시보』 2호, 1935년 7월 15일자.

236) 『민중시보』 6호, 1935년 9월 15일자.

김문준은 병이 심해져 1936년 5월 22일 43세의 나이로 사망했기에<sup>237)</sup> 『민중시보』는 기자였던 이신형<sup>238)</sup>이 대신 주간을 맡아 1936년 9월 20일 27호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속으로 9월 25일 『민중시보』 편집원들 전원이 검거되었고, 결국엔 11월 1일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신문은 공산주의자 간의 과별이 느껴지지 않는 민족통일전선 성격의 언론이었다.<sup>239)</sup> 또한 지방차별이나 지역별 대립에 대해 비판하며 형제간의 싸움이 결국 전체의 과멸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종파적이고 분열적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생각해 볼 것을 강조하며, 연합과 단결을 제창하고 있다.<sup>240)</sup> 이 신문의 내용과 특징은 김문준의 사상을 보여준다. 김문준이 추구했던 궁극적 목표는 독립이었다. 특히 노동자 등의 민중들을 독립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아울러 방법에 있어서는 민중들끼리의 단합을 강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김문준의 영향과 제주사회운동의 발전

오사카 치안당국은 오사카 사회운동가인 김문준의 영향력에 대해 극히 경계하였다. 또한 오사카 사회운동과 제주 사회운동이 연계되고, 사상이 제주도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오사카의 구 재판소 三木今二 검사의 보고서에도 잘 드러난다.

아래 글은 오사카 구 재판소 검사 三木今二의 보고서이다.<sup>241)</sup>

①고순흠의 뒤를 이어 제주인의 사상운동을 지도한 것은 김문준이다. 김문준은 1927년 7월 도일했다.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 출신으로 ②그는 공산주의 이론에 밝고, 홀연 오사카 한국인 노동운동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는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의 상임위원이 되어 ③在오사카 제주도인을 규합하여 기반을 굳게 하고,

237) 『독립유공자공적고서』, 『독립유공자공훈록』 (공훈전자자료관 검색).

238) 이신형은 1910년 생, 제주 조천리 출신으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했다가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후 오사카로 건너왔고, 민중시보 기자로 활동했다. 김문준이 사망한 후 『민중시보』 주간을 맡았지만, 폐간과 동시에 검거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1941년에 김문준의 둘째 딸인 김정희와 결혼했다.

239) 谷合佳代子, 앞의 논문, 1985, 18-20쪽.

240) 『민중시보』 6호, 1935년 9월 15일자.

241) 三木今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 『司法研究』 第17輯의2, 1933; 제주도, 앞의 책, 1996, 152-153쪽에서 재인용.

④전남 완도 출신 서울계인 정창남과 함께 화요계와 투쟁하며 제일 한국인 노동운동의 패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이에 ⑤제주도 출신 노동자는 거의 김문준의 지도 아래 있고 극좌운동의 주력은 제주도민의 손에 있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첫째, ①, ②에서 김문준이 공산주의 이론가로서 제주인의 사상운동을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③, ⑤에서는 김문준의 활동 기반이 제주인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지도력은 제주인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에서 그가 완도 출신 서울계인 정창남<sup>242)</sup>과 연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전술하였듯이 김문준이 ‘서울파’ 계열과 관련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43)</sup> 하지만 ④처럼 제일 한국인 노동운동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다는 것은 치안당국의 입장에서 파벌싸움으로 왜곡시키고자 의도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三木今二가 ‘오사카 지방에서 조선인 문제를 고찰할 때 제주도민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1920-30년대 오사카 내의 전셋집 쟁의, 노동 쟁의, 동아통향조합 운동, 소비조합 운동 등은 제주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sup>244)</sup>

특히 동아통향조합은 1929년 4월 김문준 등을 중심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로’를 슬로건을 걸고 설립되었다.<sup>245)</sup> 설립 초기에 소비조합의 성격을 띠었던 동아통향조합<sup>246)</sup>은 1932년 전협 화학 오사카지부와 동아통향조합의 김달준 등이

242) 鄭昌南(鄭東波)(1900-1978) 1918년부터 전남 소안도(所安島)에서 중화학원(中和學院) 교사로 재직, 1922년 도일하여 노동운동에 투신함. 그러던 중 소안학교 폐지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1927년경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중,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192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 2006; 공훈전자자료관 검색).

243) 김인덕은 김문준의 ‘서울파’ 논란에 대해 파벌적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김인덕, 앞의 책, 1996, 290쪽), 정혜경은 서울파와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다(정혜경, 앞의 책, 2001, 252쪽).

244) 1923년 내지 조선인의 본적 조사에 의하면 제일조선인 전체 72,815명 중 오사카부가 21,984명이고, 그 중 전남을 본적으로 가진 이가 11,35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사카 내 활동에서 제주인이나 조선인이나는 거의 동일시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大正12年中の調査に依る大阪市社會部調査課朝鮮人勞働者問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其犯罪に就いて』, 1927).

245) 동아통향조합운동은 제주-오사카 항로를 거의 독점하는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부가 경찰과 결탁해 기미가야마루[君ヶ代丸]의 운임을 12엔 50전까지 인상시킨 것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 4월 21일 중앙공회당에 약 2천명을 모아 설립대회를 열었다. 동아통향조합은 제주출신자인 김달준, 문창래, 현길홍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金贊汀, 앞의 책, 1985, 220-221쪽, 김한봉씨 증언; 99쪽, 고영순씨 증언).

246) 1932년 2월말에 조사한 「재류조선인 주요단체현세일람표」에서 동아통향조합은 기타 민족주의계 단체로 분류되었다. 현길홍이 대표자로 그 회원 숫자는 10,000명에 달했다. 일본당국이 조사한 극좌파(694명), 좌익파(1,727명), 민족주의(294명) 단체의 회원 수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협의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과격하게 변했다.<sup>247)</sup> 1932년 5월 제3회 동아통항조합대회에서 '계급투쟁 속에서, 직접노동자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항의 일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독립한 대중적 투쟁조직'<sup>248)</sup>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전협 지도부의 방침으로 '동아통항조합은 제주인을 넘어선 전 도항노동자농민조합이고, 伏木丸이 무산계급의 배여야만 한다.'고 선언하며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로'라는 슬로건을 쓴 흰 장막을 내걸고 운항했다.

이에 치안당국은 기존의 민족주의계열의 조합으로 인식하던 동아통항조합을 극좌 단체로 판단해 탄압하기 시작했고<sup>249)</sup> 조합원들은 제주도 본섬의 청년들과 제휴를 시도하며 더욱 단결하는 형태를 띠었다.<sup>250)</sup> 또한 3회 정기대회로 인해 동아통항조합은 「뉴-스」 등 문서 활동, '문맹퇴치', 차가인동맹이나 소비조합, 의료동맹, 노농구원회운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통항조합운동이 전협 운동화 되어갔다.<sup>251)</sup> 따라서 일본당국은 동아통항조합을 전협의 산하단체라고 간주했다.

오사카에서 노동운동, 소비조합운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민족독립이나 해방을 향한 義氣는 없고, 대부분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sup>252)</sup> 제주로 돌아가 제주도민에게 투쟁적인 경험과 사회사상을 흘릴 것<sup>253)</sup>을 오사카와 제주도당국은 경계했음이 틀림없다.<sup>254)</sup> 일본 치안당국은 제주도민의 도일을 규제할 것을 제주도청에 요구했고,<sup>255)</sup> 제주도청은 1933년 1월부터 1934년 4월 사이에 청장년층이 도일해 제주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일 희망자 중 2/3 정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247) 『특고월보』 1932년 5월.

248) 「동아통항조합제3회정기대회의안초안」, 『재일조선인사연구』 제7호, 1980년, 147쪽.

249) 朴慶植, 앞의 책, 1979; 요시우라 오키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통항조합이 강문석(姜文錫) 등 극좌 분자의 개입책동으로 인해 그 행동이 현저하게 침해해졌으며 민족주의 단체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단체로 전환한 듯한 상황이었다고 한다(「1939년도 사상특별연구원 판사 요시우라 오키라(吉浦大藏) 보고서」, 사법성 형사국, 『재외동포사 총서 12 일본 한인의 역사(자료집)』).

250) 金贊汀, 앞의 책, 1985, 221-222쪽.

251) 「동아통항조합제3회정기대회의안초안」, 『재일조선인사연구』 제7호, 1980년, 149-152쪽; 일본당국은 동아통항조합을 전협의 산하단체로 간주해 1932년 후반부터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아통항조합은 1934년 1월 29일 막을 내렸다.

252) 高峻石, 앞의 책, 1977, 111쪽.

253) 三木今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 『司法研究』 第17輯の2, 1933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내지로 건너와서 그들의 운동에 영향 받아, 또 도민의 성격이 투쟁성이 풍부해진 것과 동시에 제주도에도 역시 최근 사회사상이 흘러들었다.'라고 되어 있다.

254) 『조선조일』 1932년 1월 27일자; '제주도는 대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들 선동자의 대부분은 거의 대관 방면으로 출가 중, 노동운동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의 전술도 내지로부터 직수입한 지극히 교묘한 것이다.'

255) 이준식, 앞의 논문, 2002, 17쪽.

하지만 실상은 민족 해방적이고 계급적인 운동이 제주도와 결합해 제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sup>256)</sup>

1934년 경무국에서는 “최근 출옥한 關西在住의 좌익운동 지도자 김문준 등을 중심으로 한 일파가 재건운동의 근거지를 제주도에 두고 획책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sup>257)</sup>고 판단해 사상운동 사찰망을 더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김문준 등을 중심으로 한 일파가 누구였을까? 다음의 <그림 4>는 김문준의 전체 활동과 관련된 인물의 계보도이다. 이 계보도를 중심으로 김문준과 관련된 구체적 인물들의 해방 前後 활동을 <표8>에서 <표11>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첫째, 김문준과 재일노총, 신간회활동, 오사카조선노조, 전협 활동을 함께 했던 인물들의 행적은 <표8>과 같다.

< 표8 > 오사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제주인<sup>258)</sup>

연번	이름	생몰년	고향	관련내용	해방 前/後	활동내용
		도입시기		受學		
1	조몽구	1908 ~1973	표선면 성읍리	정의공립보통학교 제자 재일노총, 오사카조선노조, 신간회	前	-오사카조선노조, 신간회, 전협, 동아통항조합 참여
		1928년 8월 도일 - 1935년 귀향		정의공립보통학교 경성고등제1보통학교	後	-남로당 제주도당 결성되자 조직부장 -조선공산당 제주도당부 부위원장 선출(1946) -4.3사건 당시 소장파의 무장봉기에 주장에 반대해 무혈 혁명 주장, 과격파에 밀려 몰래 제주에서 탈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참석(1948, 해주) -북한의 실상에 실망, 6.25전쟁 시 남하해 부산에서 은신 중 제주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1951) 8년형 -출옥 후 돌아오니 4.3사건 직후 토벌대에 의해 처, 자식 모두 피살됨.
2	현호진 (김태련)	1907 -1948	성산읍 성산리	나가야 우지회, 동아통항조합, 전협토건,	前	-1930년 11월 전협화학오사카지부 책임 조몽구의 소개로 가입하여 화학 플렉션으로 효고현에서 조직 활동에 힘씀. -長屋(나가야)友之회(셋집살이하는 사람들 모임) 조직 → 집세,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의 인하, 면제 투쟁을 벌임 (1934.4.) -전협 토건 간사이지부(1933)-검거
		1925.10 도일		성산공립보통학교	後	행적 불분명.
3	김용해	1902-?	애월면 하귀리	신간회(1929)	前	- 신간회
		1922년 도일(?) 1944년 귀향		제주농업학교 1년 수료(1922)	後	-건준 애월면 위원장에 피선, -제주도건국준비위원회 산업부장(1945)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 부의장 (1947) -1947년 3·1절 기념행사 때 좌익계 지도부로 파업 투쟁 돌입 때 검거됨.(1947.3.4.)

256) 梶田一二, 「濟州島人の内地出稼ぎに就いて」, 『大塚地理學會論文集』 5집, 대충지리학회,古今書院, 1935, 33-35쪽.

257) 『동아일보』 1934년 3월 27일자.



						-미군정당국에 의해 석방 후(3.7) 제주도를 떠나 당적을 목포로 옮겨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짐.
4	현 호 경	1909 ~1949	성산읍 성산리	일본공산당, 전협	前	-1931년 8월 전협화학오사카지부에 가입, 오르그로 활동 -간사이지방위원(일본공산당) 입당 : 당세포 및 대중단체 플렉션으로 문서 살포에 종사(1932.5.) -1932년 9월 당원 田中某의 권유로 입당, 그 이래 전중의 지도하에 뼈라 살포 등 투쟁에 참가. -1933년 3월 당원 小田切과 연락, 정세를 교환하며 생활비를 받음, 1933년 당내 지위는 동지구 오르그 겸 市委 책임, 1933년 4월에 검거되어 7월에 기소됨.
		1925년10 월 도일		해당 없음.	後	- '민전 결성대회' (1947.2.23.) - 남로당 목포시당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암살당함 (1949).

조선인위원회 간부파에 의해 김문준의 부하로 지목된 조몽구와 김용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조몽구는 1935년에 출옥한 후, 제주로 돌아왔다.<sup>259)</sup> 해방이 되자 남로당과 조선공산당에서 간부직을 맡았으나, 1948년 4.3 사건 당시에는 무장봉기를 통한 유혈혁명을 주장했던 소장파에 반대해 무혈혁명을 주장했다. 과격파 몰래 도망 나와 해주에서 하는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했다가 한국전쟁시 다시 내려와 부산에 은거하던 중에 제주도 경찰에 체포되어 8년형을 받았다.<sup>260)</sup> 또한 김용해는 1944년 고향으로 돌아와 제주에서 해방을 맞고서 곧 건국준비위원회 산업부장, 1947년 제주도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 부의장이 되었다. 1947년 3·1절 좌익계 지도부 파업투쟁 돌입 때 함께 검거되었다가, 3일 후 미군정당국에 풀려나자마자 제주도를 떠나 당적을 목포로 옮겨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진다.

258) 김찬흡, 앞의 책, 2005; 강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59) 「囹圄 生活 五年만에 趙夢九君 假出獄 去二十五日 德島刑務所에서」, 『민중시보』 1936년 1월 11일자.

260) 『자유신문』 1951년 11월 4일자.



둘째, <표9>는 동아통항조합과 관련된 제주인의 해방 전후 활동이다.

< 표9 > 동아통항조합 관련 제주인<sup>261)</sup>

연번	이름	생물 년도	고향	관련내용	해방 前/後	활동내용
				受學		
1	문창래	1885 ~1950	애월면 애월리	동아통항조합 회장 제주도민대회 대표	前	3·1운동, 상해임시정부로 독립군자금 기탁 동아일보 목포지국장(1920.4.) 민립대학 설립 제주본부 '감사'직 제주 도민대회 제주통항조합 준비위원회장
					後	1950년 부인과 함께 연행된 후 행방 묘연.
2	김달준	1905 ~1954	애월면 하귀리	신간회, 오사카 조선노조, 제주 도민대회 대표, 동아통항조합	前	(제주)일신학교 교사 -동아통항조합운동 서기 -제주도민대회 대표 역임 -제주도 농민요구투쟁동맹에 관한 테제 → 강창보 에게 보냄.
				서울 양정고등 보통학교, 일본 물리학교 중퇴	後	행적불분명
3	강문석 (김달삼)	1906~?	대정읍 안성리	동아통항조합 운동	前	-경기고보 졸업, 한남의숙 설립(모슬포, 1925) -도쿄로 건너가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 교류 (1928.4) -도쿄 일반 노동조합 가입 -1930년 4월 동아통항조합 결성에 참여, 전협 가입, 화학노조 상임위원으로 활동 -오사카 東成區 노동쟁의 가담(1931.10) -일본공산당 당원으로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중국 공산당 입당, 활동하다가 1932년 10월 다시 체포되 어 일본으로 압송됨 -1934년 5월 30일에 오사카공소원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됨 -'경성 콤파스'멤버(1939, 박현영)
				대정공립보통 학교 제주심상소학 교 경성고등보통 학교	後	-조선공산당 서기국원 겸 선전부장, -산업 노동조사소 소장 (박현영의 수족) -서울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군중대회 참석 (1946.1.) -조선공산당 대표해 일본공산당에 파견 -조선공산당 선전부장 및 중앙위원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중앙위원회에 피선 -남로당 제주도당부 조직대회에 참석 -사위 이승진에게 자기가 중국에서 혁명 운동 때 사용했던 가명 김달삼 사용하도록 하면서 남조선 혁명 지시함. -1948년 월북 후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 -1950년 노동당 중앙위 사회부장 -1953년 8월 노동당 중앙위 제3기 제6차 전원회의 상무위원. -1956년 남로당 종파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됨.

※현석현(부의장), 현길홍(성읍, 임시집행부), 김동인(조천, 임시집행부), 김달준(애월, 서기), 성자선은 기록이  
확실하지 않음.

문창래는 조천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을 보낸 적이 있으며, 오사카에 있을 때도 제주도민대회 대표와 동아통항조합장이 될 정도로 신망 받고

261) 김찬흠, 앞의 책, 2005; 강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있었다. 하지만 해방 후의 문창래의 행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김달준은 김문준과 함께 오사카조선노조활동, 신간회 활동을 함께 하다가 전협으로 이행 중 이탈하여 동아통항조합운동에만 매진하였다. 제주도민대회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으며, 동아통항조합운동의 서기를 맡았다. 하지만 이후 1932년 이후 전협과 연계하여 동아통항조합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유도하고자 한 인물이기도 했다. 일본 검찰 당국은 1931년 2월 ‘大阪에 거주하는 김달준 등은 제주도에 있는 강창보와 제휴하여...제주농민 요구투쟁 동맹의 조직을 계획하고 그 지도부로서의 대판지방 서기국을 설치하여 테제를 발표했다.’<sup>262)</sup>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1932년 1월의 해녀 투쟁의 배경에는 「구좌면 사회민중운동협의회」와 「오사카구좌청년연합회」가 공동투쟁 성격이 있다고 여겨 제주도와 오사카의 사상적 교류를 경계했다.<sup>263)</sup> 세 번째 <표10>은 『민중시보』와 관련된 제주 출신자들의 행적이다.

< 표10 > 『민중시보』 관련 제주인

연 번	이 름	생물 년도	고향	관련내용	해방 前/後	활동내용
				受學		
1	이 신 형	1910-?	조천읍 조천리	민중시보 기 자, 사위일본 오 사 카 에 서 1941년 김문 준 둘째딸 김 정희와 결혼	前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 독서회 창립멤버 -광주 학생항일운동, 광주지법 3년 6월형 선고받음 (1930);서대문형무소 -일본으로 건너가서 민중시보 발간에 참가 -『민중시보 주간』(김문준 사후), 민중시보로 체포-치안유지법 2년형(1936)
				전남공립사범 학교	後	-조선공산당에 입당(1945) -박헌영의 당 중앙에 반대해 당 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당내 대회파 지지(1946)
2	현 상 호 (김 정 국)	1914 -1971	구좌읍 하도리	민중시보 동 인	前	-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노농구원회(적구) 오사카지부(혁명가 유족 복지회 성격) - 전협 토건노조 오사카지부 - 1933년 치안유지법으로 1년 2월, 일본공산당 관서지방위원회(4월~6월) 재건운동 - ‘전셋집동지회’ - 『적기』 독자그룹(1934) - 1936년 검거 징역 2년
				하도사립보통 학교	後	- 제일조선인연맹(1945) : 오사카지부 외무부장 - 조련의 대변지 『해방신보』 사장(1950) - 『조선월보』, 1971년 8월 22일 生野區에서 사망
3	강 원 범	1909 -1980	서귀면 범환리	전협, 『민중시보』	前	- 전협화학(1933년 10월) - 고베 서부지구준비회 조사부 책임자. (1933년 8월) - 간사이지방위원회 전협화학플렉션으로 활동. (1934년) - 1934년 2월 검거되어 4월에 송국. - 전협, 조선일보 고베지국, 西神消組,
		1924 도일 /1934.4 강제송				

262) 三木今二,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 『司法研究』 第17輯の2, 1933, 155쪽.

263) 藤永壯, 앞의 논문, 1990, 102-104쪽.

		환		해당 없음.	後	- 『민중시보』 동오사카 판매소 오사카에 거주하다가 사망 <sup>264)</sup>
4	洪陽明 (홍순기)	1906 -1950	제주시 삼도리	『민중시보』 투고자	前	- 와세다대학, 조선소년동맹, 조선독립청년동맹에서 활동 - 『신천지』속간(1925.2) - 서울청년회에서 주최한 빠리 꼬뮌 기념강연회 강연(3월) - 서울청년회 계열의 조선사회주의자동맹의 상무위원으로 선전부에서 활동(4월) - 도쿄 제3전선사 조직, 『제3전선』발행으로 조선 내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 선전 - 신간회 도쿄지회 설립(5월), KAPF(9월) - 고려공산청년회 제주도야채이카 책임자(1928) - 1931년 10월 『조선일보』 상해특과원 - 시국강연회 강연(1933)
				경성고등보통학교 와세다대학 영문과	後	- 1945년 동북대한민단과 인민해방대동맹 결성에 참가, 간부(장춘 지역)

이 중 이신형은 해방 후 194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고, 1946년 박헌영 노선에 반대했다는 전적이 있다. 또한 홍순기는 1945년 ‘동북대한민단’과 ‘인민해방 대동맹’에 참가하였다. 그 외 김문준과 관련된 인물들은 <표11>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 표11 > 기타 관련 인물<sup>265)</sup>

연번	이름	생년	고향	관련내용	해방 前/後	활동내용
				受學		
1	송성철 (박경일)	1912 ~?	제주시 이도동	오사카조선소년동맹	前	오사카조선소년동맹, 조선신문
					後	- 정치범 석방 운동 촉진 연맹(1945) (관련인물: 김두용, 김민화) - 조련가입(1945)/ 재일 조선인연맹(조련) 중앙간부 - 서울에서 제주 출신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접촉(강문석·고경흠·홍남석·고준석·임해·윤석원과 교류) - 이후 여운형의 큰 사위가 됨. 1948년 월북,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 됨.
2	안세훈 (안요검)	1893 ~1953	조천읍 조천리	김문준 장례 위원	前	- 중국 만주땅 간도로 건너가 민족 운동 기관인 간도 간민교육 연구회 상무 서기로 취임, 동포의 계몽에 진력하면서 동북 삼성에서 독립 운동가(1926). -1930년 귀향 - 김시용, 김유환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수용 -1942년 치안유지법 위반 2년형
				전라도 광산군에서 한학(師:부해 안병택) 신명사숙 師丈(1914) 신명사숙은	後	-북군 조천면 인민위원회 결성되자 위원장에 피선(1945) -제주도 도제 실시하게 되면 그를 초대 도지사로 추대하려는 움직임 있었음 (1946) -제주읍 민주청년동맹(민청) 조직 시 축사(1947.1.25.)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결성(민전 의장단: 독립운동가 대표:안세훈, 불교계 대표:이일선, 유림

264) 金贊汀, 앞의 책, 1985에 그의 증언을 참조하길 바란다.

				김태호 개설 (김시용 父)	대표:현경호 -부의장단: 김택수·김상훈·김용해·오창훈 등) -제주에서 개최하는 '조선 인민공화국 인민 대표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월북, 이 때 최고 인민회의 1기 대의원(국회의원) 됨(제1기 대의원 총 572명 중 제주출신은 안세훈·김달삼·장규찬·고진희·강문석·송성철·고경흠 등 7명).
3	김시용 (金時容)	1906 ~ 1945	조천리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재 일노총(김명식 과 친척, 고순 흠 조카)/김문 준 제주 장례 위원 신명사숙 졸 업 /사립 중앙 고등보통 재 학중 동맹유 학으로 퇴학/ 도쿄 와세다 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 (1926)	前 -오일회 조직(1925) - 노동학원 설립, -문맹퇴치 운동 (노동야학) -삼양의 개량서당 기성사숙 교사 활동. -신인회 창립멤버(1925)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에 입당 -조선인 유학생학우회 강연대 일원(1928) -재일 조선청년동맹 집행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기관지 편집 및 출판위원(관련자: 고경흠) -부산 노동조합 비밀결사(1931) - 2년형 -1934년 귀향, 조천소비조합운동 전개(안세훈, 김유환, 김평원, 현사선), 혁명적 제주도 농민조합 운동 전개(1937)

송성철은 1929년 4월에 김문준의 지도를 받아 제주도 출신 소년들을 규합해 회원수가 500명이나 되는 '오사카조선소년동맹'<sup>266)</sup>을 만들었다. 또한 제주도민대회의 중심에 서서, 김문준의 활동을 지지하기도 했으며, 1935년 도쿄에서 제주를 탈출한 강창보와 조선어 신문인 『조선신문』<sup>267)</sup> 창간해 김문준의 『민중시보』와 연계하는 일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세훈과 김시용은 김문준이 사망한 후 1년 뒤 조천으로 시신을 운구할 때 제주도의 장례위원이었던 이들로 조천소비조합을 이끌었다. 김시용은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안세훈은 민전 의장단에 독립운동계 대표로 참가했다. 그 역시 송성철과 마찬가지로 1948년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이 된 후 남측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265) 김찬흠, 앞의 책, 2005; 강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66) 朴慶植, 앞의 책, 1979, 358쪽; 본 단체는 치안당국으로부터 극좌파에 속했는데 송성철이 대표한 재대판조선소년동맹은 그 회원수가 500명이었다(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333쪽).

267) 『조선신문』은 1935년 창간 준비호, 1936년 2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에서 창간한 재일조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어 신문이다. 발행인 및 편집인이 조선공산당원이어서 당국의 경계의 대상이었다. 1936년 7월 일본의 치안당국이 김학의, 김두용(金斗容), 박태을, 이운수 등 신문발행 및 편집 관련자 17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1936년 9월 4일자로 폐간 되었다. 지면의 내용은 주로 재일조선인 아동의 교육문제, 조선인의 현안 문제인 도항문제, 주택문제, 차별대우 문제, 취직 실업 문제 등을 다루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생애와 민족항일정신에 기반을 둔 각종 사회운동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문준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사회인식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애국계몽사상이 강한 조천과 수원농림학교에서 근대학문을 수학하였다. 이 둘의 영향으로 그는 농민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꿈꿨다. 만약 농민이 계몽하여 근대 농업 기술을 배운다면 앞으로 나라가 편안해지고 民들이 부강해지리라 믿었다. 이로 인해 그는 1910년대를 기회의 시기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는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가 보통학교 교직에 있었을 때 1919년 조천만세운동을 경험하였다. 이 운동은 일본이나 육지에 유학을 갔던 제주출신 청년들과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청장년층의 사회인식에 큰 변환점이 되었다. 김문준의 친우였던 김명식과 고순흙은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서울청년회’ 단체 등을 조직하며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상수용은 곧 조천만세운동이후 새로운 배움을 가지려는 제주 지역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문준의 운동형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김문준은 제주도에서는 교육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교육운동은 그의 사회주의적 방법에 따른 것이었다. 산업시설이 없어 노동자계층이 없고, 지주-소작 관계도 미약해 소작쟁의가 불가능했던 제주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소년 학생들에게 운동 역량을 집중했다. 후학을 양성함은 그들이 민족해방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그들이 속해있던 제주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1927년 이후 오사카로 눈을 돌렸다. 이미 많은 제주인들이 오사카로 건너가 마을을 이루고 노동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노동자 곧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운동을 민족항일의 방법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가 도일한 배경을 서울과 공산주의 그룹과 연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그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하 재일조선노총) 산하의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이하 오사카조선노조) 간부를 맡아 在오사카제주인들을 기반

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활동은 노동자 교육, 노동쟁의 등의 투쟁운동, 원산총파업 지지운동 등 신간회 활동, 셋집 등의 거주권 문제 해결, 제주도민대회 개최 및 동아통항조합 결성과 같은 제주인 생활권 옹호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그의 활동을 사회주의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이라 지칭하였다.

그가 1927~1929년에 활동한 ‘오사카조선노조’의 상위 단체는 재일조선노총이었다. 재일조선노총은 1927년 3차 대회 강령 발표로 민족적 정치투쟁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내부적 분파가 심하였고, 화합이 되지 않은 채 표면상으로 묶여진 오사카조선노조는 거의 각 지부별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 때 오사카에서 실시되었던 많은 활동들이 제주인 정착지인 東成區(生野區 포함)를 거점으로 이루어졌고, 그의 영향을 받은 제주 출신 청년들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 중 조몽구·현호진·김용해 등은 김문준 그룹이라 불렸고 도쿄 중앙 간부파와 맞설 만큼 오사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1927~1929년까지 김문준은 지도자로서 재일제주인과 노동자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활동을 추진한 재일제주인 활동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문준은 1930년 재일조선노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공산당 및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이하 전협)에 가입하였다. 그가 전협에 가맹하는 과정에서 낸 성명서에서 의하면 재일조선노총의 일원화되지 못한 지령으로 운동이 가내수공업화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더 적극적 운동을 하고자 하는 김문준의 바람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고무공조합을 중심으로 결성한 ‘전협 화학 오사카지부’에서 3·1운동 기념행사<sup>268)</sup>, 노동쟁의를 일본 활동가들의 조력을 받아 이어갔다. 그가 1930년에 검거된 이후에는 함께 활동했던 제자인 조몽구가 책임자가 되어 활동을 계속했다. 전협 가입과 함께 오사카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된 김문준은 수형생활을 끝내고 1935년 『민중시보』를 발행하였다. 독자층을 京阪神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지역차별이나 파벌을 경계하였다. 즉 재일제주인 활동가에서 재일조선인 활동가로 외연을 확대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김문준이 주변 인물들과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의 영향력은 공산주의 그룹인 전협 화학 오사카지부 뿐만 아니라 민족적 성격의 동아

268) 김인덕, 앞의 논문, 2008, 39쪽.

통향조합에도 계속 영향력을 끼쳤다. 이 동아통향조합운동을 이끌어 갔던 이가 오사카조선노조와 신간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달준 등이었다. 김문준의 일과라 일컬어졌던 이들 중 일부는 해방을 전후로 해 제주로 귀향해 남로당 제주도당,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에서 간부 역할을 맡았다. 또한 오사카 구 재판소 미키검사가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김문준으로 인해 오사카의 노동자들은 항일정신이 고양되었고, 조직화된 투쟁으로 성취감도 맛보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제주 안에서의 또 다른 사회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일본당국과 제주도 당국이 걱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김문준은 1936년 5월 22일 일본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의 활동은 일본 운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해방 후 일본 제국주의 압박에 투쟁한 사회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을 위해 세워진 「현창대판사회운동지전사」비에 이름을 남겼다.

그렇다면 김문준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가 서울과 공산주의 그룹이나 일본공산당에 속했다고 해서 특정 사상운동가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민족 항일적 열망은 1927년 오사카로 건너왔을 때 지은 詩와 그가 사망할 때까지 발행된 『민중시보』에서도 발견된다. 신간회 초대 회장 이상재가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근원이며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본류’<sup>269)</sup>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김문준은 사회주의자이면서 한편 민족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활동에서 계급투쟁은 곧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직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율로 민족항일운동을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조지훈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상호 영향으로 인해 해방 전까지의 공산주의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sup>270)</sup>이라 했듯이 김문준의 공산주의 운동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노동운동과 在오사카제주인을 중심으로 한 동아통향조합운동을 통해 제주라는 사회공동체를 해방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식민지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모두 해방시키려는 목적에 부합한 것이었다. 그는 1920년대 이후 민중을 통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

269) 『조선일보』 1928년 4월 1일자.

270)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 1, 『한국민족운동사』, 1964, 737-738쪽.

다. 즉 소년과 청년, 노동자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민족의 독립을 바랐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김문준의 모습 중 일부만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주제는 그의 사상과 사회운동의 영향력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재일제주인이 간여한 일본 반도 전체의 사회운동 둘째, 일제강점기 제주사회 활동가들의 국내·외 교유관계 셋째, 제주도내 정책변화의 양상과 제주사회 등을 모두 검토해야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제주인들의 사회운동 연구에 관한 외연 확대는 재일제주인과 제주사회의 관계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해방 후 제주사회의 변화과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4.3사건 연구에도 부분적이거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資料

-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민중시보』, 『사상월보』, 『사상회보』, 『삼천리』, 『시대일보』, 『자유신문』, 『朝鮮新聞』, 『조선일보』, 『조선조일』, 『조선총독부 관보』, 『중외일보』, 『특고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중앙일보』
- 「동아통항조합제3회 정기대회의안초안」  
수원농림학교, 『朝鮮總督府 農林學校 校友會 會報』七號, 八號.  
이원조 저, 백규상 역, 『역주 탐라록』 中, 제주문화원, 2017.  
제주 신촌초등학교 총동창회, 『큰물』 제6호, 2004.  
전라남도청, 「未開の寶庫 濟州島(목포간행소, 1924)」, 『한국지리풍속지총서』, 경인문화사, 1989.

### 2. 編纂書

- 渡部徹, 木村敏男 監修, 『大阪社會勞働運動史』 戰前篇·下 第2卷, 大阪社會運動協會, 1989.
- 朴慶植, 『조선문제자료총서』 제5권, 국학자료원, 1992.
- 朴慶植 편,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1-3), 삼일서방, 1975-1976.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6.
- 『金海金氏-監務公雲孫襄務公(鶴城君) 濟州新村波-世譜』, 金海金氏-監務公雲孫襄務公(鶴城君) 濟州新村波-世譜所, 1981.
- 『金海金氏 監務公派 世譜 乙 卷4』,  
제주도 제주시 교육청, 『제주시 교육 50년』, 제주시 교육청, 2004.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경신인쇄사, 1993.

### 3. 研究著書

-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 1, 『한국민족운동사』, 1964.
- 高峻石,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공동체, 1989.
-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총서 12-일본 한인의 역사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10.
- 김경일, 『한국노동운동사 2- 일제하의 노동운동 1920~1945』, 지식마당, 2004.
- 金玟奎, 『조천읍지』, 제주문화사, 1991.
- 김보현, 『무天誌』, 제일인쇄사, 1976.
- 김봉우, 『민중적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85.
-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김찬흡(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1999.
- 김찬흡, 『제주 항일인사실기』, 북제주문화원, 2005.
- 김태능, 『濟州島史論攷』, 경인문화사, 2014.
-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저, 김인덕 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 文國柱 편역, 高峻石 감수, 『朝鮮社會運動史 事典』, 社會評論社, 1981.
-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7.
-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이만열, 『한국독립운동사 연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 高峻石, 『越境- 朝鮮人私の記録』, 사회평론사, 1977.
- 高峻石, 『在日朝鮮人革命運動史』, 柘植書房, 1985.
-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垂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 前田善次, 「濟州道について」, 『文教の朝鮮』, 1928.
-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 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 朴慶植, 『在日朝鮮人-私の青春』, 三一書房, 1981.
- 杉源達, 『大正/大阪/スラム : 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 新評論, 1987.
-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國學資料院, 1995.
- 張錠壽, 『在日60年-自立と抵抗:在日朝鮮人運動史の證言』, 社會評論社, 1989.

#### 4. 研究論文

- 강재언, 「제주도와 대판-大阪에서의 동아통항조합과 노동운동」, 『제주도연구』 제13집, 제주도연구회, 1996.
- 구자욱, 「서둔벌의 근대농학 교육과 과학기술 전개」,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2010.
- 김광열, 「일본에서의 한인 사회운동과 민족 차별」,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8,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 김동운, 「송산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 『한국문학논총』 제63집, 2013.
-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김봉옥, 「일제하 제주에서 탄압착취상황」, 『濟州島史研究』 제6집, 濟州島史研究會, 1997.
- 강만생, 「韓末 일본의 제주 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 Vol.3, 1986.
- 김인덕, 「민족해방운동과 정남국」, 『史林』 Vol.12-13, 수선사학회, 1997.
- 김인덕, 「1930년대 진보적 일본노동운동과 재일조선인 국제연대」, 『史林』 Vol.29, 수선사학회, 2008.
- 김창후, 「재일제주인과 동아통항조합운동」, 『濟州島史研究』 제4집, 濟州島史研

- 究會, 1995.
-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 과제 -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제6집, 濟州島史研究會, 1996.
- 박찬식, 「일제하 제주지역의 청년운동」, 『濟州島史研究』 제4집, 濟州島史研究會, 1995.
- 박찬승, 「일제하 소안도의 항일민족운동」, 『도서문화』 (11),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1993.
- 성주현, 「대한협회의 민권의식과 근대 민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 서현주,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계급의 형성」, 『한국학보』 (63), 1991.
- 송찬섭, 「일제강점기 최익한(1897-?)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활동」, 『역사학연구』 Vol.61, 호남사학회, 2016.
-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4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13.
-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4.
- 양진건·강동호, 「제주 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4집 제1호, 교육사학회, 2014.
- 염인호(a), 「일제하 제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민족지평』 제2호, 민족지평사, 1990. 6.
- 염인호(b),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9.
- 이균영, 「해방의 땅 소안도」,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89.
- 이준식, 「日帝 强占期 濟州道民의 오사카(大板) 移住」, 『한일민족문제연구』Vol.3, 한일민족문제학회, 2002.
- 정혜경, 「1930년대 초기 오사카(大阪)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1.
- 진덕규, 「1920년대 社會主義 民族運動의 性格에 대한 考察」,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藤永壯,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4.3장정』, 제주4.3연구소, 1990.

桒田一二, 「濟州島人の内地出稼ぎに就いて」, 『大塚地理學會論文集』 5집, 대충지리학회,古今書院, 1935.

谷合佳代子, 「一九三〇年代在阪朝鮮人勞働者のたたかい」, 『在日朝鮮人史研究』 제15호,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1985.

金森襄作, 「在日朝鮮勞總「大阪事件」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제20호,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1990.

福本拓, 「1920年代から年代初頭の大阪における在日朝鮮人集住地の變遷」, 『人文地理』 제56권 제2호, 2004.

## 5. 學位論文

강봉석, 「김광추(1905-1983) 서예의 미술사적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리나, 「1920~30년대 제주도출신 재일조선인의 오사카 정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향구, 『大韓協會(1907~1910)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애림, 「조선노동공제회의 활동과 이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6. 인터넷 사이트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시스템 (<http://gb.nl.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판결문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listkeyword Search.do](http://theme.archives.go.kr/next/indy/listkeyword_Search.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부록1>

木牛 金文準 年譜

년도	나이	김문준 이력	관련인물 및 사건	국내사정	국외사정
1894 (明治1)	1	☞ 2월 10일생 (신좌면 조천리)		동학농민운동	
1906	13	☞ 의흥학교 수학	☞ 김명식, 고순흠 의흥학교		
1907	14				
1908	15	☞ 의신학교 입학(7.25) ☞ 대한협회 제주지회 회원	☞ 김명식: 대한협회 회원 ☞ 김희주 : 대한협회 회장		
1909	16		☞ 고순흠: 대동청년단	안중근 거사 (10.26) 대동청년단 조직 (안희재, 서상일, 이원진, 남형우) <sup>271)</sup>	
1910	17	☞ 의신학교 졸업(3월)			
1911	18				
1912 (大正1)	19	☞ 제주농림학교 졸업(3) ☞ 수원농림학교 입학(7)	☞ 김명식: 경기고보 자퇴 ☞ 고순흠: 제주농림학교 졸업	토지조사사업 (8.13) (~1918)	(일)동경유학생, 학우회 창립
1913	20				
1914	21		☞ 고순흠: 경성전수 졸업 (3), 대한독립단 가입		
1915	22	☞ 수원농림학교 졸업(3) ☞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견습	☞ 김명식: 와세다대 정치 외교 입학		
1916	23		☞ 김명식: 조선유학생학우 회 활동, 신아동맹당 결 성, 조선기독교청년회 간부 ☞ 고순흠: 제주해녀조합창 립		
1917	24		☞ 김명식: 병 요양		
1918	25	☞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사 (4) ☞ 화북보통학교 후원 단 체 '유지회' 결성	☞ 김명식: 와세다대학졸업 (7) ☞ 제주청년수양회		
1919	26	☞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사	☞ 김명식: 2.8독립선언 ☞ 3·1운동(김시용, 김시 은, 김장환, 김연배, 박두 규, 백응선, 김경희, 김필 원, 김희명, 황진식, 김형 배, 김용찬, 고재륜 복역)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 부수립 (9.5) 이르쿠츠크 과 고려공산당 한국지부, 대한 국민회 문창범 등과 전러고려공 산당 조직 (9.10) 문화정책 공포 (10.28) 신채호 『 신대한』 창간, 아 나키즘 선전작업 본격화 (10) 한민회조직	

				(평양)/서울공산 단체 결성 (11)의열단조직	
1920	27	☞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사 ☞ 동아일보 목포지국 총 무겸기자 (5-8월) ☞ 목포청년회 모임참석, 기금(10월)	☞ 문창래 : 동아일보 목 포지국 지국장(4) ☞ 고순흠, 김명식 : 조선 노동공제회 발기(홍순녕, 양제박) ☞ 김명식 : 동아일보 주 간, 조선청년연합회 기성 회 발족(6), 조선청년연합 회 결성.	(3.5)『조선일보』 창간 (3·16)75명이 조 선노동공제회발 기회 조직 (4.11)조선노동공 제회 창립(서울) (5.2)조선노동대 회 창립	
1921	28	☞	☞김명식: 서울청년회 결 성(1),상해과고려공산당 국내부간부(5) ☞고순흠 명신학교에서 강연(8)		코민테른 제3차 대회, (NEP)(6~7 월)
1922	29	☞	☞김명식:동아일보 사직, 월간지「신생활」社 이사 및 주필(2)(집필진:김명식, 이성태, 신백우 등), 「신 생활사」재판(2년) ☞고순흠사건(노동공제회 에서 추방)	-김윤식사회장사 건 -사기공산당사건 (4-6월)	소비에트사회주 의 연방 성립
1923	30	☞	☞민립대학설립운동(6.12): 장용건, 양상룡, 홍순재, 송중현, 김택수 등 ☞김명식 형집행정지 출 옥(7) ☞조천노동단(11.8):김형 배, 김시은		(일)도쿄유학생 김약수 등, 북성 회 조직(사회주 의단체)(1.15) 관동대지진 발생 (9.1) (12.15)일본노동 조합연합회 결성
1924	31	☞구좌중양교 교직	☞고순흠 渡日 ☞ 제주청년회 창립(6월)		
1925	32	☞구좌중양교 교직 ☞신성사수 (조천)	☞신인회: 김시용(창립), 송중현, 홍순일, 강창보, 김택수, 한상호 ☞오일회:김시용, 고성은, 김시관(조천) ☞ 노동학원 설립 ☞ 제주청년연합회(9.23)	신간회창립(2.15) 신 의 주 사 건 <sup>272)</sup> (11.22) 조선공산당 창립 (김재봉)(4.17) 박헌영, 고려공 산 청년 회 창 립 (4.18) 치안유지법 조선 시행령 공포(5.8)	(일)동경 북성회 →일월회로 개칭 (1.3) (일)제일본조선노 동총동맹 조직 (2.22)
1926 (昭和1)	33	☞화북학교 설립, 교사	☞신좌청년연맹조직 (6.24.) ☞제주공업농림학교 동맹 휴학(6or7월)	6·10 만세운동 (6·10) 제3차조선공산당 (ML당)-김철수 책 임비서	(일)일월회 해산 (11)
1927	34	☞ 渡日(7월) ☞ 오사카조선노조 창립대 회 - 집행위원(9.1.) 신간회 關西지방 조직(12)	☞ 제주공립보통학교 학 생 동맹휴학(5) ☞김명식:신간회제주지회 장(간사: 송중현, 회원:강 창보, 김택수) ☞ 구좌청년연합회(6.19.) ☞송중현 조선공산당입당 (7)→한상호, 김택수, 강창보	소안학교 강제 폐쇄사건(5.10)	(일)제일노총정치 부- '방향전환에 관한 선언' 정우 회 선언지지 (1.12) (일) 제일노총 3 회대회(4)-'민족해 방의 정치투쟁'



			가입/윤석원, <b>김정로</b> 고려공산청년회 가입 ㉔신간회 동경지회, '조선총독폭압정치폭로연설회' 개최(8.3) ㉕신간회 오사카지회 설립(12.5)(회장 金時赫)		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총독폭압정치반대운동)
1928	35	㉔ 在오사카조선인대회(신간회대판지회, 재일조선청년동맹, 오사카조선노조 공동주최) ㉕ 大阪사건(제명사건) (3) ㉖2차 오사카조선노조 확대집행위원회(송장복, 김병국, 김달환, 김광) ㉗ 제주도민대회(4) ㉘ 오사카조선노조 2회 정기대회:북부지부 상임 집행위원(4.23.) ㉙ 제주도민대회 (4.25) ㉚ 메이데이 행사 (1만여명 노동자 참석) ㉛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4차대회 (5.13-14) ㉜ 오사카 조선노조 임시대회(6.3) (교육부장) ㉝ 조선인거주권 획득동맹(7) ㉞ 조선인대회(8.12.) ㉟ 포생야학원(강사) ㊱ 간도공산당공판은 압박하였다! 전피압박자! 전투적 노동자농민은 일어나라!!! 격문발표(11.22)	㉔김명식, 김갑환(김명식子)渡日(3) ㉕ 제주청년동맹(4):제주청년연합회 후속. ㉖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김택수, 송종현, 강창보, 김정로, 윤석원)→제주도항일운동 위추 ㉗조몽구:동맹휴학으로 검거(경성지법 검사국 문서)(12)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 치안유지법 개정, 사상운동단속 강화	(일)재일조선청년동맹창립대회 대판에서 개최 (일)일본노동조합 전국평의회 (3·15검거사건→4월 15일 해산→전협 준비위원회) (일)진민족단일협동전선당 결성(3.21) -프로핀테른제4회 대회(3월) -코민테른 서기국(8월) 1국1당 원칙 표방, 재건 명령(12월테제) (일)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대회 개최(12.25)
1929	36	㉔ 신간회 간사 (2.5) ㉕오사카조선소년동맹 결성(4) ㉖ 오사카조선노조 3회 정기대회 (4.16) ㉗ 4차 공산당 검거사건 (7.18) ㉘ 신간회 오사카지부의 확대위원회 개최(검사위원장)(8.25.) ㉙ 오사카고무공조합 결성 (10.16) ㉚재일노총 전국대표자회의(12.14) 중앙위원 *오사카 조선인파업 가장 성황	㉔4차조선공산당 검거 관련자 : 오사카조선노조 핵심간부 정동파, 김대육, 신재용, 위경영 ㉕ 신간회 간사 : 김용해, 김문준, 조몽구 등(2.5) ㉖신간회 확대위원회 제주 출신 : 송병구, 조몽구, 김달준, 김용해 (8.25) ㉗전국대표자회의의 오사카조선노조대표:김문준, 조몽구, 박영만, 김영수 ㉘제주신간지회사건 <sup>273)</sup>	원산총파업(1-4)(6.28-6.29) (7.1) 신간회 전국대표대회 광주학생항일운동(11.3)	(일)일본공산당 탄압, 다수 검거(4.16)
1930	37	㉔ 오사카 내 노동자들은 전협하 결합통일 확대강화 동참 서약(2.25.) ㉕ '또 다시 성명한다.(2.28.) ㉖ 오사카조선노조 해소(4.8.)	㉔ 혁우동맹(비밀)조직(3·1.)→소년소녀에서 청년대중을 운동대상 전환 ㉕조선학생소요사건(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대판조선노동조합의 대책 협의에 관한 건(2.5) : 박영만,	신간회평양지회-신간회는 오히려 계급투쟁을 방해한다며 신간회 해소 결의(12.27)	(일) 재일노총 → 전협조선인위원회로 개칭(1) (일) 일본공산당 전국 일제히 검거(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동아통항조합 자주운항 운동 (4.21)</li> <li>㉕ 전협 화학대판지부 창립(5.29.)</li> </ul>	<p>조몽구, 박영근, 정좌모, 강준근</p> <p>㉔ 안세훈 귀향 - 김시용 김유환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받아들임.</p> <p>㉕ 전협 화학대판지부: 조몽구, 김용해.</p>		
1931	38		<p>㉔ 강창보 석방(1.4.)</p> <p>㉔ 제주도 사회주의운동자 간담회</p> <p>㉔ 제주 청년동맹 간부↔</p> <p>㉕ 김달준(4)·제주농민요구 투쟁동맹 운동에 관한 테제</p> <p>㉔ 재건야체이카(5.16.) : 송중현, 한상호, 김태수, 강창보, 윤석원, 김정로, 이익우, 오대진, 김한정, 신재홍</p>	신간회해소(5.16)	(7.2)만보산 사건 (7.18)日만주사변
1932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오사카 공소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 복역(4.12)</li> </ul>	<p>㉔ 제주해녀 항일운동(1)</p> <p>㉕ 3회 동아통항조합대회 - 조합 목적 전환</p> <p>㉕ 전협화학대판지부 책임자:손표기(3)</p>	의열단, 조선혁명정치간부학교 개교(10.20)	(일)일본공산당 탄압(9.30)-熱海事件
1933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동아통항조합 제4회 정기대회(6.14.)</li> <li>㉕ 일본공산당원 정우생 검거(7월)</li> <li>㉔ 혁우동맹 공판(5)김한정, 신재홍, 부태환, 박환규, 김시곤, 문도배, 안구현, 오대준, 이익우, 오문규, 강실순, 한향준, 이행우, 고기선, 김진안, 김문봉 등 22명 유죄 (윤석원 무죄로 형사보상액 청구) - 무정부주의단체</li> </ul>	경성고무공업소 여공 160명, 임금인하 반대 동맹 파업(2.13.) 평양 세창고무공장 직공 130명, 임금삭감에 항의 총파업(2.17) 부산 栗田 고무공장 여공 80여명, 임금인하 반대 등 요구 동맹 파업(2.25)	
1934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병보석으로 출옥(3.2)</li> <li>㉕*일본공산당 재건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김갑환 징역2년 확정(9.15.)</li> <li>㉔ 김시용 귀향, 조천소비조합운동(안세훈, 김유환, 김평원, 현사선)</li> </ul>		(일)재동경한인 700여명, 메이데이기념 시위 행진(5.1)
1935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민중시보」 창간(6.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정우생 병보석(8)→사망(1935.10.21.군대환으로 제주도)</li> <li>㉕ 한문택 석방 (9.7)</li> <li>㉕ 설상열 만기출옥 (10.15)</li> <li>㉕ 조몽구 출옥(12.25)→귀향</li> </ul>		(코)제7차대회 '파시즘 패배'목표
1936	43	사망(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경관신 조선인문제 좌담회(4.29) - 김경중, 김광수, 정태중, 이신형, 임정업, 주익순, 문중수, 이민선</li> </ul>		(중)중국국민당, 공산당과 합작 선언 (소)'스탈린 헌법' 채택

			㉞ 『민중시보』 폐간(9.25) - 이신형	
1937			㉞ 김문준 조천장 - 김시용, 김유환, 안세훈 (3.25.) 혁명적 제주도 농민조합	
<p><b>【일러두기】</b>        ㉞ : 서울, 경기, ㉞ :제주, ㉞: 목포, ㉞: 오사카, ㉞: 도쿄, (중):중국, (소):소련, (일):일본, (코):코민테른</p> <p>『재외동포사18 연표 일본』, 『직원록자료』, 『제주항일 인사실기』, 『동아일보』,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독립운동사 연표』, 『독립유공자공적조서』, 『민중시보』, 정혜경(2001) 등 본 논문 참고문헌 참조.</p>				

271) 17~30세 미만의 청년 80여명으로 조직됨; 이만열, 『한국독립운동사 연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29쪽.

272) 조선공산당 청년회원이 일본경찰과 술 마시던 변호사 폭행한 사건이다.

273) 「제주신간사건」, 『조선일보』 1929년 10월31일자; 「제주신간원 공판」, 『동아일보』 1929년 11월1일자;; 「제주신간회사건, 복심공판개정」, 『조선일보』 1929년 11월16일자.

<부록2>

農夫歌

通商會員 金文準

(대정 3년 11월 20일 稿-1914년 11월 20일)

軍人に軍歌あり航海者に航海歌あり乃至は學生に學生歌ありて、  
군인에게는 군가가 있고, 항해자에게는 항해가가 있듯이, 학생에게 학생가가 있다.

凡そ何より何迄、或一個の活動部隊ある時は之れに關聯さは無し、

대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특정 활동부대가 있을 때는 이와 상관은 없지만

然り然らば農夫に農夫歌無さ理あらむや、

그런고로 농부에게 농부가가 없으란 법이 있을쏘나

余曾て移住農夫の田植の唄を聞きしことあり、

소생 이전에 이주농부의 모내기 노래를 들은 적 있도다

その清肅さは實に一種言ふべからざる感を起きさしめ、

그 청아하고 정제된 소리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을 불러 일으켰고

且半島農夫の唄は無邪氣にて聞くに頗る好感を浮ぼしめぬ、

또한 반도농부의 소리는 꾸밈없이 순수해서 듣노라니 제법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此れ余が將來の農夫として 將又現在の學生農夫所謂處女農夫として

이점, 내가 장래 농부로서, 장차 또 현재의 이른바 초보농부로서

聞きしかばかり、於是乎螢雪の暇を偷み心に浮び出づる農夫歌を綴るも

듣기만 하지만, 이제 고향의 틈 속, 마음에서 떠오르는 농부가를 엮는 것도

亦敢て徒勞にあらざるべし 乃左に

군이 고생이랄 것도 없으니, 이에 아래에

	元文	譯
一.	自然으로래를삼고 誠實으로武器삼아 本分遵守하는農夫 多情하기限量업고 駸々日進우리事業 東天朝日기세로써 發達호는過渡時代 前途永遠반갑도다 十大港口五大鐵道 交通機關發達하니 十三道の富源所産 輸出收入極便이라 이가온대힘을쓰는 農夫心事快홀시고 斯業發達호흔機會 千秋間에쳐음일세	자연으로 미래를 삼고 성실로써 무기를 삼아 본분을 지키는 농부 다정하기 한량없고 빠르게 날로 진보하는 우리사업 동쪽 하늘 아침 해의 기세로써 발달하는 과도시대 앞길이 영원이 펼쳐지는 것이 반갑도다 10대 항구 5대 철도 교통기관 발달하니 13도 부의 원천에서 생산된 것들, 수출과 수입이

		아주 편리해졌네 이 가운데 힘을 쓰는 농부의 마음 쾌활시고 이 농업 발달 좋은 기회 오래 세월 동안에 처음일 세
	一年三百六十日에 後 날々마다滋味집고 時刻마다興趣만킨 農夫生活만이로다	以下
	家給人足國泰民安 農夫責任이아닌가 歛 어화우리農夫들아 日高三丈둥々뎌네	放此
二.	春到果園꽃이피어 天真爛漫嬋娟흐中 幽雅해서호흔香氣 黃蜂白蝶歌舞흐며 森林田園푸릇푸릇 青春方長자랑흐고 冷藏蠶種孵化흐야 白玉갓흔絹糸되며 朱頰致富져六畜은 或躍或飛可愛롭고 東洋特色蔬菜料理 일르부터盛饗되네 堂上鶴髮老親님과 膝下子孫和樂흐야 歲月감을不覺흐니 春外春이여기로다	봄이 찾아온 과원엔 꽃이 피어 천진난만한 예쁜 것 가운데서 그윽하고 품위가 있어 좋은 향기에 노랑벌 흰나비 노래하고 춤을 추며 삼림과 전원엔 푸릇푸릇 푸른 봄에 한창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겨울잠을 자던 누에알은 부화하여 백옥 같은 견사가 되며 도주(陶朱)와 의돈(猗頓)이 부를 이르게 했던 저 여 섯 종류의 가축은 혹은 뛰고 혹은 나는 것이 사랑스럽고 동양의 특색인 채소요리 이로부터 풍성하게 먹게 되네 집에 백발의 늙은 부모님과 슬하의 자손들 화락하여 세월이 감을 깨닫지 못하니 봄 밖의 봄이 여기로다
三.	夏日炎天더운때에 五風十雨호흔氣候 盛호山林避暑處오 種物枝葉青玉갓고 芳草青々綠陰中에 嘶風長堤져家畜은 上下山阪兼해놀며 主人보면반기는 듯 炎天流汗이勞苦도 少不感苦滋味집고 農家主婦副業從事 不顧炎熱可愛롭다 滿目生氣져景致는 나의審美助長흐며 晴耘雨讀이工夫는 加富爾의少時로다	여름 무더운 때에 오흥심우 좋은 기후 무성한 산림은 더위를 피하는 곳이요 종물의 가지와 잎은 푸른 옥 같고 향기로운 풀은 푸릇푸릇 녹음 중에 바람이 쉹쉹 우는 긴 듕의 저 가축은 산비탈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놀며 주인을 보면 반기는 듯 더운 하늘 흐르는 땀, 이 노고도 조금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재미가 깊고 농가 주부는 부업에 종사하니 6월 무더위도 돌아보지 않음이 사랑스럽네 눈에 가득한 생기, 저 경치는 나의 심미를 조장하며 개인 날엔 김을 매고, 비가 올 땐 책을 읽는 이 공

		부는 카보우르[加富爾]의 젊은 시절이로다. 국화 피고 단풍 들고 이슬 내린 굴잎 황금 천 조각에 아롱아롱 고은 과실 떨어떨기 황금이오. 하늘은 맑고 기후는 상쾌한 때 반지르르 살진 새와 가축들 아름답고 황패 공이 정사를 펼쳤는가 이삭은 두 개씩 달려 풍연을 이루었네 자연의 인과, 저 법칙이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수확이 되니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는 저 노고도 오늘 이때 때문이라 강구연월 격양가로 유쾌화락을 누리니 이와 같은 농부생활 요순 세상의 세월일세
四	菊花피고 丹楓들고 露垂橘葉 金千片에 아롱아롱 고흔 果實 떨어떨기 黃金이오 天朗氣清 爽快흐때 潤肥禽畜아름답고 黃霸公이 臨政흐가 穀穗兩岐豐年일세 自然因果저법칙이 有稼必果收穫되니 春耕夏耘저勞苦도 오늘이때 때문이라 康衢烟月擊壤歌로 愉快和樂누리우니 이와又흔農夫生活 堯舜乾坤日月일세	북풍한설 겨울추위 상가 소부 원망마라 동장 한겨 우리생활 태화 춘풍 여전하다 겨울 석 달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닦아 지고 한 선으로 향해 가니 일취월장하는 공부 남양의 제갈량이 아니던가 여름 무더위에 흐르던 땀은 허물을 씻는 보배로운 땀이오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하는 농사는 본무를 실천하 려 쌓는 발걸음이로다. 신농씨 후 몇 천 년인고 반만 세월 적잖도다 신농씨 후 반만년에 제2 신농 이 몸일세
五	北風寒雪겨울추위 商家素婦怨恨마라 冬藏閒居우리生活 泰和春風如前흐다 用足三冬道理다거 至高善에 向해가니 日就月將흐는工夫 南陽臥龍이아닌가 夏日炎天흐르던땀 허물씻는寶汗이오 自曉至暮하는稼穡 本務實踐積步로다 神農氏後땀千年고 半萬月間적잔토다 神農氏後半萬年에 第二神農이몸일세	금수같이 고운 강산, 우순풍조 기후 좋고 사천여 년 반도 역사 농부활동 기록이오. 농업발달 좋은 기회 저와 같이 훌륭하니 이렇게 보면 동반도는 하늘이 준 농업지라 눈을 들어 살펴보라 산은 모두 민둥산이오 귀를 대고 들어보라 백성들은 모두 가난하다 말을 하네 그 원인을 돌이켜보면 하늘이 준 것을 따르지 않 는 대만이. 오늘날은 신천지니 악습을 씻고 농업에 힘쓰세
六	錦繡又히 고흔江山 雨順風調氣候조코 四川餘年 半島歷史 農夫活動期錄이오 農業發達호흔기회 저와又히훌륭흐니 일로보면 東半島는 天賦호신農業地라 눈을드러슬펴보라 山은모다秃山이오 귀를대고 드러보라 民은모다窮聲일세 그原因을遡求하면 不從天賦怠慢이라 오늘날은 新天地니 浴去惡習力農호세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당국의 장려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따라가며 힘써 열심히 수확하는 이주동포를 모범삼아 아울러 나아가고 덴마크의 이상농촌을 동반도에 옮겨오며 미국농부의 합리경영을 우리 농부 참고삼고 내지농부가 부산물 생산에 힘쓰는 것을 저와 같 이 힘을 쓰고
七	無所不至當局獎勵 拳々服膺 따라가며 孜孜力穡 移住同胞 模範삼아竝進호고 丁抹國의理想農村 東半島에 옮겨오며 美國農夫合理經營 우리農夫參考삼고 內地農夫副產勉勵 저와又히힘을쓰며 獨逸山林盛호景致 우리農夫거울삼고 瑞典農夫勤勉貯蓄 期必竝行奮發호야 造次顛沛動作間에 쉬지말고前進호세	

		<p>독일산림의 무성한 경치를 우리 농부가 거울삼고 스웨덴 농부의 근면저축을 기필코 병행해 분발하여</p> <p>눈 깜짝할 사이 다급한 경우에도 쉬지 말고 전진 하세</p>
八	<p>洪水旱魃豫防에는 森林水利第一이오 良田沃土増生産엔 灌溉施肥 急先務며 改良種을 普及호면 事半功倍結果만코 作業速進호는대는 改良農具利用호며 害敵驅除豫防에는 昆蟲病理應用호고 資本만키 希望호면 節儉貯蓄勵行호며 智識技術鍛鍊호고 學問實地調和호여 新天地의 光明下에 破天荒의農夫되세.</p>	<p>홍수와 가뭄 예방에는 삼림수리가 제일이요 양전옥토로 생산을 증대하는 데에는 관개시비 가 급선무이며 개량종을 보급하면 일은 반은 줄고 공은 배로 늘 어 결과가 많고 작업을 빠르게 나아가는 데에는 개량한 농기구를 이용하며 해충을 몰아내어 없애는 데에는 곤충병리를 응용 하고 자본이 많아지길 희망하면 절약 저축을 힘써 행하 며 지식과 기술을 단련하고 학문과 실지를 조화하여 신천지의 광명 아래 미개(未開)의 황폐함을 깨뜨리 는 농부 되세.</p>
九	<p>西伯利亞저鐵道와 歐美航行저商船은 半島農夫所産物을 滿載輸出期待호네 浮華青年速히깨여 生産從事着手호고 蟄居閨婦惡習고쳐 副業勉勵遊食말며 北間島와西間島에 轉耕호는저농부들 一攫千金꿈을깨여 農夫호은農夫되세 士와工과商의業은 由此隆盛할것이니 二十世紀形勢따라 世界的의農夫되세</p>	<p>시베리아의 저 철도와 유럽과 미국을 오고 가는 저 상선은 반도농부가 생산한 것을 가득 싣고 수출하길 기대 하네 겉만 화려한 청년들은 속히 깨어 생산 종사에 착 수하고 침거하는 규방의 부인들은 악습을 고쳐 부업에 힘 써 놓고 먹지 말며 북간도와 서간도에서 이동하며 농사를 짓는 농부 들 일확천금 꿈을 깨어 농부 같은 농부 되세 학업과 공업과 상업은 이로부터 융성할 것이니 20세기의 형세를 따라 세계적인 농부가 되세</p>
十	<p>守國에도 待農夫오 富國에도 待農夫며 여러가지工商業者 依賴農夫泰山호고 法治教育저事業과 學者藝者저人物들 農夫信仰神聖호고 希望호기燭火로다 더군다나東半島는 輸入輸出通商호에 農夫로써對象삼고 農夫로써 主人삼네 이와호은壯호形勢 農夫福音이아닌가 二十世紀活舞臺에 世界的의 農夫되세</p>	<p>나라를 지킴에도 농부를 필요로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함에도 필요로 하며 여러 가지 상공업자들 농부에 의뢰함이 태산 같고 법치교육 저 사업과 학자, 예술가 인물들 농부를 믿고 받드는 일을 신성한 존재와 같이 하 고 희망하기를 촛불을 밝힌 듯 하네 더군다나 동반도는 수입과 수출로 통상함에 농부로서 대상을 삼고 농부로서 주인을 삼네 이와 같은 장한 형세는 농부에게는 복음이 아니던 가 20세기 활동하는 무대에 세계적인 농부 되세.</p>



<부록3>

弔故校友七首

特別會員 金文準

其一 弔故金宅洙君

聞訃此時淚欲紅 부고를 들으니 피눈물이 내려하네 (東韻)  
 嗟君夭折北邙風 아! 그대가 북망풍에 요절하다니  
 平生壯志伸何處 평생에 굳센 뜻 어디에서 펼칠까  
 三尺墳成萬事空 석 자 무덤에 만사가 허사로다

其二 弔故彭漢基君

(陌韻)

勞亭分手幾星霜 노정과 헤어진 지 몇 년 이던가  
 哀君不幸顛流厄 불행히도 흐르는 액운에 넘어진 그대를 슬퍼하나니  
 去年受賀壯元郎 지난해 장원랑으로 축하를 받더니  
 今年受弔黃泉客 올해 황천객으로 조문을 받는구나

其三 弔故朴稚奎君

(覺韻)

姓是朴而身未朴 성씨가 박이지 몸은 박하지 않았는데  
 朴門俊秀摧龍角 박씨 문중에 존재였던 용의 뿔이 꺾였구나  
 去年分手校庭時 지난해 교정에서 헤어질 때는  
 誰識至今悲再覺 누가 지금의 슬픔을 예감 했겠나

其四 弔故金晟玉君

(冬韻)

飛君魂魄九原峰 그대의 혼백이 구원봉 위로 날아가니  
 淚眼不離滑稽容 흐르는 눈물 뺨에서 떨어지질 아니 하네  
 鶴髮萱堂沈痛哭 백발 성성한 그대 어머니는 침통하게 곡을 하시고  
 使人吃吃轉哀慵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게 하네

其五 弔故崔益培君

(支韻)

奈何人命弱如絲 어떻게 된 게 사람 목숨이 실처럼 약하단 말이나  
先輩彫像先輩悲 선배의 조각상이 선배의 슬픔이 되었으니  
弔意萬重焉盡述 조문하는 뜻이 깊고 깊어서 어떻게 다 말로 할고.  
只將含淚一題詩 다만 눈물을 머금고 한편의 시를 쓰려하네

其六 弔故李貞奎君

(尤韻)

萬里孤君世事休 만 리 외로운 그대 세상일을 그만 두었으니  
聲聲呼鴈壓人頭 끼룩끼룩 기러기 우는 소리 머리 위를 날던 날  
沈珠學海天何意 학문의 바다에 구슬이 잠겼으니 하늘이 무슨 뜻이던가  
寒色暮雲摠是愁 차가운 물색도 저물녘 노을도 모두가 근심이구나

其七 弔 故吳盛根 君

(紙韻)

郵夫傳訃其耶詭 우체부의 부고를 전해 받고 그것이 거짓이라며  
健骨壯年嗟未恃 건장한 청년이 아, 믿지를 못했다네  
無期別恨斷人腸 기약 없는 이별의 한이 사람의 애간장을 끊더니  
但見誅君官報紙 다만 관보지에서 그대의 형벌소식을 알았었는데

<부록4>

시가 雜感 ----- 木牛

太古스적 百性이다. / 움사리(움집生涯) 어인일고.

杜門洞 아니어든 차즐이도 업단말가./

못노라 錦繡江山이 언제이리

가슬(私收)이 엇더터니 넷동건 그리위라

露積이 눅다란데

춤추며 노래러니

어이타 恨많은 後生 빈 비스(필자주 : 빛)자루

해두고 남은 것이 오묵은 빛(필자 주 : 빛)이로다.

白雪滿天夜에 속쓸인 살님이야.

世上이 이럴줄 아드면 그 辛苦나

소주어 수레타고 논팔아 잔치하다.

한 채남은 오막사리 큰물에 휩쓸니어

兒孩야 무엇을주리 품은하날

지계가 城이더냐 작대가 칼이더냐

다갓흔 일軍인데 이차몸 무삼일고

두어라 暫間쉬엿슬제 힘좀골르아

비구름 저문날에 메(필자주 : 산)넘고 가람(필자주 : 강) 건너

호여저 해메이는 말썽한 白衣客아

이 江山 뉘게맞겨두고 어데데로

한다는 벗님네는 하날가(필자주 : 천애)에 아득하다

거리에 노는 親舊 모주맛이 엇더하니

두어라 외로운노래나 밤새도록

木牛야 발은 잇건만 길뭇가 恨이라도

대스글월 잔득 실고 하날만 울어린다

天地에 知音(필자주 :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업나보다 소리너어이

(출처 : 「동아일보」 1925.12.31.)